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30-01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구 책임자
신중진

2018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신중진

공동 연구원: 김유진, 소현숙, 전은진, 박선

연구원: 엄태경, 이성우

연구 보조원: 김령령

보조원: 가희지, 이해주



<국문 초록>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본 연구는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를 구축하고 그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통일 시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여 용어를 표준화하고 남북 통합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에 수행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의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 남북 역사 분야 자료 수집
-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 및 목록화
-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및 통합 제안

나. 역사 분야 전문용어 통합 지침 마련

- 이전 사업의 일반 지침 검토 및 활용
- 역사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통합 알고리즘 설정
-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다. 역사 분야 전문용어 연구 성과 발표 및 토론

- 다양한 분야의 역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 개최
- 연구진의 연구 내용 발표와 토론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본 연구는 이처럼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역사 분야 전문용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측 역사 분야 전문용어를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이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2,049개의 남북 전문용어 쌍을 확보하였다. 동일 개념에 대해 남북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AA형은 1,502개 쌍(73%)이 있었으며, 맞춤법 및 두음 법칙 등의 표기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Aa형은 184 쌍(9%)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AB형은 363 쌍(18%)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어학적 분석은 통합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분석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서 발

<직책>	<연구진>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김유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소현숙(한양대학교 HK연구소)
	전은진(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박선(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연구원	엄태경(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이성우(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연구 보조원	김령령(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보조원	가희지(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혜주(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 례

견하지 못한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어종 분석 결과, 남과 북 모두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어’는 남측과 북측 역사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앞으로 통합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어 분석 결과,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1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48.1%)가 가장 많았다. 신중진 외(2015, 2016, 2017)에서 다룬 수학, 물리, 국어 분야는 2개로 결합된 용어가 가장 많았는데, 역사 분야는 이러한 결과와 차별화된다. 또한 역사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고유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인명’, ‘문화재명’, ‘유적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미 유형 분석 결과, 남과 북이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의 시간과 서로 다른 체제 및 이념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역사 인식에서 개념적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남북 역사 분야에서 추출한 전문용어 목록과 언어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8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판정 기준에는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을 필터 기준으로 설정하고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 등의 순서로 6단계 위계 기준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판정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용어들 간의 체계를 검토하는 체계성이라는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역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문회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의 연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전문용어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을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함으로써 그간의 연구 현황을 알리고,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전망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전문용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전문용어 조화를 위한 ‘사전 준비-목록 구축 및 분석-개념 조화 작업-용어 조화 작업-조화된 전문용어의 유지 관리’의 5단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가 실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역사 교과, 전문용어, 언어학적 분석, 어종, 조어 단위, 의미 유형, 필터 기준, 위계 기준, 조정 기준, 전문용어 통합, 전문용어 조화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표 1
 - 2. 연구의 내용 2
 - 3.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3
 - 4. 추진 일정 5
- II.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과정**
 - 1. 역사 분야의 범위 한정 8
 - 2. 남북 전문용어 추출 과정 11
 - 2.1. 자료 수집 12
 - 2.2. 남측 전문용어 추출 14
 - 2.3. 북측 대응용어 확인 16
- III.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 1. 남북 역사 분야 위계 기준 설정 18
 - 1.1. 기존의 위계 기준 18
 - 1.2. 역사 분야 위계 기준 21
 - 2.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 23
 - 2.1. 역사 분야 전문용어 판정의 적용과 실제 23
 - 2.1.1. 문법성의 적용 24
 - 2.1.2. 윤리·미학성의 적용 24
 - 2.1.3. 투명성의 적용 25
 - 2.1.4. 친숙성의 적용 25
 - 2.1.5. 일의성의 적용 26
 - 2.1.6. 경제성의 적용 27
 - 2.1.7. 고유성의 적용 29
 - 2.1.8. 일관성의 적용 30

2.1.9. 체계성의 적용	31
2.2. 통합 기준의 계량적 특징	36
2.3.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38
2.3.1. 어문 규정에 따른 문제	38
2.3.2. 문화재명 및 사건명과 관련된 문제들	41
2.3.3. 어휘의 공백과 관련된 문제들	43
IV.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1.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49
1.1. 어종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49
1.2. 남북 역사 전문용어 유형	50
1.3. 어종 분석의 실제	51
1.3.1. 형태가 같은 것(AA형)	51
1.3.2. 형태가 같은 것(Aa형)	56
1.3.3. 형태가 다른 것(AB형)	62
1.4. 통합을 위한 제언	66
2.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69
2.1.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70
2.2. 조어 분석의 실제	71
2.2.1. 조어 분석의 단위	71
2.2.2. 조어 분석의 결과	75
2.2.3. 핵심 조어 단위	86
2.3. 통합을 위한 제언	89
2.3.1. 전문용어의 특징	89
2.3.2. 고빈도 조어단위를 활용한 전문용어의 통합	90
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의미 유형	95
3.1. 의미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95
3.2. 의미 유형의 실제	97
3.2.1. 역사적 인물 및 지명	97

3.2.2. 역사적 사물	100
3.2.3. 역사적 사건	105
3.2.4. 역사적 제도	109
3.3. 통합을 위한 제언	109
3.3.1. 역사 용어 통합 시 고려할 점	110
3.3.2. 역사 용어 통합의 의의	112
V.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문용어 정책의 방향	
1. 연구의 성과	114
2. 향후 전문용어 정책의 방향	116
2.1. 기존의 전문용어 정책	116
2.2. 전문용어의 조화	117
2.3. 《ISO 860》에서의 조화 절차	120
2.4. 새로운 전문용어 정책 제안	126
* 연구 자료 및 참고 문헌	130
* <부록>	

<표 차례>

<표 1> 월별 주요 연구 진행 과정 5
 <표 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2000: 77) 9
 <표 3> 발주처의 제안 요청 내용 10
 <표 4> 역사 분야 남측 자료 목록 12
 <표 5> 역사 분야 북측 자료 목록 13
 <표 6> 역사 분야 용어 판정의 순서 23
 <표 7> ‘고구려고분’과 ‘고구려옛무덤’ 용어 판정표 33
 <표 8> ‘모루떼기’와 ‘때려깨기’ 용어 판정표 34
 <표 9>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유형 50
 <표 10>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56
 <표 11>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66
 <표 12> 조은경(2001: 22-28)에서의 조어 분석 방법 73
 <표 1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품사 표시 74
 <표 14> ‘경기^연천^전곡리^유적’의 분석 예시 74
 <표 15> 역사 분야 전문용어 유형 75
 <표 16> 역사 분야 조어 단위 길이 77
 <표 17> 역사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79
 <표 18> 역사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80
 <표 19> 역사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82
 <표 20> 역사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84
 <표 21> 역사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85
 <표 22>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고빈도 조어 단위(상위 50위) 88
 <표 23> 임태경(2015)에서 제안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공통 원칙 89
 <표 24> 남측 조어 단위에 대응하는 북측 조어 단위 92
 <표 25>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대응쌍 93
 <표 26> 접사에 의한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대응쌍 94
 <표 27> 2018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성과 115
 <표 28> ‘붉은간토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주석들 125
 <표 29> 조화된 ‘붉은간토기’의 개념 126
 <표 30> 국내의 ‘전문용어 조화’ 절차 모델 128

[그림 차례]

[그림 1]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의 6단계 11
 [그림 2] 북측의 최근 역사 교과서 14
 [그림 3] 남측 전문용어 추출 및 선정 과정 15
 [그림 4] 대응 용어 확인에 활용된 참고 자료 16
 [그림 5] 2015년 1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19
 [그림 6] 2016년 2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0
 [그림 7] 2017년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1
 [그림 8] 2018년 4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2
 [그림 9]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위계 기준 판정 결과 37
 [그림 10]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유형 분포 51
 [그림 11] AA형 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53
 [그림 12] Aa형 용어의 유형 57
 [그림 13] AB형 남측 역사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63
 [그림 14] AB형 북측 역사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65
 [그림 15]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76
 [그림 16] 《ISO 860》의 전문용어 조화 절차 121
 [그림 17] ‘토기’의 개념 체계 123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표

현재 남북 관계는 원만한 상황이다. 북측 체제의 개방과 함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 예기치 못한 시기에 다가올 경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그중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전문용어의 통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 그리고 2017년에 이루어진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의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교류 과정에서 용어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통일 준비기 및 전환기의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나. 통일 시기에 청소년 및 학습자의 중·고등 교육에 필수적인 역사 교과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일관된 교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다. 이전 연구에서 마련한 절차와 방법론을 역사 교과에 적용하여, 연구 방법론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라.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역사 교과에서의 전문용어 통합 가능성을 확인한다.
 - 마.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 바.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남북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에 있다. 이는 남북 교류 및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1가). 다만 전문용어의 통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전 연구에서 도구 교과에 해당하는 국어와 수학의 전문용어 통합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사 교과의 전문용어를 통합하고자 한다(1나).

2016년에 수행된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에 이루어진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서는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방법론과 절차가 마련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전 성과의 방법론과 절차를 역사 교과에도 적용해보고자 한다(1다). 특히 역사 교과는 남측과 북측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심한 영역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에서의 전문용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교과의 전문용어 통합도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라).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국제 학술회의 등을 통해 학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1마). 이는 국어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 계층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1바).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에 이루어진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과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해당 용어의 추출이고, 둘째는 용어의 통합 기준 마련이다. 세부 절차 및 방법론은 이전 성과에서 정밀히 논의된 바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에서 용어 추출은 역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측의 역사 교과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북측의 역사 교과서 및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교과서 및 사전을 바탕으로 남측과 북측의 대응 용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¹⁾

다음은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은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 그리고 2017년에 이루어진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바탕을 둔다. 다만 통합 기준의 순서를 조정한다. 이는 역사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각 기준의 위계와 역사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수행된 수학 및 자연과학, 그리고 체육 교과와 달리 역사

1) 남측 자료 및 북측 자료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교과는 인문학 중에서도 남측과 북측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한 영역이다. 역사관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와는 다소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도 증정적으로 다루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인문 분야 및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수립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전 사업인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남북 전문용어 구축》,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본다. 그리고 이 연구가 이루어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3.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국내 전문용어 연구의 중심축을 잡는 기관은 국립국어원이다. 전문용어의 정비는 국어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학계에서도 전문용어 정비를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더불어 남측과 북측은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국립국어원 편(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간의 전문용어 연구는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그리고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을 통해 총정리된 바 있다.

그간의 전문용어 연구와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것으로 대신한다. 대신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그리고 현행 연구인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의 관련성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²⁾

이 연구가 선행 연구를 따르는 지점으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방법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직접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조태린(2017)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론은 수학 및 자연과학 등 이념적 색채가 열은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가 인문 과학의 전문용어 통합에도 시도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를 통해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론과 통합 절차가 국어 교과와 같은 인문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론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심한 영역에서도 효율적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가 예상만큼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관련된 교과에서도 동일한 연구 방법론이 여전히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 교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의 연구를 통해 얻은 수확 중 하나는 바로 전문용어 통합 기준의 구축이다. 국제적인 논의와 남북의 특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용어 통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을 따라, 새로운 분야에 확대 적용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한 통합 기준의 틀을 유지하되, 역사 분야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체계성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여 통합된 전문용어를 한번 더 검토하였다. 이는 이전의 성과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통합 기준의 위계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된다.³⁾

자연과학의 전문용어와 달리, 인문과학의 전문용어는 사상 및 정치 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은 통일 이후에도 큰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인문학 및 역사 교과 영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의의는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 교과영역에서도 전문용어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이전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통합 방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 모든 연구가 비교 차원에 머물러있기 때문이

3)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은 교과 전문용어 외에 행정 용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물론 위계 순서에 대해서는 행정 용어에 적합하도록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조태린(2017: 311-312)을 참고할 수 있다.

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의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될지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분된다. 물론 이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이루어질 인문과학 전문용어의 통합 과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선행 영역의 성과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역사 분야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및 통합 기준을 수정하였다. 물론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사상 및 정치 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영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다.

4. 추진 일정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 바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과업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였다. 착수보고회를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월별로 진행된 주요 과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	주요 진행 과업	비고
5	연구 자료 수집 남측의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착수 보고회
6	북측의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및 남측 전문용어와의 비교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
7	남북 전문용어 통합 지침 마련	중간평가회 자문회의
8	1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작성	전문가 워크숍
9	2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작성	-
10	국제 학술회의 참석(한글박물관)	국제 학술회의
11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수립	최종 평가회

<표 1> 월별 주요 연구 진행 과정

<표 1>은 본 연구의 월별 연구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5월부터

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수행한 작업은 자료 수집이었다. 본 연구진은 남북 전문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남측과 북측의 교과서 자료 및 대학교 교재, 그리고 북측의 대백과 사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북측의 교과서와 대학 교재, 대백과사전의 확보였다.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협조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의 도움을 바탕으로 북측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측의 국정 백과사전인 《광명백과사전》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2013년도에 발간된 북측의 최신 교과서 또한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지원받았다. 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6월부터는 전문용어 추출이 이루어졌다.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및 주요 대학 개론서 대상으로 남측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역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주요 전문용어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측 교과서 및 북측의 대학 교재를 대상으로도 같은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6월에는 수집된 북측 전문용어를 남측의 전문용어와 대응시키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역시 역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은 추출한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북측의 자료에서 직접 찾았다. 북측의 역사 교과서, 그리고 《광명백과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진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전문용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자료에서 추출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선행 과업에서 수행한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하였다. 역사 분야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각 영역에 적합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특징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마련하였다. 6월에 수행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전 연구의 결과도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착수보고회 당시 지적받았던 사항을 수용하여 체계성이라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 전문용어 선정에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더불어 중간평가회와 자문회의를 함께 개최하여 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한 유익한 자문도 구할 수 있었다.

8월에는 전문용어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임연구원의 주도 하에 각각의 용어에 대해 세부적으로 판정하였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진 간의 이견 역시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책임연구원의 주관하에 토론

을 거쳐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워크숍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성과를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하고, 학계 각층의 연구자들로부터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9월에는 중간평가회 및 자문회의 전문가워크숍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2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이 작성하였다. 결과는 다시 연구진들 간에 서로 교차 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본 연구 결과의 성과를 집약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전문용어 연구에 대한 다른 학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전문용어 통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11월에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11월 국립국어원에서 최종 평가회에서 발표되었다. 최종 평가회에서는 여러 유익한 지적과 조언이 있었다. 이들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과정

II 장에서는 남과 북의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추출 과정의 설명에 앞서 우선 역사 분야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역사 분야는 이전의 많은 논의에서 연구 방법과 범위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본고에서는 통일 시기의 교육을 전제로 역사 분야를 한정한다.

다음으로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을 살펴본다. 역사 분야의 다양한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관련된 모든 서적을 망라하여 최대한 많은 용어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제되지 않은 자료는 오히려 용어들 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북측의 자료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확보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롯한 교과서 편수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용어집, 사전 등 타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한다.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은 자료의 수집, 남측 전문용어의 선정, 그리고 북측 대응어의 확인으로 진행된다.

1. 역사 분야의 범위 한정

역사 분야는 여타의 분야와 달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 분야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통한 범위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에 따른 전문용어의 범위를 살펴보고, 그 범위와 한정이 얼마나 모호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연구 발주처의 제안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범위로 내용을 한정한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문어의 영역 구분에 대한 내용이다.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한다.

5. 전문어 5-1-4. 표제어 선정 범위 1. 전문어의 영역은 크게 현대와 과거(역사)의 두 시점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과거 시점의 전문어는 『역사』 영역에서 총괄하여 다룬다.
--

- 1) 『역사』를 제외한 각 영역에서는 현대 시점 이후의 제도·기관·사건 등과 전문적 개념에 관련되는 표제어들을 다루며, 『역사』 영역에서는 정치·경제·법률 등 모든 분야의 역사적 제도·기관·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 2) 현대의 시간적 기점은 국내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시점, 외국의 경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영역에서는 해당 영역의 예외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 중략 ……

4. 전문어의 하위 범주에서 다루게 될 고유 명사들은 인명, 지명, 책명과 기타 고유 명사의 4개 분야로 구분한다.

- 1) 기타 고유 명사에는 단체명, 기관명, 건축물명, 기업명, 시설명 따위의 표제어들이 포함되며, 그 선정 기준은 기타 고유 명사 분야에서 정한다.
- 2) 그러나 특별히 각 전문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경우 각 전문 영역의 표제어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각 영역별로 정한다.

<표 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2000: 77)

위의 표에서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해 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역사 영역은 “정치·경제·법률 등 모든 분야의 역사적 제도·기관·사건 등을” 이른다. 그리고 역사와 현대를 가르치는 시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즉 1948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전의 모든 내용은 역사 분야로 포함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 영역은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 온 것이다.

아래의 밑줄을 보면, 역사 분야뿐 아니라 각 분야의 하위 범주에서 ‘인명, 지명, 책명, 기타 고유명사’를 구분하여 다룬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역사 분야에 포함하면, 1948년 이전의 고유명사들은 대부분 역사 용어에 포함된다. 따라서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해, 많은 전문용어가 역사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⁴⁾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역사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발주처의 제안 요청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제안 요청서에 담긴 제안 사항이다.

4) 정호성(2000: 70)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역사 분야 전문어는 총 19,401개이다. 총 53개 분야의 전문어 평균 개수가 대략 4,100여 개임을 고려했을 때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남북 초중등 교과서, 신문 및 대중잡지 등에 나오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대조 분석 및 통합 방안 제시(2,000항목 이상)

○ 남북의 역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중등 역사 교과 영역 중심의 용어 추출

<표 3> 발주처의 제안 요청 내용

위 표의 첫 번째 항에서는 용어 추출을 위한 대상 자료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초중등 역사 교과 영역이라는 한정을 더하고 있다. 통일 시기 역사 교과 교재 편찬을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때, 역사 분야의 범위는 구체화된다. 즉 초중등 교육과정의 역사 용어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중등 과정(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역사 전문용어로 한정할 수 있다.

역사학은 일반적으로 한국사·동양사·서양사·역사 교육으로 나뉜다. 이 중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사와 세계사(동양·서양사)로 대별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역사’ 교과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국사’ 교과와 ‘세계사’ 교과를 따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사와 세계사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역사 영역에서 세계사 부분은 제외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역사 용어는 그 방대한 범위로 인하여 추출 대상과 범위가 좁지 않다. 한국사 범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세계사를 더 포함하게 되면 본 연구팀이 다룰 수 있는 적정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발주처의 제안 요청에서도 2,000여 항목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바, 한국사 분야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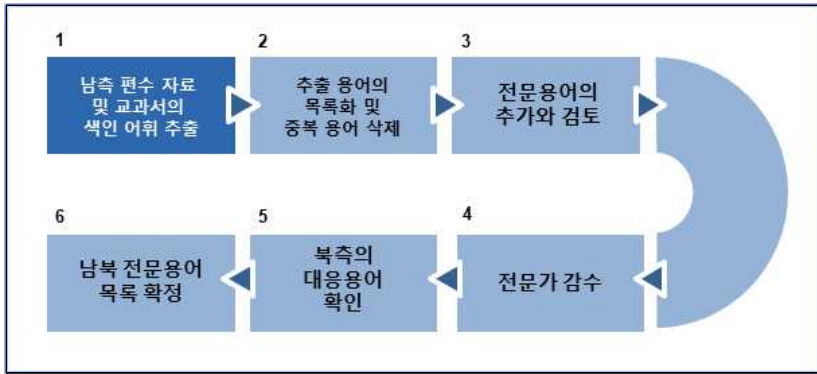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남측의 한국사 분야의 범위와 북측의 한국사 범위를 조정하는 일이다. 북한의 ‘역사’ 교과 과정에서는 남측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교과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등과 같은 교과들인데, 이 교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일대기를 역사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치사상적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남측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측 대응어를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의 역사 분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대응하는 북측의 역

사 부분도 정치사상적인 부분을 배제한 ‘역사’ 교과에 한정한다.

2. 남북 전문용어 추출 과정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은 남측의 전문용어를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이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 여섯 단계를 거치는데 아래의 그림은 이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의 6단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은 자료의 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측의 교과서와 편수 자료의 어휘들을 추출한다. 주지하듯이 편수 자료는 다양한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교과 전문용어들의 표준이다. 따라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한 용어를 목록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삭제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교과서에서 용어를 추출하므로 중복되는 용어가 당연히 존재하며, 편수 자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정리된 표제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과서와 편수 자료에서 확보하지 못한 역사 전문용어를 추가하는 단계이다. 교과서와 편수 자료가 역사 교과의 모든 전문용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부족한 역사 전문용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감수 단계이다. 1차적으로는 본 연구진의 역사 분야 전문가가 해당 전문용어를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2차 감수를 실시한다. 네 번째 단계까지 완료되면 남측의 역사 전문용어 선정은 마무

리된다. 이 남측 목록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확인하는 과정이 다섯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측의 교과서와 참고 자료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면서 그 의미를 대조한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대응 용어로 확정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남측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정리하고 기타 부수적인 정보를 갖추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2.1. 자료 수집

전문용어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관된 자료에서 균질한 전문용어를 확보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확보된 전문용어들은 실제 통일 현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자료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수집한 자료는 남측과 북측의 역사 교과서이다. 남측의 교과서에서는 ‘천재교육’ 등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발간한 편수 자료도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 확보하였다. 편수 자료는 교과서에서 추출한 용어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통일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본 연구진에서 확보한 남측 자료 목록이다.

분류	교육 과정	자료명	출판사	출판 연도
교과서	중학교	역사①	천재교육 외 8종	2018
		역사②	천재교육 외 8종	2018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외 8종	2018
사전	초·중·고	편수 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	교육부	2017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참고 자료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2016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7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	국사편찬위원회	2002

<표 4> 역사 분야 남측 자료 목록

교과서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각각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이다. ‘천재교육’과 ‘지학사’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확보하고 그 외 7종의 교과서는 참고용으로 삼았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간된 편수 자료를 확보하여 표준적인 역사 전

문용어를 마련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다.

사전류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확보하였다. 특히 《우리말샘》의 경우, 웹에서 ‘자세히 찾기’ 기능으로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문용어들을 다운로드하여 ‘역사 분야’ 전문용어 엑셀 목록을 확보하였다. 총 33,000여 개의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를 확보하였으며, 전문가 감수를 통해 13,000여 개의 세계사 용어들은 제외하고 20,000여 개의 전문용어를 자료로 삼았다.

다음으로 주요 참조 자료로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2년에 제작한 것으로, 역사 영역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북측의 대응어를 확인하여 남북의 대응 용어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자료도 확보하였는데, 이 자료는 2007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술용어를 비교한 연구이다. 남측의 역사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역사 용어가 실려 있다. 다음은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을 위한 북측의 자료 목록이다.

분류	교육과정	자료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교과서	초급중학교1	조선력사	차영남, 박영철	교육도서출판사 북녘대문	2013
	초급중학교2	조선력사	김광수, 최영희		2014
	고급중학교1	력사	오영철, 정성철		2013
	고급중학교2	력사	한영찬, 리금옥		2014
	고급중학교3	력사	저자불명		2015
	초급중학교1	조선력사교수참고서	차영남, 강국모		2013
	고급중학교1	력사교수참고서	오영철, 정성철		2014
	중학교1	조선력사	리인형		2008
	중학교4	조선력사	한영찬		2008
	중학교6	조선력사	저자불명		2008
	고등중학교1	조선력사	리인형		2002
	고등중학교2	조선력사	리태영		2002
	고등중학교3	조선력사	오영철		2002
	고등중학교4	조선력사	한영찬		2002
	고등중학교5	조선력사	제갈명		2002
고등중학교6	조선력사	리인형	2002		
事典	광명백과사전1_조선의 력사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백과사전출판사	2007	
辭典	조선말대사전(중보판)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2006	

<표 5> 역사 분야 북측 자료 목록

북측의 자료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과서이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측의 교과서는 시대를 달리하여 여러 교과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에서 위의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몇몇의 최신 자료는 발주처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의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전 시기의 자료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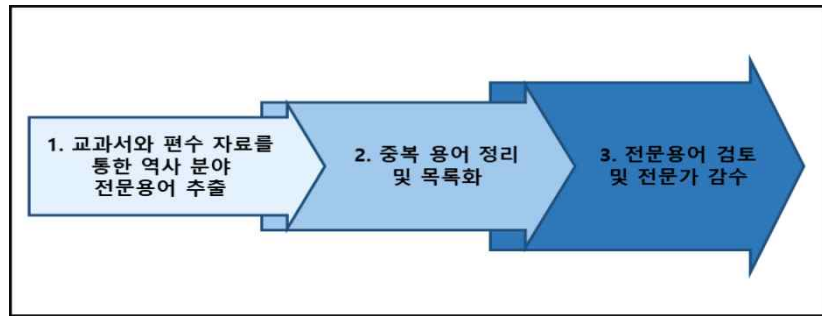
[그림 2] 북측의 최근 역사 교과서

북측의 사전들은 《조선말대사전》과 《광명백과사전》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진 규범 사전이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명백과사전》은 가장 최근 북측에서 만들어진 백과사전이다. 이 사전은 ‘북한역사, 정치, 법, 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를 전체 20권으로 나누어 2010년에 완간되었다.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총체로서 표준화된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큰 가치가 있다.

2.2. 남측 전문용어 추출

전문용어의 추출은 남측 전문용어 추출에서부터 출발한다. 남측의 역사 교과서와 편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용어를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주요

한 과제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에 실려 있는 색인(index) 어휘들을 중심으로 1차적인 용어 수집을 하였다. 색인 어휘는 세부 분야 별로 핵심 어휘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작년의 국어 분야 전문용어 추출에서는 교과서에 색인 어휘가 없었다. 반면에 올해 역사 교과서에는 색인 어휘가 충실하게 실려 있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색인 어휘들을 정리하여 목록화하였고, 이와 별개로 작년과 같이 일일이 교과서를 읽어가며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역사 분야의 색인 어휘에는 인명과 지명 같은 고유명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역사 분야의 용어로서 인명과 지명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매개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용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그 타당성을 보이고 있는 바, 역사 분야에서는 고유명을 역사 전문용어로 간주하였다.



[그림 3] 남측 전문용어 추출 및 선정 과정

역사 분야 남측 전문용어의 선정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기본 자료를 통한 전문용어 추출이다. 이 단계에서 본 연구진은 3,300여 개의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교과서를 본 연구진의 공동 연구원, 연구원, 보조 연구원이 직접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교과서를 2명 이상이 살펴봄으로써 전문용어 누락을 방지하였다. 2단계에서는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유의어들을 표준화하여 목록화하였다. 이때 편수 자료가 기준이 되었으며, 누락된 용어들은 편수 자료를 통해 추가되었다. 그 결과, 2,600여 개의 남측 전문용어를 목록화할 수 있었다. 3단계는 전문용어를 검토하고 감수하는 단계이다. 1차적으로 본 연구진의 역사 분야 전문가가 전문용어를 검토하였다. 그 후 외부의 전문가에게 목록화된 전문용어를 맡겨 2차 감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측 전문용어 2,614

개를 확정하였다.

2.3. 북측 대응용어 확인

이 절에서는 앞서 확인한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북측 용어는 북측의 교과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 《광명백과사전 1(조선력사)》, 《조선말대사전》,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등 어휘집과 사전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대응 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4] 대응 용어 확인에 활용된 참고 자료

북측의 교과서는 학제 개편이 단행된 이후의 교과서, 즉 2013년 이후의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북측의 경우에도 교과서 전문용어는 엄선된 용어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자료보다도 우선된다. 《광명백과사전》은 북측에서 발간한 가장 최근의 백과사전으로 역사 분야의 총론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 사실과 사건,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공인된 국가 기관인 ‘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것으로 그 안의 내용이 북측 역사관의 표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도 이 자료를 교과서와 더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대응 용어를 찾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북측의 대응용어를 확인하여 용어를 수록한 것이다. 본 연구진은 앞서 선정된 남측 용어를 이 책에서 모두 찾아보았는데, 남측 용어 2,614 개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 913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말대사전》은 북측의 대표

Ⅲ.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1. 남북 역사 분야 위계 기준 설정

이 III.1장에서는 남북 역사 분야의 위계 기준을 설정한다. 이에 앞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전문용어는 특수 주제 분야의 지식과 그 체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지식과 체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특수 맥락과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상황에서 남과 북의 전문용어 통합과 그 방안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남측만의 자료 조사와 방법으로 통합과 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전문용어학의 전문용어 형성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간 학계에서 다루어진 여러 기준과 조건들을 모아 9개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이 9개의 기준에 위계를 설정하고 정량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정립하였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위계 기준 설정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간 수정된 통합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끝으로 이 통합 알고리즘이 역사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1. 기존의 위계 기준

전문용어의 표준인 《ISO 704: 2009》에서는 용어 형성의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nsistency)’, ‘적절성(Appropriateness)’, ‘언어학적 경제성(Linguistic economy)’, ‘파생성 및 합성성(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모국어 선호성(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을 들고 있다.⁵⁾ 이 기준들은 전 세계에서 일반

5) 투명성은 용어가 최소한의 형태 부분으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간주된다. 일관성은 모든 주제 영역의 전문용어가 자의적이거나 무작위의 용어 집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개념 체계에 일치하는 통일된 용어 체계여야 한다. 적절한 용어가 언어 공동체 내에서 잘 알려져야 하고 확립된 의미의 체계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혼동을 일으키는 용어는 피해야 함을 말한다. 언어학적 경제성은 용어가 가능한 한 간결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간결성에 대한 요구는 종종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과 상충되는데, 용어에 포함된 특성의 수가 많을수록 용어의 투명성은 높아진다. 파생성 및 합성성은 용어 형성에 있어 생산적인 단위들의 사용이 우선시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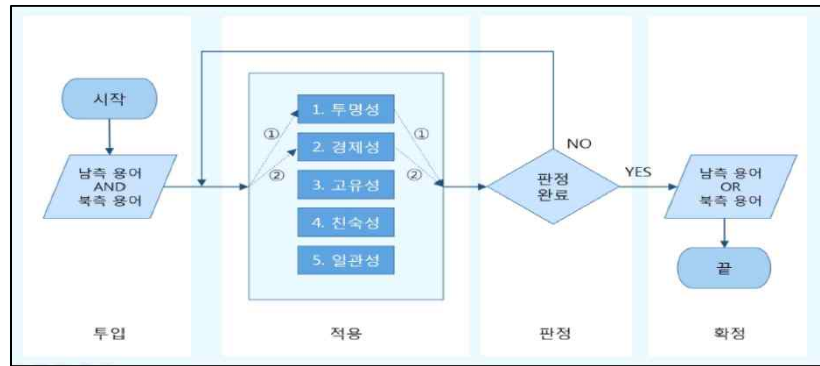
기관에서 발간한 규범 사전이다. 따라서 표준성을 가지며 북측의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에는 수많은 전문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특히 미시 구조에서 ‘다듬은 말’이라는 표지로 다수의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사전이 북측 용어에 대한 뜻풀이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전을 통해 용어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1》 또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남과 북의 학술 용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이를 표로 제시하고 있어 대응어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다만 활용된 자료들이 2000년대 초반의 자료로 현 시점과 1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조적인 자료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북측 대응어의 확인은 남측 전문용어 추출 때와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을 비롯한 역사 분야 전문가가 직접 북측의 교과서와 참조 자료를 확인하여 남측 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가려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2,049개의 남북 전문용어 쌍을 확보하였다. 남과 북의 형태가 같은 AA형은 1,502개 쌍이 있었으며, 맞춤법 등의 표기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Aa형은 184쌍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363쌍으로 확인되었다.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 형성의 원칙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통합의 근거로서 활용하였다. 즉 투명성과 적절성은 본 연구의 ‘투명성’으로 포괄하였고, 일관성과 경제성은 각각 ‘일관성’, ‘경제성’으로 수렴하였다. 언어학적 정확성은 ‘문법성’으로 바꾸었으며, 모국어 선호성은 ‘고유성’으로 치환하여 설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준 외에도 ‘친숙성’과 ‘국제성’, ‘윤리·미학적성’ 등의 기준들이 여러 논의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을 수용하여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친숙성은 언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성은 용어의 국제적 활용성을 고려한 기준이다. 그리고 윤리·미학적성은 전문용어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 언중의 문화 관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일관성’, ‘경제성’, ‘고유성’,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친숙성’, ‘국제성’, ‘일의성’ 등 총 9개의 통합 기준을 확립하였다. 첫째의 연구에서는 다음의 위계 기준으로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판정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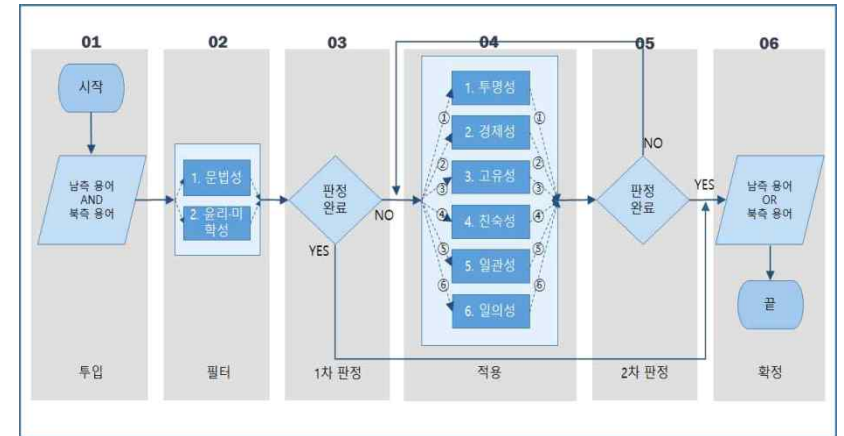


[그림 5] 2015년 1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야 한다는 기준이다. 언어학적 정확성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국어 선호성은 다른 언어에서 차용한 용어가 그 개별 국가(언어)에서 용인된 양식이라 할지라도 모국어 표현이 그 직접적 차용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 본 연구에서는 남측의 용어와 북측의 용어를 놓고 형태가 다른, 즉 AB 유형의 용어를 판정 대상으로 삼았다. 즉 남측의 용어와 북측의 용어를 두고 좀 더 표준적인 용어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통합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용어가 반드시 통합 용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적용을 하여 판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용어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의견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한 후에 언어학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통합 방법 및 가능성도 모색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투입-적용-판정-확정’의 단계를 거쳐 AB형의 전문용어를 통합한 바 있다. 그 위계 순서는 ‘(1)투명성 - (2)경제성 - (3)고유성 - (4)친숙성 - (5)일관성 - (6)일의성 - (7)국제성 - (8)문법성 - (9)윤리·미학적성’과 같다.⁷⁾ 그리고 이 과정에서 AB 유형의 용어들이 통합되었는데,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을 보고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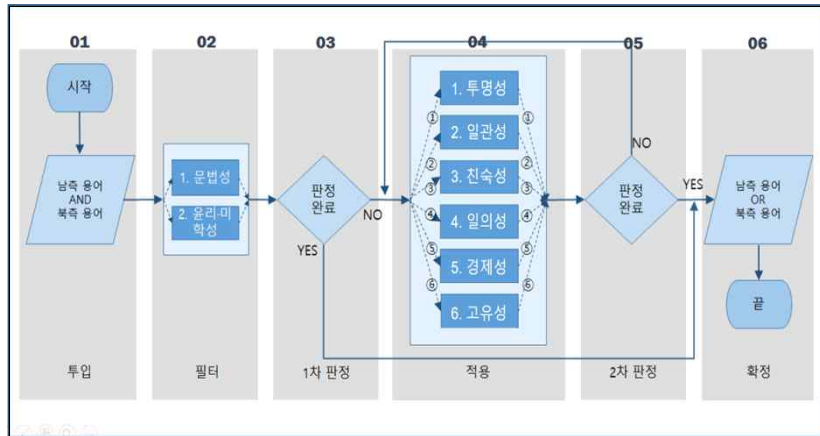


[그림 6] 2016년 2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위의 그림은 1차년도의 알고리즘을 변형한 2차년도의 알고리즘이다. 1차년도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서는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국제성’의 기준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2차년도에서는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을 필터 기준으로 묶고, 국제성은 제외하였다.

2차년도의 알고리즘은 ‘투입-필터-1차 판정-적용-2차 판정-확정’ 등의 여섯 단계를 거쳐 통합안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필터’ 단계와 ‘1차 판정’ 단계가 추가되었다.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 기준에 의해 걸러지는 전문용어는 많지 않지만, 이 두 기준은 용어로서의 적법성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필터 기준으로 삼아 전문용어로서 합당한지 판단한 것이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 여타의 기준 적용 없이 바로 판정된다.

7) 앞의 그림에서 ‘일의성, 국제성,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당시에 그림을 간략히 하려는 배경에서 이 기준들을 그림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들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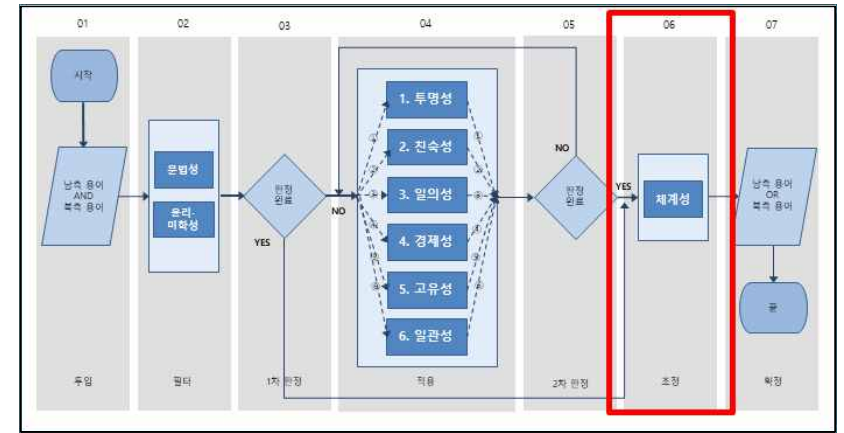


[그림 7] 2017년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3차년도의 알고리즘은 2차년도의 알고리즘과 구조상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적용’ 단계에서의 위계 기준의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그 위계 순서는 ‘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 순이다. 2차년도의 위계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과 ‘고유성’의 기준이 하순위로 내려갔다. 대신에 ‘일관성’과 ‘친숙성’의 기준이 부각되어 ‘투명성’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어 교과 분야의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위계 기준 조합이었다.

1.2. 역사 분야 위계 기준

다음의 그림은 역사 분야 통합 알고리즘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각 주제 분야는 그 분야의 특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의 위계 순서도 그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그림 8] 2018년 4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이번 연구에 적용된 역사 분야의 위계 기준은 ‘투명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일관성’의 순서를 가진다. 국어 교과 영역의 위계 기준과 비교했을 때, 2순위였던 일관성의 기준이 최하위로 내려간 것이 특징이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조정’ 단계의 ‘체계성’과 무관하지 않다.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 성과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즉 최종 선정된 결과로 나온 용어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법’ 분야의 용어 대응쌍 중 ‘청유형 종결어미(남)-추김의 맺음토(북)’와 ‘명령형 종결어미(남)-시킴의 맺음토(북)’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친숙성’에 의해 ‘청유형 종결어미’가 선택되었고, 후자는 ‘친숙성’은 동일하여 ‘경제성’에 따라 ‘시킴의 맺음토’가 선택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체계를 이루는 용어가 달리 선택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의 통합 알고리즘은 3차년도의 기준에 조정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 조정 기준은 통합된 전문용어들의 체계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5단계의 ‘2차 판정’ 이후 선정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체계성 기준을 통해 조정된 역사 전문용어의 예이다.

(1) 가. 강서고분(남) - 강서세무덤(북)

나. 고구려고분(남) - 고구려옛무덤(북)

다. 고구려고분군(남) - 고구려무덤떼(북)

라. 각저총(남) - 씨름무덤(북), 금관총(남) - 금관무덤(북), 금령총(남) - 방

울무덤(복), 무용총(남) - 출무덤(복) 등

위의 (1가)는 ‘강서고분’과 ‘강서세무덤’의 용어 쌍을 보여 준다. 이 두 용어 중 친숙성의 판정의 우세로 ‘강서세무덤’이 선택된다. 한편 (1나)에서는 ‘고구려고분’과 ‘고구려옛무덤’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 경제성 판정으로 남측의 ‘고구려고분’이 선택된다. 그리고 (1다)의 예에서는 모든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우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1가, 나, 다)만을 고려했을 때, 남측의 용어든 북측의 용어든 체계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느 하나가 일괄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 단계의 ‘체계성’ 기준이 적용된다. (1라)의 예들을 보면, ‘총(塚)’과 ‘무덤’이 일괄적인 대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대응쌍에서 모두 ‘무덤’이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분’과 ‘총’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용어들임을 고려하여, (1가, 나, 다)의 용어들을 체계성 있게 ‘무덤’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1가)는 그대로 ‘강서세무덤’, (1나)는 고구려옛무덤, (1다)은 ‘고구려무덤떼’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표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위계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필터 기준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위계 기준	1. 투명성
	2. 친숙성
	3. 일의성
	4. 경제성
	5. 고유성
	6. 일관성
조정 기준	체계성

<표 6> 역사 분야 용어 판정의 순서

2.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

2.1. 역사 분야 전문용어 판정의 적용과 실제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판정에는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 조정 기준을 적용한

다. 필터 기준은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을 일컫는다. 이 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 더 이상 다른 위계 기준의 판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용어를 목록에서 배제한다.

위계 기준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이다. 위계 기준의 적용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단계에서든 판정이 완료되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조정 기준은 체계성이다. 체계성은 전체 목록에서 통일된 형식의 용어를 판정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 필터 기준, 위계 기준, 조정 기준을 적용한 실체는 다음과 같다.

2.1.1. 문법성의 적용

문법성은 위계 기준, 조정 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는 필터 기준 중 하나이다. 이는 전문용어의 구성 요소의 배열 방식이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성은 어문 규정과도 연관되는데, 현재 남북의 어문 규정은 같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측 또는 북측 각각의 어문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선택하지 않는다.

역사 분야 전문용어 중 문법성에 위배되는 사례로는 (2)의 한 항목이 있다. ‘뽕족’은 부사어로 서술어와 결합되어야 하는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남북 모두 문법성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판정은 ‘0’이다.

(2) 뽕족끝찍개(남) = 뽕족끝씩기(북)

남북 모두 문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들은 이미 교과서에 수록되어 어느 정도 공인된 성격의 전문용어들이므로 대체로 이 필터 기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2.1.2. 윤리·미학적성의 적용

윤리·미학적성 역시 다른 위계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필터 기준이다. 문법성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서 판정이 될 경우, 그 용어는 위계 기준과 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택된다.

윤리·미학적성은 비속한 것을 연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아름다운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

한 것으로 판정한다.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 윤리·미학성에 위배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다른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교과서에 수록된 전문용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필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

2.1.3. 투명성의 적용

투명성의 기준이란, 개념이 용어에 보다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반영되었는지 판별하는 것이다.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의 판정은 의미를 적게 담고 있거나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것, 범주 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보다 그 범주 내에서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용어를 줄여서 쓴 경우보다 그 본말이 투명성이 우세하다고 처리한다.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그 뜻을 추론할 수 있다면 투명성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대부분 투명성이 동일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투명성 동일은 투명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북 전문용어의 각 요소가 서로 동의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풀어쓴 형태 대 생략된 형태의 대응어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역사 분야의 판정 대상이 되는 AB형 용어 총 363개 중에서 투명성 동일 판정은 279개로 전체의 76.8%에 해당한다.

- (3) 가. 돌화살촉(남) = 돌활촉(북)
- 나. 빙하기(남) = 얼음강시기(북)
- 다. 사도세자(남) = 장헌세자(북)

2.1.4. 친숙성의 적용

친숙성은 투명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친숙성이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문용어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문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친숙성을 판정한다. 즉, 기초 어휘 목록에 포함된 구성 성분을 가진 용어를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기초 어휘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 기초 사전》을 참고한다.⁸⁾ 친숙성을 기준으로 판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8) 《한국어 기초 사전》 웹사이트: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1) 남측어 우세:

- (4) 가. 팔조법(남) > 범금팔조(북)
- 나. 조개더미(남) > 조개무지(북)

※ (4가)는 남측어에 기초어휘 ‘법’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4나)는 남측어의 ‘조개’, ‘더미’와 북측어의 ‘조개’가 기초 어휘이지만 용어 내 기초 어휘 구성 비율이 남측어가 더 높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친숙성 동일:

- (5) 가. 중앙집권체제(남) = 중앙통치체제(북) [‘중앙’, ‘집권’, ‘통치’, ‘체제’가 기초 어휘]
- 나. 목지국(남) = 월지국(북), 삼국지연의(남) = 삼국연의(북)

※ (5가)는 용어 내 기초 어휘 구성 비율이 남측어와 북측어가 같으므로 동일하다.
(5나)는 남측어와 북측어에 기초 어휘가 없으므로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 (6) 가. 세형동검(남) < 좁은놋단검(북)
- 나. 나당동맹(남) < 라당비밀협약(북)

※ (6가)는 북측어에 기초 어휘 ‘좁다’, ‘놋’, ‘단검’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6나)는 남측어의 ‘동맹’, 북측어에 ‘비밀’, ‘협약’이 기초 어휘이지만 용어 내 기초 어휘 구성 비율이 북측어가 더 높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기초 어휘를 기준으로 하는 친숙성의 기준은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시간만큼 남과 북의 언어 변화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숙성의 기준은 향후 남북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살피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

2.1.5. 일의성의 적용

일의성은 투명성, 친숙성 다음의 기준이다. 일의성 기준이란,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

의 언어 형식이 하나의 의미만 가진 것이 여러 의미를 가진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동음어·다의어가 없는 전문용어를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둘 다 동음어나 다의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동일로 처리한다.

남측어의 일의성 판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고, 북측어의 일의성 판정은 《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남북의 판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남북측 통일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되면,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남측어 우세:

(7) 환곡제도(남) > 환정(북)

※ ‘환정’은 북측에서 ‘조선 시대에, 삼정 가운데 환곡에 관한 일을 이르던 말’의 뜻도 있지만, ‘입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하던 사람이 정권을 임금에게 돌려주던 일’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북측보다 남측이 일의성에서 우세하다고 본다. 따라서 ‘환곡제도’(남)를 선택하여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일의성 동일:

(8) 금관총(남) = 금관무덤(북)

※ ‘금관총’과 ‘금관무덤’은 남측과 북측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신라 때의 고분. 고대 신라 특유의 양식인 돌무지무덤으로, 순금의 금관을 비롯하여 황금의 과대(鈔帶)와 요폐(腰佩), 귀고리, 팔찌 따위가 발굴되었다’라는 뜻으로 동음어나 다의어 없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두 용어는 일의성이 동일하다고 판정한다.

3) 북측어 우세:

(9) 토기(남) < 질그릇(북)

※ ‘토기’는 남측에서 ‘원시 시대에 쓰던,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서의 뜻도 있지만, ‘진흙으로 만들어 유약을 바르지 아니하고 구운 그릇’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의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그릇’(북)을 선택하여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6. 경제성의 적용

경제성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경제성의 기준이란, 음절 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리말 자모음이나 아라비아 숫자, 외국 문자 등으로 표기된 것들은 한국어로 읽었을 때의 표기로 대체하여 판단한다.

1음절은 다른 모든 음절 수에 대해 가장 우세하다고 판단한다. 경제성의 기준에서 1음절 용어는 가장 간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음절과 3음절은 음절 수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우리말 단어의 음절 수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억 부담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음절 이상의 전문용어는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용어의 간결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8음절 이상의 전문용어는 판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 남측어 우세:

(10) 가. 수(남) > 수나라(북)

나. 화천동유적(남) > 화천동동굴유적(북)

※ (10가)는 남측어가 1음절, 북측어가 3음절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10나)는 남측어가 5음절, 북측어가 7음절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경제성 동일:

(11) 가. 송악(남) = 송악군(북)

나. 서울진공작전(남) = 서울공격계획(북)

다. 관측사석조미륵보살입상(남) = 론산관측사돌부처(북)

※ (11가)는 남측어가 2음절, 북측어가 3음절로 두 용어가 2-3음절로 동일하다.
(11나)는 남측어가 6음절, 북측어가 6음절로 두 용어 모두 6음절로 동일하다.
(11다)는 남측어가 11음절, 북측어가 8음절로 두 용어 모두 8음절 이상으로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12) 가. 강동육주(남) < 룩성(북)

나. 갑신정변십사개조정강(남) < 개화과정부정강(북)

- ※ (12가)는 남측어가 4음절, 북측어가 2음절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2나)는 남측어가 10음절, 북측어가 7음절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7. 고유성의 적용

고유성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고유성의 기준이란, 외래어·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보다 고유어나 한자어로 된 전문용어를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용어에서 외래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이면, 고유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한자어와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복합어일 경우는 고유성의 비중에 따라서 판단한다.⁹⁾

1) 남측어 우세:

- (13) 가. 대마도(남) > 쓰시마(북)
- 나. 자유민권운동(남) > 부르쵸아민권운동(북)
- 다. 제정러시아(남) > 짜리로씨야(북)

- ※ (13가)는 남측어가 한자어, 북측어가 외래어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3나)는 남측어가 한자어, 북측어가 한자어+외래어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3다)는 남측어가 한자어+외래어, 북측어가 외래어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고유성 동일:

- (14) 가. 토기(남) = 질그릇(북)
- 나. 화분형토기(남) = 화분형그릇(북)

- ※ (14가)는 남측어가 한자어, 북측어가 고유어로 동일하다.
- (14나)는 남측어가 한자어, 북측어가 고유어+한자어로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 (15) 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남) < 두발걸음원숭이(북)
- 나. 러시아혁명(남) < 사회주의시월혁명(북)

9) 복합어의 표기는 구성 순서와 상관없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순으로 적는다.

다. 오페르트도굴사건(남) < 남연군무덤도굴사건(북)

- ※ (15가)는 남측어가 외래어, 북측어가 고유어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5나)는 남측어가 한자어+외래어, 북측어가 한자어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5다)는 남측어가 한자어+외래어, 북측어가 고유어+한자어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8. 일관성의 적용

일관성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일관성 기준이란,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된 용어가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 동일한 형식을 갖춘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역사 분야 전문용어 목록에서 1개 이상의 대응쌍 항목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처럼 일관성은 개념 체계의 동위성, 상하위성 등의 위계를 잘 반영하였는지에 따라 판별된다. 일관성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남측어 우세:

- (16) 가. 환도산성(남) > 환도성(북)
- 나. 사원전(남) > 절간토지(북)
- 다. 국제무역(남) > 대외상업(북)

- ※ (16가)에서 ‘환도산성(남측 예: 대성산성)’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6나)에서 ‘사원전(남측 예: 민전)’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6다)에서 ‘국제무역(남측 예: 민간무역)’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일관성 동일 :

- (17) 가. 장군총(남) = 장군무덤(북)
- 나. 육의전(남) = 룩주비전(북)

- ※ (17가)에서 ‘장군총’은 남측 예에서 ‘부부총’이 발견되고, ‘장군무덤’은 북측 예에서 ‘부부무덤’이 발견되므로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동일하다고

본다.

(17나)에서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관성이 동
일한 것으로 본다.

3) 북측어 우세:

(18) 가. 태봉(남) < 태봉국(북)

나. 의종(남) < 의종왕(북)

다. 분청사기(남) < 분장자기(북)

※ (18가)에서 ‘태봉국(남측 예: 발해국)’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18나)에서 ‘의종왕(남측 예: 의자왕)’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18다)에서 ‘분장자기(남측 예: 고려청자기)’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9. 체계성의 적용

체계성은 조정 기준이다. 조정 기준은 2018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판정
기준에 새로이 추가된 기준으로 통합된 전문용어들의 체계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
관성 등의 6단계 위계 기준을 통해 판정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용어
들 간의 체계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법성,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
관성 등의 위계 기준이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형태가 다른 용어
(AB형)를 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조정 기준인 체계성은 형태가 같은 것(AA형),
형태가 같은 것(Aa형), 형태가 다른 것(AB형) 등 역사 분야 전문용어 2,049개 모
두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체계성의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 가. 강서고분(남) - 강서세무덤(북)

나. 고구려고분(남) - 고구려옛무덤(북)

다. 고구려고분군(남) - 고구려무덤떼(북)

라. 각저총(남) - 씨름무덤(북), 금관총(남) - 금관무덤(북), 금령총(남) - 금
방울무덤(북) 등

※ (19가)에서 ‘강서고분’과 ‘강서세무덤’은 친숙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강서세무덤’

이 선택된다. (19나)에서 ‘고구려고분’과 ‘고구려옛무덤’은 경제성의 기준으로 남측
어인 ‘고구려고분’이 선택된다. (19다)에서 ‘고구려고분군’과 ‘고구려무덤떼’는 문법
성과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 등
의 위계 기준 모두를 적용하였으나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아 동일하게 판정되었
다. 이런 경우 어느 쪽으로든 일괄적인 판정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정 기준
인 ‘체계성’을 적용한다. (19라)의 예를 통해 남측어는 ‘총(塚)’으로 북측어는 ‘무덤’
으로 대응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가), (19나), (19다), (19라)
의 예를 통해 남측어보다 북측어에서 ‘무덤’으로 체계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덤’으로 통일하여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0) 가. 간접떼기(남) - 대고떼기(북)

나. 모루떼기(남) - 때려깨기(북)

※ (20가)에서 ‘간접떼기’와 ‘대고떼기’는 투명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대고떼기’가 선
택된다. (20나)에서 ‘모루떼기’와 ‘때려깨기’ 역시 투명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때
려깨기’가 선택된다. 그러나, (20가)와 (20나)의 예에서 남북 대부분이 ‘-떼기’로 나
타나고 ‘때려깨기’ 하나만이 ‘-깨기’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종 판정은 체계성을 고
려하여 남측어인 ‘모루떼기’를 선택한다.

위에서 다룬 문법성,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
성, 고유성, 일관성의 위계 기준, 체계성의 조정 기준 등을 남북 역사 분야 전문
용어에 적용하여 판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준	용어	판정 근거	남	북
			고구려 고분	고구려 옛무덤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 지 않음.	0	
	윤리· 미학성	비숙성 없음, 미학성 동일	0	
위계 기준	투명성	‘고구려고분’과 ‘고구려옛무덤’ 의 투명성 무승부	0	
	친숙성	용어 내 기초 어휘 비율이 남 측어와(고구려·고분) 북측어 (고구려·옛·무덤)가 동일	0	
	일의성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 어가 아니므로 판정 불가	0	
	경제성	5음절 대 6음절로 남측어 우세	>	

	고유성	‘한자어’ 대 ‘고유어+한자어’로 동일	0
	일관성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음. (남측례: 강서고분, 북측례: 강서세무덤)	0
조정 기준	체계성		<
	최종 판정		북

<표 7> ‘고구려고분’과 ‘고구려옛무덤’ 용어 판정표

<표 7>의 판정표에서 남측의 ‘고구려고분’과 북측의 ‘고구려옛무덤’은 대응을 이룬다. 필터 기준인 문법성의 기준에서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동일하다. 윤리·미학성의 기준에서 비속성 없음, 미학성 면에서 동일하다. 다음으로 위계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보면, 먼저 투명성의 기준에서 동일하다. 친숙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의 ‘고구려’, ‘고분’, 북측어의 ‘고구려’, ‘옛’, ‘무덤’이 모두 기초 어휘에 해당되고, 이들의 용어 내 구성 비율 역시 동일하므로 친숙성의 기준에서 동일하다. 일의성의 기준에서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 경제성의 기준에서 남측어가 5음절, 북측어가 6음절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된다. 고유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인 ‘고구려고분’은 한자어, 북측어인 ‘고구려옛무덤’은 고유어+한자어로 동일하다. 일관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에 ‘강서고분’이, 북측어에 ‘강서세무덤’이 있으므로 동일하다. 따라서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만으로는 남측어인 ‘고구려무덤’이 통합 용어로 판정된다. 그러나, 북측의 ‘강서세무덤’, ‘고구려무덤떼’, ‘씨름무덤’, ‘금관무덤’, ‘금방울무덤’, ‘춤무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측 용어는 모두 ‘무덤’을 사용하여 남측보다 체계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종 판정은 북측어인 ‘고구려옛무덤’을 선택한다.

기준	용어	판정 근거	남	북
			모루떼기	때려깨기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0	
	윤리·미학성	비속성 없음, 미학성 동일	0	

위계 기준	투명성	‘모루떼기’보다 ‘때려깨기’가 그 뜻(재료를 때려서 깨는 일)을 유추해 내기 유리하므로 북측어 우세	<
	친숙성	용어 내 기초 어휘 비율이 북측어가(때리다·깨다) 남측어(떼다)보다 높으므로 북측어 우세	<
	일의성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 불가	0
	경제성	두 용어 모두 4음절로 동일	0
	고유성	‘고유어’로 동일	0
	일관성	‘모루떼기’(남측례: 간접떼기)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	>
조정 기준	체계성		>
	최종 판정		남

<표 8> ‘모루떼기’와 ‘때려깨기’ 용어 판정표

<표 8>의 판정표에서 남측의 ‘모루떼기’와 북측의 ‘때려깨기’는 대응을 이룬다. 필터 기준인 문법성의 기준에서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동일하다. 윤리·미학성의 기준에서 비속성 없음, 미학성 면에서도 동일하다. 투명성의 기준에서 북측어인 ‘때려깨기’가 그 뜻(재료를 때려서 깨는 일)을 유추해 내기 유리하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된다. 친숙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의 ‘떼다’, 북측어의 ‘때리다’, ‘깨다’가 기초 어휘지만 비율상 북측어가 더 높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된다. 일의성의 기준에서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 경제성의 기준에서 두 용어 모두 4음절로 동일하다. 고유성의 기준에서 두 용어 모두 고유어로 동일하다. 일관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에 ‘간접떼기’가 있으므로 남측어가 우세하다. 따라서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만으로는 북측어인 ‘때려깨기’가 통합 용어로 판정된다. 그러나, 남측의 ‘간접떼기’, ‘모루떼기’, 북측의 ‘대고떼기’ 등에서 남북 모두 ‘-떼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떼기’로 통일하여 최종 판정은 남측어인 ‘모루떼기’를 선택한다.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체계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판정된 용어만을 살펴 보았을 때 용어들 간의 형식적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거나, 선택된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들 간의 빈도 차가 크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체계성’이라는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판정의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용어들을 확인하고 전체 목록과의 체계를 검토하였다.

체계성 면에서 논의가 되었던 용어로는 ‘고분-무덤, 토기-그릇, 격전-싸움, 쟁의-투쟁, 깨기-떼기, 세나라-삼국, 과-제’ 등이 있었다. 논의된 용어들을 전문가들에게 감수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분’은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판정된 용어 중에서 ‘고분, 고구려고분, 고구려고분군/고구려무덤, 고분벽화/무덤벽화’ 등 총 4개에서 나타났고, ‘무덤’은 ‘금관무덤, 돌관무덤, 장군무덤, 널무덤, 돌덧널무덤, 돌무지무덤/돌각담무덤, 독무덤, 돌무덤, 벽돌무덤, 관산리제일호고인돌무덤, 씨름무덤, 천마무덤, 부부무덤, 강상무덤, 강서세무덤, 금방울무덤, 움무덤, 순장무덤, 다카마쓰무덤/다카마쓰무덤, 흙무덤, 두방무덤/두칸무덤, 세칸무덤, 외방무덤/외칸무덤, 황남리제구십팔호무덤, 벽화무덤, 남연군무덤도굴사건, 고분벽화/무덤벽화, 고구려고분군/고구려무덤’ 등 32개의 용어에 나타났다. 빈도상으로 보면, ‘무덤’으로 체계를 이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역사 전문가 자문에서도 ‘고분’과 ‘무덤’은 역사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교과서에서도 ‘무덤’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으므로 ‘무덤’으로 통일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토기’는 ‘토기, 구멍무늬토기,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덧무늬토기/덧무늬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등 5개의 용어에서 나타났고, ‘그릇’은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새김무늬그릇, 덧무늬토기/덧무늬그릇, 민그릇, 팽이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등 6개의 용어에서 나타났다. 빈도상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격전’은 ‘관산성싸움/관산성격전’에서만 쓰이고 있었고, ‘싸움’은 ‘로랑바다싸움, 명랑바다싸움, 한산도앞바다싸움, 천문령전투/천문령싸움, 왕검성전투/왕검성싸움,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구주성싸움, 살수싸움, 당파싸움, 관산성싸움/관산성격전’ 등 10개의 용어에서 나타났다. 역사 분야에서 대부분 ‘싸움’으로 통일하여 쓰고 있었다. 역사 전문가 자문에서도 ‘격전’이 ‘격한 싸움’이라는 뜻으로 용어에 큰 차이가 없으며, 학습 면이나 빈도상 ‘싸움’으로 통일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의’는 ‘소작쟁의, 압태도소작쟁의/압태도농민투쟁’ 등 2개 용어에서 나타났고, ‘투쟁’은 ‘압태도소작쟁의/압태도농민투쟁, 의병운동/의병투쟁, 의병전쟁/의병투쟁, 의병항쟁/의병투쟁, 독립만세시위투쟁, 경상도농민군의투쟁, 삼별초군의투쟁, 무장투쟁, 항일무장투쟁/반일무장항쟁’ 등 9개의 용어에서 나타났다. 빈도상으로 보면 ‘투쟁’을 더 많이 사용하고는 있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소작쟁의’는 당시 용어로 ‘지주’에 대한 반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주로 쓰이며, ‘소작쟁의’가 ‘농민 투쟁’으로 확대된 것(국가 차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념이 달라 보이므로, 두 용어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깨기’는 ‘때려깨기’에서만 나타났고, ‘떼기’는 ‘대고떼기, 눌러떼기’에서 나타났다. ‘눌러떼기’처럼 남북측이 동일하게 쓰는 어휘에 ‘떼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 결과 ‘떼기’로 통일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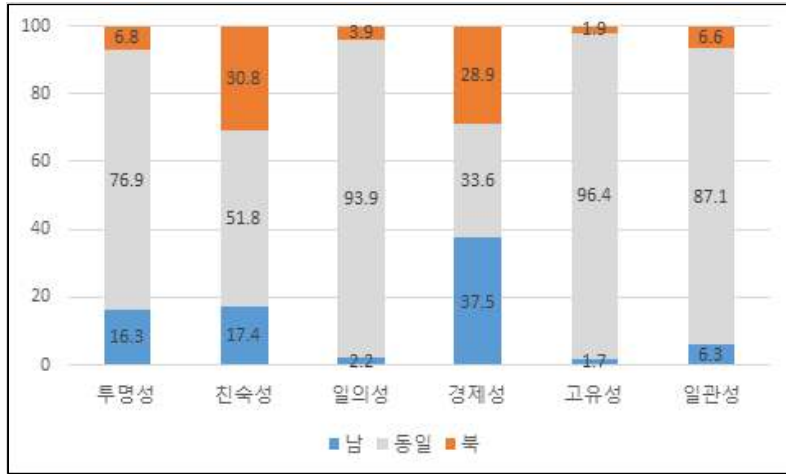
‘세나라’는 ‘세나라, 세나라시기’에서 사용되었고, ‘삼국’은 ‘삼국간섭, 삼국/세나라, 삼국시대/세나라시기, 삼국통일, 후삼국, 후삼국시대/후삼국시기, 삼국의통일/후삼국통일, 삼국간섭’ 등에서 사용되었다. ‘후삼국’의 경우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후세나라’라고 쓸 수는 없으므로 ‘삼국’으로 통일하여도 무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과’는 ‘독서삼품과/독서삼품제, 전시과’ 등에서 나타났고, ‘-제’는 ‘결부제/결부법, 과거제, 봉건제, 토지신고제, 벽골제, 관수관급제, 금납제, 설점수세제, 봉수제, 군전제, 군주제, 임헌군주제/립헌군주제, 헌병경찰제, 역참제, 일부일처제, 호포제, 골품제, 독서삼품과/독서삼품제, 상피제, 군현제, 지주전호제’ 등에서 나타났다. 역사 전문가 자문 결과, ‘독서삼품과’는 당시 용어이며 다른 용어들이 ‘제도’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면 ‘독서삼품제’로 통일하여도 역사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시과’가 남북측이 동일하게 쓰는 AA형 용어이고 ‘제도’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전시제’라는 용어는 안 쓰이므로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2. 통합 기준의 계량적 특징

이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기준들의 위계에 따른 계량적 특징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은 2차년도와 위계 기준의 순서가 달라졌다. ‘적용’ 단계에서 위계 순서는 ‘투명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일관성’ 순이다. 앞선 연구의 위계와 비교했을 때, ‘일관성’의 기준이 하순위로 내려갔다. 전문용어의 특성상 용어 간의 일관된 형식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종 단계에 ‘체계성’을 추가하였다. 형식적인 통일성과 함께 전체 용어들 간의 체계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판정하도록 배치하였다.

이 통합 과정을 통해 역사 분야의 AB형 전문용어 363개를 판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위계 기준 판정 결과

위의 그림은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어느 기준에서 우세했는지 보여 주는 그림이다.¹⁰⁾ 예를 들어, ‘투명성’의 기준에서는 총 363개의 AB형 전문용어 중에서 남측 용어는 59개가 우세하여 16.3%를 차지하고, 북측 용어는 25개가 우세하여 6.8%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 판정은 279개로 76.9%를 차지한다.

위 그림에 나타난 역사 분야 위계 기준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동일’ 판정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제성’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에서 모두 ‘동일’ 판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의 기준이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친숙성의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17.4%이며, 북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은 30.8%이다. 북측 전문용어는 고유어가 용어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친숙성의 기준은 언중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고유어 조어 단위가 많이 활용될수록 친숙성이 높아진다고 볼

10) 위 그림의 구체적인 수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
남측	0	0	59	63	8	136	6	23
동일	363	363	279	188	341	122	350	316
북측	0	0	25	112	14	105	7	24

수 있다.

일의성의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2.2%이며, 북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3.9%이다. 동일 판정은 9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특성상 하나의 언어 형식이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 전문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 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일 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제성의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37.5%의 비율로 우세하다. 그리고 북측 용어는 28.9%의 비율로 우세하다. 남측 전문용어는 한자어를 활용한 용어 형성이 활발하므로, 고유어 조어 단위를 활용한 북측 전문용어보다 용어의 길이가 짧다. 따라서 남측의 전문용어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유성의 기준은 큰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진이 설정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고유성의 기준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동일한 위계를 가진다. 그리고 외래어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낮은 위계를 가진다. 즉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위계를 가지는 것이다.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전반적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적다.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지 않는 본 기준에 따라 큰 변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일관성의 기준은 남측에서 6.3%를 차지하였고, 북측에서 6.6%를 차지하였다. 동일 판정은 87.1%로 나타났다. 남북 모두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 대체로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3.1. 어문 규정에 따른 문제

이성우·신중진(2017)에서는 어문 규범으로 인해 이질성이 발생한 수학 및 자연 과학의 전문용어를 정리한 바 있다. 그 결과 두음 법칙과 외래어 표기법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두음 법칙과 외래어 표기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 궤를 달리 한다.

(21) 가. 노동계급 - 로동계급

나. 유득공 - 류득공, 유관순 - 류관순, 유형원 - 류형원

다. 시모노세키조약 - 시모노세끼조약, 요동성 - 료동성

라. 영의정 - 령의정, 이조전랑 - 리조전랑

(21)은 어문 규범으로 인해 이질성이 발생한 전문용어를 크게 넷으로 갈라 제시한 것이다. (21가)는 일반 명사로 분류되는 것이고, (21나)는 인명, (21다)는 지명, (21라)는 관직명이다.

신중진 외(2015, 2016, 2017)에서는 (21)과 같은 용어에 대해 두음 법칙 문제가 남북 학자들에 의해 합의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방식이 (21)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21나)와 같은 인명은 두음 법칙보다는 성씨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성씨만으로 국한되지도 않는다. (21다)를 이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이전에 수행한 수학 및 자연과학/체육/국어 용어들에서는 인명의 비율이 적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 용어의 경우, 인명의 비율이 높아 (21나)와 같은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 정리한 자료에서 두음 법칙에 의한 이질적인 용어는 총 149개였다. 그리고 그중 인명으로 분류되는 것은 총 50개였다. 즉, 약 33%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전문용어의 정비 및 통합 과정에서는 (21나)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어문 규범의 틀보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아울러 (21나)와 같은 문제는 비단 국내 인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22) 가. 가쓰라 - 가쯔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 도요도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 이토 히로부미, 칭기즈칸 - 칭기즈한, 마르크스 - 맑스, 테프트 - 타프트
 나. 난징 - 남경, 텐진 - 천진, 헤이허 - 흑하
 다. 러시아 - 로씨야, 인도 - 인디아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명의 문제는 국내 인물로만 한정되지 않고, 외국의 인물에도 해당한다. (22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22나)는 지명이고, (22다)는 나라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학 및 자연과학/국어 분야의 전문용어 통합 과정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고유한 특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21)은 한글맞춤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22)는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위와 같은 인명/지명/나라명을 통일하기 위한 어문 규정 정비 작업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 모두 남측과 북측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인명/지명/나라명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실행 조

사가 함께 요구될 것이다.

인명/지명/나라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어들의 차이 또한 역사 분야 전문용어가 보유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 (23) 가. 귀주대첩(龜州-) - 구주대첩, 귀주성(龜州-) - 구주성, 금입택(-宅) - 금입택
 나. 육살(褥薩) - 녹살(傳薩)

(23)은 한자음의 차이로 인해 이질성이 발생한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수학 및 자연과학/체육/국어 분야의 용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포착되지 않았다.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처음으로 목격되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자음의 복수성과 관련되는 예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이는 남측과 북측이 서로 사용하는 한자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연구팀의 조사로는 ‘龜’와 ‘宅’에서만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¹¹⁾ 하지만 연구 범위의 폭을 보다 확대하면, 여러 한자음을 남측과 북측이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격히 논의하면, 한자음의 문제는 어문 규정의 범위 바깥에 놓인다. 하지만 남측과 북측에서 쓰는 한자음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어문 규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본고에서는 (23가)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정리한다.

(23나)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자음만 고려했을 때에는 두음 법칙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차차표기의 과정에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했느냐의 차이로 판정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르면, ‘육살(褥薩)’- ‘녹살(傳薩)’을 유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교과서 용어 외에 여러 학술 용어들, 학술 업적에서 사용한 역사 용어를 조사하면, 이러한 차이는 꽤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수행한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이전에 수행한 전문 분야에서 발견되지 않던 현상들이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만 발견되었다. 기존에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던 인명과 지명, 나라명의 문제, 그리고 한자음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개 문제가 되는 용어들은 고유 명사에 해당하였다. 고유 명사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문 규범의 범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는 남측

11) 주지하듯이 ‘龜’와 ‘宅’은 남측에서도 복수 한자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예이다.

과 북측이 사용하는 고유 명사로 인해 발생하는 이질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한다.

2.3.2. 문화제명 및 사건명과 관련된 문제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통합 과정에서는 인명 혹은 지명과 관련된 어문 규정 문제 혹은 복수 한자음의 처리 문제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대개 이러한 예들은 대개 고유 명사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고유 명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문화제명이다.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문화제명은 다음과 같이 갈라진다.

- (24) 가.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 경천사대리석다층탑,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 - 경천사 대리석 다층탑, 고양 행주산성 - 행주산성, 공주 공산성 - 공산성
- 나. 보통문 - 평양보통문
- 다. 관측사 석조 미륵보살 - 룡산 관측사 돌부처, 서울 숭례문 - 서울 남대문, 정릉사 팔각칠층석탑 - 정릉사 팔각칠층탑, 서산마애삼존불상 - 서산마애삼존불
- 라.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 원각사탑,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 - 황룡사 구층탑, 서울 흥인지문 - 동대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과 북측이 사용하는 문화제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24가)는 문화제명에 해당 지역의 이름이 부여되는지로 인해 남과 북이 서로 구별되는 경우이다. 대개 남측 용어에 지역명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남측과 북측 모두 표준화된 것은 아니다. 북측의 경우에만 지역명이 부여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4나).

(24다)는 동일한 문화제를 남과 북이 다른 이름을 붙인 경우이다. 이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측은 석조 미륵보살과 북측의 돌부처이다. 불교의 사상을 따르면, 미륵보살과 부처가 같은 개념일지 의심스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제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검토가 함께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숭례문과 남대문의 용어 표준화 문제이다. 남측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숭례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남대문이라는 용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다. 따라서 이 두 용어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는 없으나, 이에 따른 학문적인 뒷받침은 필요할 것이다.

(24다)에서는 팔각칠층석탑 - 팔각칠층탑, 삼존불상 - 삼존불과 같은 용어 대립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용어 또한 어떠한 용어를 택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함께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이다. 이는 (24라)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 원각사탑’,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 - 황룡사 구층탑’과 같은 용어들과 일관되게 용어가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같은 관점에서 (24다)에 있는 ‘숭례문 - 남대문’ 또한 (24라) ‘흥인지문 - 동대문’와 관련지어 용어가 선택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남측과 북측이 각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25) 가. 고부 농민 봉기 - 고부 농민 폭동, 임술 농민 봉기 - 임술 농민 폭동
- 나. 만적의 난 - 만적의 폭동, 망이 망소이의 난 - 망이의 농민 폭동, 황건적의 난 - 황건 농민 폭동, 임오군란 - 임오 군인 폭동
- 다. 왕규의 난 - 왕규의 반란, 이시애의 난 - 리시애의 반란, 이자겸의 난 - 리자겸의 반란, 묘청의 난 - 묘청의 정변

(25)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25가)는 남측은 농민 봉기, 북측은 농민 폭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경우만을 정리한 것이다. (25가)만을 고려하면, 남측과 북측의 용어가 일목요연하게 대응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25나)와 같이 ‘난’이 ‘폭동’에 대응하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25다)의 경우처럼 ‘난’이 ‘반란’에 대응하기도 하고, ‘정변’에 대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역사학계에서 ‘봉기’, ‘난’, ‘폭동’, ‘정변’등을 의미적으로 엄밀히 구분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이들 용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이다.

- (26) 가. 봉기: 「명사」 벌 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남.
- 나. 난: 난리 02
- 다. 난리: 「명사」 「1」 전쟁이나 병란(兵亂). ≒난02(亂). 「2」 분쟁, 재해 따위로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상태. 「3」 작은 소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라. 폭동: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 마. 정변: 「명사」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기’, ‘난’, ‘폭동’, ‘정변’ 등은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¹²⁾ 특히 실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의 경우, (31)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이념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남북 역사학자들의 합의에 의해 ‘봉기’, ‘난’, ‘폭동’, ‘정변’ 등의 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용어의 대응이 발견되기도 한다. (5)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용어들이다.

(27) 가. 몽골침략 - 고려몽골전쟁, 임진왜란 - 임진조국전쟁

나. 군대 해산 - 군대 강제 해산, 헤이그 특사 - 헤그밀사, 헤이그 특사 사건 - 헤그밀사사건

먼저 (27가)는 전쟁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남측의 용어가 침략이나 ‘난’ 정도로 과소평가한다면, 북측의 용어는 같은 사건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역사학계의 논의가 뒤따라야겠다. 하지만 (27가)에 제시된 사건들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북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용어가 해당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

한편 (27나)는 일제 침략기와 연관되는 용어들이다. 먼저 ‘군대 해산 - 군대 강제 해산’의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특사 - 밀사’의 경우도 그러한데, 사관의 차이로 인한 어휘의 이질성으로 판단된다. 고종이 헤이그에 사신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관점의 차이를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문화제명과 사건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문화제명의 경우, 명칭에 대한 작명 방식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명은 명칭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부분과 역사적인 개념을 명확히 할 부분, 그리고 남측과 북측의 역사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용어의 차이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용어들에는 언어학적인 통합 방식은 물론, 학계 차원의 중재와 통일안이 제시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3.3. 어휘의 공백과 관련된 문제들

마지막으로 남측과 북측이 서로 대응하는 용어가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이를 어휘의 공백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어휘의 공백이 발생한 배경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사상적 배경에 의한 공백이고, 둘째는 역사적인

12) 조사한 용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쿠테타’와 같은 용어도 (26)과 유사한 어휘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과 관련된 공백이고, 셋째는 우연히 발생한 공백이다. 먼저 사상적 배경에 의한 공백부터 살펴본다.

(28) 가. 구미위원회, 포츠담 회담, 카이로회담, 알타회담

나. 자유민권운동, 자유진영

다. 한양평당설, 평양중심설

라. 노장사상, 도참사상, 무속신앙, 정도신앙, 청담사상, 토속신앙,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돈오점수, 화엄, 균여, 김대건, 명동성당, 나철

마. 대한민국, 대한민국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헌장, 대한민국정부수립, 대한민국제헌헌법

바.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제헌국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동맹,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철원칙

(28)에 제시된 용어들은 남측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즉, 북측 자료에서는 대응 용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상적 배경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28가)는 미국 관련된 용어들이다. 남측에서는 미국이 개입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북측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포착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북측에서는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사상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8나)는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관련된 운동을 제시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북측의 사회주의와는 배격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용어들도 북측 역사 교과서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28다)는 남측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에 대한 관점이 내포된 용어들이다. 주지하듯이, 평양은 북측의 수도이다. 이로 인해 서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나 사상들은 북측 역사 교과서에서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평양중심설이 빠져있는 이유는 북측에서는 이미 평양이 중심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8라)는 종교와 관련된 용어들로 북측에서는 종교적인 역사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28라)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측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용어들도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28마)에서도 확인된다. (28마)의 용어들은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관련된 용어들이는데, 북측 교과서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사 용어들도 교과서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제시하기 어려우나, (28바)와 같은 용어들은 김일

성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다.

한편, 역사관에 의해 남측 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9) 가. 신라금, 신라도, 나정, 내물왕, 단양신라작성비, 신라촌락문서, 신문왕, 대왕암

나. 남부여, 무왕, 미륵사지석탑 견훤산성

다. 의열단, 한인에국단, 윤봉길, 나석주

라. 맥아더, 서울수복, 1·4후퇴

마. 새마을운동, 경제개발오개년계획

바. 오일팔 민주화 운동 - 광주 인민 봉기, 사일구 혁명 - 사일구 인민 봉기

(29)는 남측과 북측의 역사관에 의해 용어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남측과 북측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남측은 신라 중심의 사관을, 북측은 고구려 중심의 사관을 따른다.¹³⁾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북측 교과서에서는 신라와 백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측에는 (29가-나)에 대응하는 용어가 없다.

독립 과정에 대해서도 남측과 북측은 역사관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측과 달리, 북측은 김일성의 진두지휘에 의해 독립을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외의 독립단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는데, (29다)는 이와 관련된다. 특히 김원봉의 의열단, 김구의 한인에국단의 경우, 북측에서도 서술하기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봉과 김구라는 인물의 역사적 지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단체에 소속되었던 윤봉길이나 나석주 같은 인물이라든가 그들의 독립 투쟁도 기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9라)는 6.25 한국 전쟁에서의 용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지하듯이, 북측에서는 6.25 전쟁을 승전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맥아더’와 같은 인물은 북측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에 심대한 타격을 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서울수복과 같은 용어도 북측 교과서에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1.4후퇴는 북측에게는 승전의 기록이다. 따라

13) 단적인 예로 남측은 통일 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측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후기 신라를 제시한다. 신라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남측의 통일 신라 시대를 북측에서는 남북국 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해를 신라와 같은 지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 교과서에서도 제시될 만한데 실려 있지는 않다. 단순한 어휘 공백인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악하기 어렵다.

(29마)는 남측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어휘 공백이다. 북측에서는 이들 용어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주지하듯이, ‘새마을운동’, ‘경제개발오개년계획’은 남측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용어이다. 따라서 북측에서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달리 (29바)는 남측 사건에 대한 북측의 대응어를 찾을 수 있다. 북측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들만 선택해서 대응 용어들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의 체제 선전 및 남측을 비하하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 용어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북측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다음의 용어는 남측 교과서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30) 가. 대동강문화, 구려

나. 동명왕릉개건기념비, 고국원왕릉, 성기장군, 뉴우, 연개소문의 정변, 봉황성, 봉건정부

(30)은 둘로 나뉜다. (30가)는 남측 교과서 및 백과사전 등 여러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용어이고, (30나)는 남측의 교과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백과사전 및 그 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있는 용어들이다.

(30가)는 고대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어휘 공백이다. 먼저 북측에서는 대동강 문화라하여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측에서는 세계 4대 문명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휘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구려’ 또한 역사관의 차이로 인한 어휘 공백이다. 북측에서는 ‘고구려’ 이전의 국가로 ‘구려’라는 나라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고구려’라는 나라의 어원 또한 ‘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측에서는 고구려를 부여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어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대 역사관의 차이로 생각된다.

(30나)는 북측 교과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남측 교과서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용어들이다. 다만 남측의 백과사전 자료에서는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30가)와 궤를 달리한다. 이러한 (30나)의 용어들은 고구려의 용어들이다. 백과사전 자료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측의 역사학계에서도 이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남측의 역사관이 신라 중심의 사관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다음은 왜 공백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31) 가. 칠사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나. 고연무, 걸사비우, 최연위, 최승로
다. 서경길지설, 서경천도운동, 서경천도
라. 국가총동원법, 국외독립운동, 근로정신대, 거문도사건, 경성제국대학, 동학농민군, 진주만 공격
마. 중국공산당, 조러수호통상조약
바. 경인선

(31)은 남측에는 용어가 있으나, 북측에는 위에 대응하는 용어가 없는 경우이다. 위의 용어들은 북측에서도 중요한 용어일 것으로 추정되나, 교과서나 광명백과사전에서는 왜 찾을 수 없는지 다소 의아하다.

(31가)의 ‘칠사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는 남측과 북측이 서로 합의한 첫 번째 사건이다. 따라서 남측뿐만 아니라 북측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북측의 광명 백과사전이나 역사교과서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용어를 찾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정치적인 여러 고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도 북측 교과서 및 백과사전에서 찾기 어렵다.

(31나)는 고구려, 발해, 고려의 주요 인물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측은 고구려 중심 사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31나)의 인물들은 북측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와 백과사전에서는 (31나)에 대응하는 인물들을 찾기 어렵다. 우연한 공백인지 어떠한 의도에 기인한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31다)는 평양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평양은 북측의 수도로서 혁명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이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요구될 것이다. (31다)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므로, 북측 교과서에 충분히 실릴 만한 중요한 용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북측의 역사 교과서나 광명 백과사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북측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적 흐름을 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및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관련된 부정적인 용어들 또한 교과서나 백과사전에 제시될 만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31라)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특히 (31라)는 미국과 일본의 악행 혹은 전쟁사를 다룬 용어이므로 한번쯤 제시될 만하나,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우연한 공백인지 어떠한 의도가 개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하기 어렵다.

(31마)는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주지하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측의 대표적인 우방이다. 따라서 이들과 교류한 역사 혹은 이들 나라의 공산당은 북측에도 중요한 역사이다. 북측의 체제 선전 및 외교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31마)와 같은 용어는 북측 교과서와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없다. 역시 이유는 찾기 어렵다. (31바) 또한 우연한 공백으로 추정된다. (31바)를 굳이 북측이 교과서나 백과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어휘의 공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사상 및 역사관에 의해 어휘 공백이 발생하였다. 남측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발견되었고, 북측에서도 이에 대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 측의 역사학자 및 철학자들의 합의된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앞으로 역사학계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1.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1.1. 어종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남북 교류와 통일을 앞두고 각 교육 분야의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원활한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 전문용어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 학문 연구와 교육 풍토의 차이, 외부 세계와의 학술 교류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통합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으로 직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 장의 연구는 남측과 북측의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체육 분야 및 국어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에 이어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위계 기준을 통한 방법 외에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첫 번째로 파악해야 할 문제가 바로 어휘의 기원에 따른 차이이다. 따라서 어종에 대한 분석은 토대이고 필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남측 사회에서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의사소통 차원에서 북측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 연구된 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 대두된 문제이다. 다행히 외래어의 남용은 국사 분야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차이 외에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역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출현 빈도가 90%이상인 한자어이다. 전문용어는 그 특징이 간결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한자어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조건 고유어를 통합의 방향으로 내세우기보다 이미 남북 양측이 모두 익숙한 한자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을 위한 제언한다.

남북의 언어는 모태가 동일하지만 분단의 시간을 지나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달하여 왔다. 대부분의 역사 전문용어는 예로부터 남북이 함께 사용했던 용어가 모습을 조금씩 변화하였거나 그대로 사용되어 온 것들이다. 특히 인명, 유적, 유물 등의 전문용어가 그러한데 예를 들면 ‘거칠부-거칠부, 경복궁-경복궁, 개심사-개심사, 이순신-리순신, 임원경제지-림원경제지, 진시황-진시황제, 태왕릉-태왕무덤’ 등이 그것이다.¹⁴⁾ 그러나 남측과 북측의 사상,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

라 일부 역사 전문용어, 특히 사건이나 사태에 관련된 용어들이 남북 간에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수한 대응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구려부흥운동-고구려고국회복투쟁, 고부농민봉기-고부농민폭동, 러시아혁명-사회주의시월혁명’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은 수학, 자연과학, 체육이나 국어 분야 전문용어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역사 분야에서는 남측과 북측 모두 한자어의 관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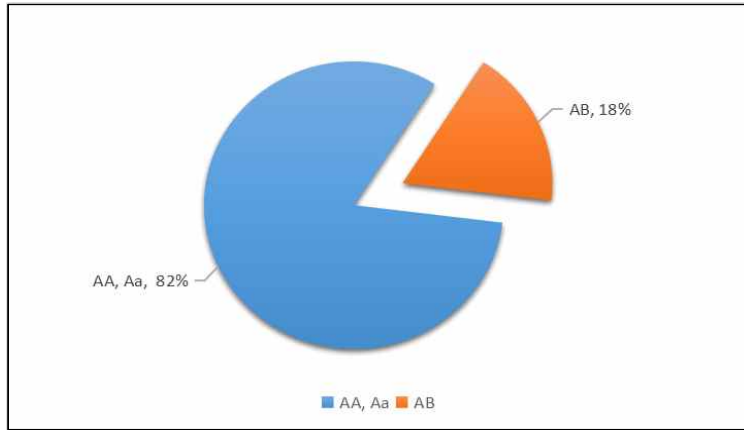
1.2. 남북 역사 전문용어 유형

본고는 남측 용어와 북측 대응 용어를 형태 동일 여부에 따라 크게 형태가 같은 것과 형태가 다른 것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형태가 같은 것은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과 어문 규범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누되 각각 AA형, Aa형으로 표기하고 형태가 다른 것은 AB형으로 표기하였다. 그 결과 형태가 같은 것은 1686개, 형태가 다른 것은 363개로 집계되었다.

유형		수량(개)	예시	
			남	북
형태가 같은 것	AA형	1502	토막집	토막집
	Aa형	184	가쓰라	가쓰라
형태가 다른 것	AB형	363	무용총	춤무덤

<표 9>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유형

14) 본고에서 모든 예시는 ‘남측 용어-북측 대응어’의 순서로 제시한다.



[그림 10]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유형 분포

위의 그림을 통해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82%, 형태가 다른 경우가 18%로 남측과 북측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분야 전문용어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¹⁵⁾ 이는 남북이 분단 이전에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한자어에 많이 의지했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고유명사가 많고 고유명사들은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북 언어의 이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남측 언어든 북측 언어든 모두 국어의 한 갈래에 속하며 근본적으로 동질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3. 어종 분석의 실제

1.3.1. 형태가 같은 것(AA형)

1) 어종 분석

15) 신중진 외(2015)에서 분석한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전문용어 중에 형태가 같은 것은 73%이고, 신중진 외(2016)에서 분석한 체육 분야 기초 전문용어 중에 형태가 같은 것은 20%이며, 신중진 외(2017)에서 분석한 국어 분야 전문용어 중에 형태가 같은 것은 문법 분야에서 48%, 문학 분야에서 77%, 기능교육 분야에서 88%이다.

AA형은 1502개로 전체 목록의 73%인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AA형 용어의 어종 유형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5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한자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목록의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유어

가락바퀴, 널무덤, 덧널, 돌보습, 밀개, 뿔쟁이, 움집, 관소리, 막새 등(41개)

(2) 한자어

가내수공업, 격몽요결, 고려자기, 노비안, 대명률, 문신, 승례문, 화엄 등(1430개)

(3) 외래어

몽골, 월슨, 카프, 유엔(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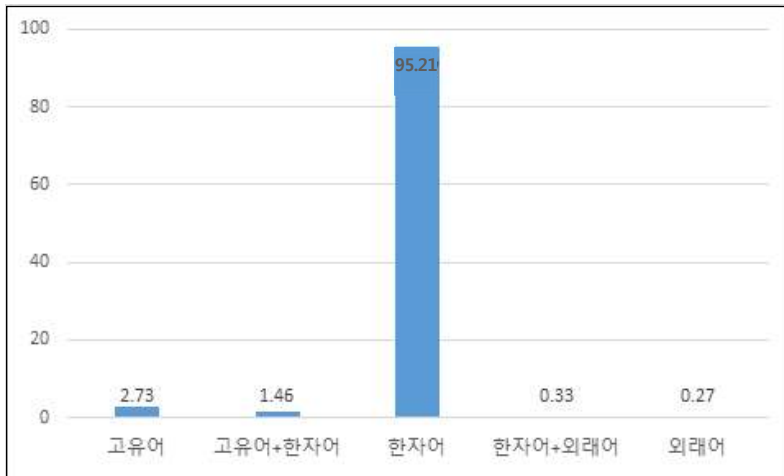
(4) 고유어+한자어

가지창, 간석기, 거란족, 돌창, 반움집, 비단길, 에밀레종, 청동거울, 황산법 등(22개)

(5) 한자어+외래어

간다라미술, 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 야요이문화, 유엔군, 포츠담선언(5개)

AA형 역사 전문용어 중에서 '한자어'가 1430개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남북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한자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유어'의 경우 대부분의 용어가 '가로날도끼, 길쌈, 돌낫, 시루, 자귀, 막새' 등 전통 농기구나 도구와 관련된 것이 많다. '외래어'의 경우 다른 전문 분야보다 출현 빈도가 훨씬 낮은 편인데, 지명이나 인명, 조직명 등의 명칭에서만 나타났다. '한자어+외래어'도 '외래어'처럼 명칭에 관한 역사 용어들이 대부분이다. AA형 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AA형 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AA형은 '한자어'가 1430개, 95.21%로 다른 어종에 비해 출현 빈도가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는 각각 41개, 2.73%와 22개, 1.46%, '외래어'와 '한자어+외래어'가 각각 4개, 0.27%와 5개, 0.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측과 북측이 역사 분야에서 많은 한자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유형 분석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 AA형 용어가 많은 것은 남북이 모두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역사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한자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AA형 용어를 유형화하여 한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⁶⁾

AA형 용어 중에 인명을 나타내는 용어는 230개로 16%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229개가 한자어이고 1개가 외래어이다.¹⁷⁾ 예시는 다음과 같다.

16) AA형 역사 전문용어는 인명, 유물, 유적, 개념, 제도, 사건 등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한자어와 관련이 깊은 인명, 유물, 유적 등의 명칭과 관련된 고유명사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7) 외래어의 경우 오직 '윌슨' 하나의 용례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 (6) 가. 단군, 건원, 대조영, 박혁거세, 주몽, 해모수, 왕건
 나. 경순왕, 경애왕, 시조왕, 동천왕, 법흥왕, 보장왕, 성덕왕, 우왕
 다. 고종, 단종, 당태종, 세종, 선종, 순종, 원종, 인종, 철종, 현종
 라. 수양제, 한무제
 마. 김시습, 서경덕, 설총, 정몽주, 정약용, 주시경, 최우, 한백겸, 박은식
 바. 거칠부, 계백, 소배암, 연개소문, 윤달, 을지문덕
 사. 담징, 도선, 도침, 묘청, 원측, 원효, 의상, 일연, 혜자, 혜초, 복신

(6가-라)는 모두 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다. (6가)는 '성+이름(박혁거세)' 또는 '이름(주몽)'으로 각 시기의 시조를 지칭하였다. (6나)는 'x왕'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6다)는 'x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6라)는 'x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 분야에서 왕을 지칭하는 인명 표기법은 다양하다. 시조왕의 경우 그 표기법이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고구려의 시조를 '주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을 붙여 '고주몽'이라고도 하며, '동명왕'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아울러 AB형에도 인명이 나타났는데, 남측과 북측의 대응 유형은 더구나 불규칙적이었다. 예를 '유리왕-유리니사금', '광개토대왕-광개토왕', '김수로왕-김수로', '의종-의종왕', '진시황-진시황제' 등이 그러하다.

(6마)는 학자, 운동가, 사상가, 정치가 등의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6바)는 각 시기의 장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6마)와 같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6사)는 승려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보통 속명보다 법명(法名), 법호(法號), 도호(道號)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명사의 표기법도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복신'을 흔히 '귀실복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역사학계에서 용어 정비를 위해 파악해 두어야 할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AA형 용어 중에 유물을 나타내는 용어가 225개로 15%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193개가 한자어이고 24개가 고유어이며 8개가 고유어+한자어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유어(돌날)나 고유어+한자어(간석기)는 대부분이 농기구나 도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한자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 가. 격몽요결, 노걸대, 훈몽자회, 오주연문장전사고, 훈민정음
 나. 경국대전, 고려대장경, 고려도경, 동경대전, 대명률, 도덕경
 다. 삼국사기, 고려실록, 국조보감, 동국통감
 라. 구운몽, 금오신화, 열하일기, 을지문덕전, 허생전, 홍길동전
 마. 균여전, 삼대목, 악학궤범, 관동별곡
 바. 구급방,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색경, 농가집성, 농상집요

- 사. 사신도, 성확십도, 삼강행실도, 금당벽화, 진경산수화, 곤여만국전도, 대동여지도, 동국지도, 아방강역고
- 아. 독립신문, 대한협회월보, 대한매일신보, 대한협회회보, 동아일보, 제국신문, 조선일보, 한성순보, 황성신문
- 자. 갑골문자, 갑인자, 금속활자, 자격루, 청화백자, 은병, 측우기
- 차.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다보탑, 석가여래상, 석굴암, 적화비

(7가-사)는 모두 서적과 관련된 용어이다. (7가)는 한자나 한글을 배우기 위한 학습서이고, (7나)는 법전, 도경에 관한 서적이며, (7다)는 역사, 실록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7라)는 소설류이고, (7마)는 향가, 가요, 가사 등의 기록이다. (7바)는 의서, 약방, 농서이고, (7사)는 그림, 지도와 관련된 것들이며, (7아)는 근대에 나타난 신문들의 명칭이다. 이처럼 서적이거나 그림, 지도, 신문 등 기록형 유물명은 대부분이 한자어로 표기되었으며 남북 양측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7자)는 고대 발명과 관련된 용어이고, (7차)는 석상, 비석 등과 같은 문화재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문화재 명칭은 남측과 북측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남측은 ‘나전칠기’로 표기하고 북측은 ‘자개박이칠공예’로, 남측은 ‘경주황룡사구층목탑’로 표기하고 북측은 ‘황룡사구층탑’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은 향후에 기준과 방향에 따라 통합되어야 할 용어들이다.

AA형 중에 유적을 나타내는 용어도 적지 않았다. 이중 한자어가 64개이고 고유어가 1개이며 고유어+한자어가 3개이다.¹⁸⁾ 한자어 위주로 예시를 살펴본다.

- (8) 가. 개모성, 남한산성, 몽촌토성, 왕검성, 정족산성, 평양성
- 나. 굴포리유적, 궁산유적, 남경유적
- 다. 경복궁, 대화궁, 안학궁, 창덕궁
- 라. 개심사, 광범사, 금산사, 미륵사, 원각사, 월정사, 정릉사
- 마. 공민왕릉,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왕릉, 정혜공주묘

(8가)는 ‘x성’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적 명칭이다. (8나)는 ‘지명+유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적 명칭이다. (8다)는 ‘x궁’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8라)는 사찰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모두 ‘x사’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AB형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측은 ‘x’에 대한 설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18) 고유어로 ‘거푸집’이 있고, 고유어+한자어로 결합된 용어는 ‘반움집, 벽화무덤, 순장무덤’ 등이 있다.

제시하여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북측과 차이를 보인다(공주공산성-공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북의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통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마)는 무덤을 나타내는 용어로 ‘x릉’, ‘x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능(陵)’은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뜻하고 ‘묘(墓)’는 ‘피’와 동일하되 사람의 무덤을 뜻한다. AB형에서도 무덤을 나타내는 용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x총’, ‘x고분’의 패턴을 갖기도 한다.

이 밖에 제도, 사건이나 사태와 관련된 용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역참제, 관수관급제, 상피제’ 등은 제도와 관련된 용어이고, ‘갑신정변, 문맹퇴치운동, 병자호란, 신해혁명’ 등은 사건, 사태와 관련된 용어이다. 이런 용어들도 대부분은 한자어로 구성되었으나 고유어(귀양), 고유어+한자어(강조의정변), 외래어+고유어(포츠담선언)로 구성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제도, 사건, 사태와 관련된 용어는 남측과 북측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것은 사회,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처럼 AA형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남북측이 동일하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AA형뿐만 아니라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현상이며, 한자어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특히 한자어로 된 고유명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1.3.2. 형태가 같은 것(Aa형)

남측과 북측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어문 규범으로 인해 표기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이 바로 Aa형이다. Aa형은 184개로 전체 역사 전문용어의 8.9%를 차지한다. Aa형은 남북 모두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 5가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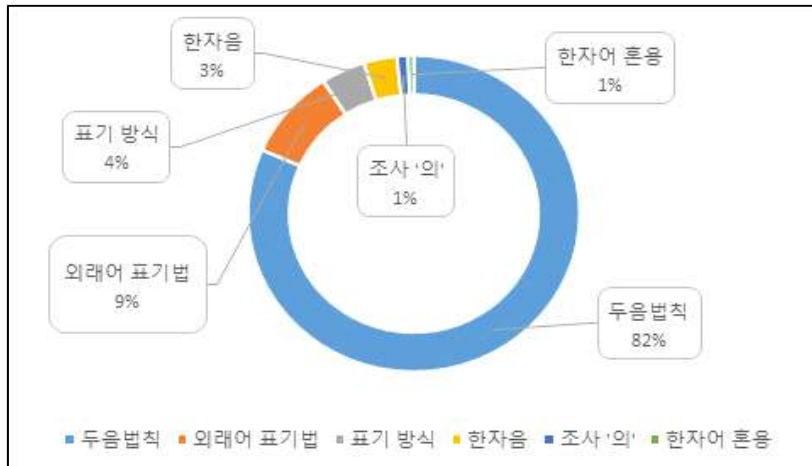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남	북	남	북
Aa형	한자어	160	162	고령가야	고녕가야
	외래어	10	12	가쓰라	가쯔라
	고유어+한자어	2	2	입격정	림격정
	고유어+외래어	1	1	다카마쓰무덤	다카마쯔무덤
	한자어+외래어	11	7	러일전쟁	로일전쟁

<표 10>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Aa형의 어종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면, 남북 모두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AA형과 같은 결과이다. Aa형은 특히 ‘두음 법칙’으로 인해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음 법칙’에 관한 남북 어문 규정이 통일되기만 한다면 바로 용어 통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외래어’의 출현 빈도는 남북이 각각 10개, 12개이고, ‘한자어+외래어’가 각각 9개, 5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 외래어 표기법이 상이한 데서 기인한다. ‘고유어+한자어’나 ‘고유어+외래어’의 수량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순수한 고유어 유형은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남북 고유어는 어문 규범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2) 유형 분석

남북 Aa형 역사 전문용어는 두음 법칙 적용 유무,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표기 방법의 차이, 한자어 발음의 차이, 조사 ‘의’의 사용 여부, 한자어 혼용의 6가지 차이로 나타났다. 유형별 출현 빈도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12] Aa형 용어의 유형

위의 그래프를 통해 Aa형 남북 역사 전문용어는 대부분이 두음 법칙 적용 유무에 의해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차적으로 두음 법칙 적용 유무,

외래어 표기법 차이, 표기 방법 차이, 한자어 발음 차이, 조사 ‘의’의 사용 여부, 한자어 혼용으로 나타났다.

(1)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오직 남측 용어에만 해당된다. 두음 법칙의 차이로 인한 Aa형은 총 150개이다. 이는 Aa형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두음 법칙은 오직 한자를 포함하는 어휘에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ㄹ 두음 법칙’과 ‘ㄴ 두음 법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ㄹ 두음 법칙’

‘ㄹ 두음 법칙’ 적용 유무에 의한 Aa형은 139개이다. 이것은 다시 ‘ㅇ↔ㄹ’의 대응과 ‘ㄴ↔ㄹ’의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¹⁹⁾ 목록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ㅇ↔ㄹ’ 대응 유형

국제연맹-국제련맹, 상경용천부-상경룡천부, 안용복-안룡복, 양계-량계, 양만-량만, 영선사-령선사, 예송-례송, 요동성전투-료동성전투, 유인석-류인석, 육가야-륙가야, 이괄의난-리괄의난, 이규보-리규보, 임격정-림격정 등(112개)

② ‘ㄴ↔ㄹ’ 대응 유형

금난전-금란전, 나선정벌-라선정벌, 낙랑-락랑, 난전-란전, 냉전-랭전, 노동계급-로동계급, 나당연합군-라당연합군, 녹읍-록읍 등(27개)

‘ㄹ 두음 법칙’은 초성 ‘ㄹ’을 발음하지 않거나 ‘ㄴ’으로 발음하는 현상이다. 두음 법칙에 의해 대응되는 남북 전문용어는 대부분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ㄹ’을 발음하지 않는 유형, 즉 ‘ㅇ↔ㄹ’ 대응 유형이 11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인명을 표기하는 용어가 47개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이규보-리규보’, ‘유인석-류인석’, ‘안용복-안룡복’ 등이 있다. 초성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유형, 즉 ‘ㄴ↔ㄹ’ 대응 유형은 26개로 나타났다.

19) 목록 중에 ‘ㄴ↔ㄹ’과 ‘ㅇ↔ㄹ’ 두 가지 유형이 중복하여 나타나는 용어 ‘나당연합군-라당연합군’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직 1개의 예에 불과하므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ㄴ↔ㄹ’ 대응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나) ‘ㄴ 두음 법칙’

‘ㄴ 두음 법칙’ 적용 유무에 의해 남북이 구별되는 Aa형은 11개이다. 용어 목록은 아래와 같다.

- (9) 구여성-구녀성, 신여성-신녀성, 여성운동-녀성운동, 여성-녀성, 여진-녀진, 여진정벌-녀진정벌, 여진족-녀진족, 연분구등법-년분구등법, 연호-년호, 이사금-니사금, 진성여왕-진성녀왕(11개)

‘ㄴ 두음 법칙’도 오직 남측 용어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북측에서는 한자의 원래 발음을 사용한다. 위의 용어 목록에서 ‘ㄴ 두음 법칙’은 ‘女(여)’, ‘年(연)’, ‘尼(이)’ 3개의 한자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주로 ‘女’의 용례가 대부분이다. ‘尼’의 경우 보통 어두에 사용하지 않지만 ‘이사금’은 ‘신라 때 왕의 칭호의 하나’를 뜻하는 ‘ㄴ’이 초성에 오는 흔하지 않은 예이다.

(2)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인한 Aa형 전문용어는 17개이다. 이는 순수한 외래어나 외래어를 포함하는 혼종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종별로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외래어

가쓰라-가쓰라, 다루가치-다로가치,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도미히데요시, 러시아-로씨야,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 칭기즈칸-칭기스한, 태프트-타프트, 도쿠가와이에야스-도꾸가와, 하얼빈-할빈(9개)

(11) 한자어+외래어

기성불단-기성뿔단, 러일전쟁-로일전쟁, 마르크스·레닌주의-맑스레닌주의, 미쓰야협정-미쯔야협정, 아스카문화-아스까문화(5개)

(12) 고유어+외래어

다카마쓰무덤-다까마쯔무덤(1개)

남북 외래어 표기법은 일본어, 영어, 몽골어, 중국어 등 여러 가지 외국어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남측이 평음이나 격음을 많이 사용하는 대신 북측은 경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남측은 외래어의 발음을 길게 풀

어서 적는 편이지만 북측은 받침으로 축약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다루가치-다로가치’, ‘러시아-로씨야’, ‘태프트-타프트’ 등의 용어에서처럼 모음의 선택에서도 남북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3) 어휘 표기

여기서 말하는 표기 방법 차이는 어종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동일한 전문용어를 남측이 외래어로 표기하고 북측이 한자어로 표기한다든지, 북측이 외래어로 표기하고 남측이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법의 차이로 인한 Aa형 남북 전문용어는 8개로 나타났다. 대응 어종별로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13) 한자어+외래어↔한자어

메이지유신(Meiji[明治]維新)-명치유신, 난징조약(Nanjing[南京]條約)-남경조약, 텐진조약(Tianjin[天津]條約)-천진조약, 헤이하사변(Heihel[黑河]事變)-흑사사변, 운요호(Unyo[雲揚]號)-운양호, 운요호사건(Unyo[雲揚]號事件)-운양호사건(6개)

(14) 한자어↔외래어

인도-인디아, 독일-도이칠란드(2개)

(13)은 동일한 역사 용어를 남측이 외래어(영어나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적는 외래어)를 사용한 반면에 북측은 한자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나타난 차이이다. 이와 반대로 (14)는 ‘인도’나 ‘독일’과 같은 나라를 지칭할 때 남측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북측은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한자어 발음

앞서 논의된 남북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는 결국 외국어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발음 차이를 말한다. 이는 한자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남북은 동일한 한자어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남북 역사 전문용어가 한자어 발음 차이에 의해 대응되는 예는 6개이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5) 귀주대첩(龜州大捷)-구주대첩, 귀주성(貴州省)-구주성, 금입택(金入宅)-금입택, 고령가야(古寧伽倻)-고녕가야, 무령왕(武寧王)-무녕왕, 무령왕릉(武

寧王陵)-무녕왕릉(6개)

목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은 ‘龜’, ‘貴’, ‘宅’, ‘寧’ 등 한자어의 발음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龜’는 남측에서 ‘거북 귀, 땅 이름 구, 터질 균’ 3가지 발음이 병존하나 ‘龜州大捷’에서 ‘龜’는 남측은 ‘귀’로, 북측은 ‘구’로 발음한다. ‘貴’는 ‘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남측에서는 오직 ‘귀’로 발음하는데, 북측에서는 ‘귀’로도 발음되고 ‘구’로도 발음된다.²⁰⁾ ‘宅’은 남측에서는 ‘집 택, 댁 댁, 터질 탁’ 3가지 발음이 있지만 ‘金入宅’에서는 남측은 ‘택’으로, 북측은 ‘댁’으로 발음한다. ‘寧’도 남측에서 ‘령, 영, 녕’ 3가지 발음이 존재하는데 보편적으로 초성에 올 경우 두음 법칙에 의해 ‘영’으로 발음되고, 지명에 사용될 때 ‘령’으로 발음되며, ‘편안함’을 나타낼 때 ‘녕’으로 발음된다. ‘古寧伽倻’나 ‘武寧王’에서 남측은 ‘령’으로, 북측은 ‘녕’으로 발음한다.

(5) 조사 ‘의’의 사용

이는 관형격 조사 ‘의’를 삽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즉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역사 전문용어 중에 오직 조사 ‘의’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16) 후삼국의 통일-후삼국통일, 진흥왕순수비-진흥왕의 순수비

‘후삼국의 통일-후삼국통일’은 남측이 ‘의’를 삽입하여 사용한 것이고, ‘진흥왕 순수비-진흥왕의 순수비’는 북측이 ‘의’를 삽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는 용어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간결성의 초점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6) 한자어 혼용

한자어 혼용은 의미가 동일한 하나의 용어에서 남북이 한자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다르게 발음하지만 결국 하나의 용어를 일컫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매우 흔하지 않은 경우로 오직 ‘육살(褥薩)-녹살(儻薩)’의 예시에서만 나타났다.²¹⁾ 여기

20) 표준국어대사전 북한어 사전에서 ‘貴’가 ‘귀’로 발음되는 북한어(예, 귀연(貴鉉))를 확인할 수 있다.

2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육살’은 ‘고구려 때에 둔 지방 오부(五部)의 으뜸 벼슬’을 뜻하는 용어로 ‘녹살’과 동의어 관계라고 나와있다.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측 역사 교과서에서는 ‘육살’을 사용하고, 북측 교과서에서는 ‘녹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3.3. 형태가 다른 것(AB형)

AB형은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가리킨다. AB형은 모두 366개로 전체 역사 전문용어의 18%를 차지한다.

1) 남측 AB형

AB형 남측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의 5가지 유형이 있다. 목록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7) 고유어

고인돌, 굽다리집시, 돌널무덤, 돌덧널무덤, 모루떼기, 뽕족끝짜개, 잔무늬거울, 조개더미, 돌무지무덤(9개)

(18) 한자어

가야연맹, 각저총, 경신환국, 고구려고분군, 광개토대왕, 농민봉기, 노랑해전, 보부상, 북한군, 병하기, 십이륙사태, 안동김씨, 위만조선, 유리왕, 청산리대첩, 팔조법, 화요회 등(296개)

(19) 외래어

샤머니즘, 애니미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토테미즘(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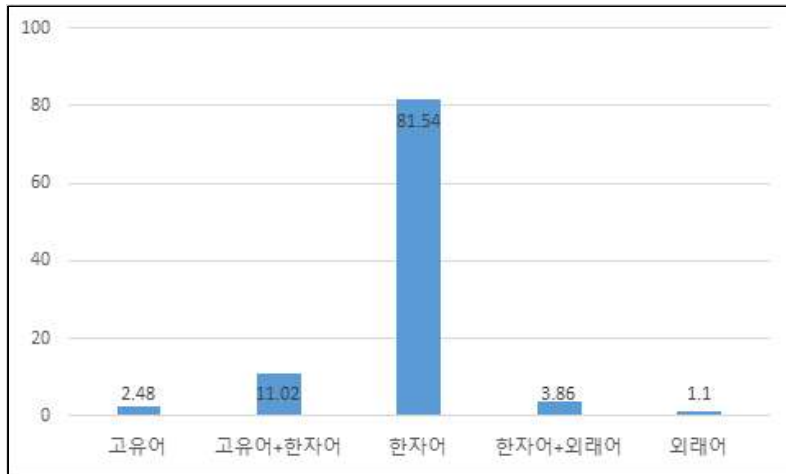
(20) 고유어+한자어

간석기, 간접떼기, 관산리고인돌, 관산성싸움, 구멍무늬토기, 도기기마인물형뿔잔, 두방무덤, 만적의 난, 묘청의 난, 반달돌칼, 철제보습, 청동화살촉 등(40개)

(21) 한자어+외래어

가쓰라테프트밀약, 러시아혁명, 쓰시마섬토벌, 야마토조정, 오페르트도굴사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너럴서먼호, 제정러시아, 포츠머스조약, 헤이그 특사, 아시아태평양전쟁 등(14개)

AB형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도 '한자어'가 296개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다음 '고유어+외래어'가 40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고유어'는 총 9개인데 AA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경과 관련이 있는 기구나 도구를 표시하는 용어가 대부분이다. '한자어+외래어'는 14개가 나타났고, '외래어'는 4개가 나타났다. 이는 AA형 '외래어'의 경우보다 유형이 다양한 편인데, 인명이나 지명 외에 '샤머니즘, 애니미즘'과 같은 종교나 사상과 관련되는 용어들도 나타났다. 출현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AB형 남측 역사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AB형 남측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어종 중에서는 '한자어'가 81.5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고유어+한자어'가 11.02%, '고유어'가 3.86%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어'는 가장 적은 비율로 1%에 불과했다.

2) 북측 AB형

AB형 북측 역사 전문용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 6가지 어종 유형이 있다. 남측에 없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유형이 더 나타나고 있다. 목록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고유어

씨름무덤, 대고떼기, 벼슬자리, 구멍줄무늬그릇, 돌곽무덤, 두칸무덤, 붉은간그릇, 세칸무덤, 중벼슬, 용, 두발걸음원숭이, 쇠보습, 질그릇 등(33개)

(23) 한자어

가야연합제, 경신년대토벌, 경제적락탈정책, 고부농민폭동, 공산성, 라당비밀협약, 농민폭동, 사회주의시월혁명, 망이농민폭동, 민비, 인민군대, 안동김가, 압태도농민투쟁, 영혼승배, 료동원정, 임진조국전쟁, 최가정권, 화천동동굴유적 등(248개)

(24) 외래어

유엔, 쓰시마, 짜리로씨야(3개)

(25) 고유어+한자어

고구려옛무덤, 무덤벽화, 구주성싸움, 김현장의반란, 자개박이칠공예, 로랑바다싸움, 당과싸움, 얼음강시기, 세나라시기, 왕자리, 천마무덤, 태왕무덤, 청동활촉, 화분형그릇 등(68개)

(26) 고유어+한자어+외래어

가쓰라와타프의비밀협약(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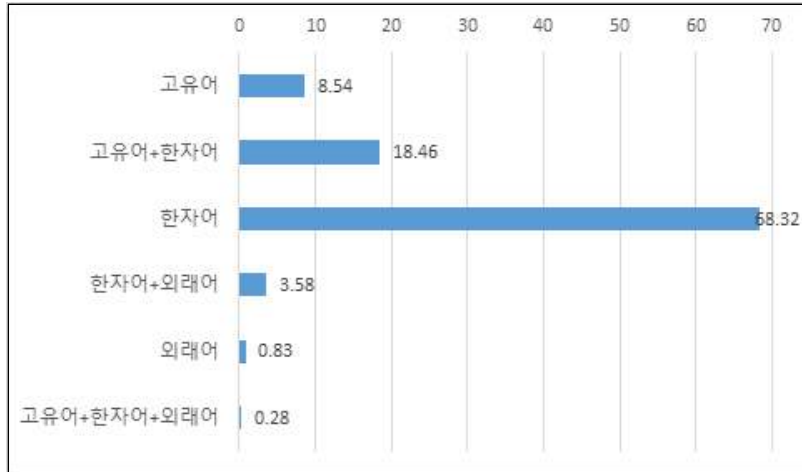
(27) 한자어+외래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부르조아민족운동, 쓰시마원정, 야마또국가, 유엔조선위원단, 서면호, 서면호격멸, 포츠머스강화조약, 프롤레타리아문학, 헤그밀사, 헤그밀사사건, 쏘미공동위원회, 부르조아민권운동(13개)

각 어종별 예시를 살펴보면 북측 역사 전문용어 중에는 남측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많이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고유어'의 예시 중에 '돌곽무덤'이나 '두칸무덤'에서 '곽', '칸'은 남측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용어이다. 그리고 '한자어'의 예시 중에는 '락탈', '폭동', '혁명', '투쟁' 등과 같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용어들이 눈에 띈다.

AB형 북측 역사 전문용어도 '한자어'가 248개로 기타 어종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다음 '고유어+한자어'가 68개, '고유어'가 33개로 남측보다 '고유어'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자어+외래어'는 13개, '외래어'는 3개

로 나타났다.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혼합형 조합도 나타났는데, 이는 남측에는 없는 어종이지만 북측에도 오직 하나의 용례 '가쓰라와 타프트의 비밀협약'만 나타났다. 북측 전문용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AB형 북측 역사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AB형 북측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는 '한자어' 68.32%, '고유어+한자어' 18.64%, '고유어' 8.54%, '한자어+외래어' 3.58%, '외래어' 0.83%, '고유어+한자어+외래어' 0.28% 순으로 나타났다. '한자어'의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고유어+한자어'와 '고유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사 분야에서 북측도 '한자어'를 매우 선호하지만, 남측과 비교했을 때 '고유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남북 AB형 대응 유형

남측의 AB형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살펴보면, 남측의 5가지 어종 유형에 북측의 6가지 어종 유형이 17가지 대응쌍을 이루어 나타난다.

남	북	빈도(개)	예시(남/북)
고유어	고유어	6	모루떼기-매러께기
	고유어+한자어	3	뽕족꿀떡개-뽕족꿀떡기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11	두방무덤-두칸무덤
	한자어	12	관산성싸움-관산성격전취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17	구십육각간의난-각간대공의반란
	고유어	13	각처총-씨름무덤
	한자어	231	풍양조씨-풍양조가
	고유어+한자어	46	관등-벼슬등급
한자어+외래어	외래어	2	대마도-쓰시마
	한자어+외래어	4	민족운동-부르조야민족운동
	고유어+한자어	1	오펜트도굴사건-남연군무덤도굴사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1	가쓰라태프트밀약-가쓰라와 타프트의 비밀협약
	외래어	1	제정러시아-짜리로씨야
	한자어	2	러시아혁명-사회주의시월혁명
외래어	한자어+외래어	9	쓰시마섬도벌-쓰시마원정
	고유어	1	오스트랄로피테쿠스-두발걸음원숭이
	한자어	3	애니미즘-영혼승배

<표 11>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남측 역사 용어를 기준으로 대응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한자어↔한자어'의 대응으로 231개 나타났다. 이는 전체 AB형의 63.64%로 절반 이상을 넘는다. 그다음으로 '한자어↔고유어+한자어'가 46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18개, '고유어+한자어↔한자어' 12개,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1개, '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 9개, '고유어↔고유어' 8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유형은 모두 3개 이하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한자어'는 남측과 북측에서 모두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앞으로 통합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사이의 어종 차이를 극복하고 Aa형에서 다루었던 어문 규정이 통일된다면 남북 역사 전문용어를 통합함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통합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를 시작으로 현재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까지 이어오고 있다. 4년 차의 연구 결과는 교과 분야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어종 분석 부분의 특징적인 면은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자어’ 어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 다루었던 분야 중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는 한자어로 된 고유명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는 인명을 비롯하여 지명, 제도명, 관직명 등 대다수의 용어가 ‘한자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과 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종이 일치한다는 점은 향후 전문용어의 통합 과정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간결성’을 추구하여 짧은 어기의 용어를 선호한다는 점이다.²²⁾ 이는 분야를 막론하여 남북 전문용어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의 간결성은 판정 위계 기준 중 하나인 ‘경제성’과도 연결된다. 경제성의 기준에서는 기억 부담량을 줄이는 용어가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하다고 판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남북 전문용어 어종 분석의 특징인 ‘한자어’의 높은 출현 빈도와 ‘간결성’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어종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고유어’나 ‘외래어’, 기타 혼종어보다 ‘한자어’가 갖는 ‘간결성’ 때문이기도 하다. ‘한자어’는 다른 어종들에 비해 어종 결합, 어기, 조어 등의 분석에서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 시대를 위한 통합안에 대해 제시해 본다면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용어의 명명과 선택 과정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김광해(1989: 178)에 따르면, 고유어는 분석적 특성을 가지며 한자어는 종합적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고유어는 복합어의 구성이 쉽지 않으며, 반면에 한자어로는 복합어의 구성이 매우 손쉽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위 개념어에 한자어를 우선적으로 명명하고, 그것의 하위 개념어에 각각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어를 배치하여 전문용어의 어종별 위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22) 김유진·신종진(2016: 68-69)에서는 남북 수학 심화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의 키워드 중 하나로 ‘간결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 다른 키워드로는 남북의 수학 심화 전문용어에서 동일 어종과 동일 어종 결합을 선호하고 있다는 ‘유사성’과, 심화 전문용어의 특성상 용어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심화 전문용어의 구성은 기초 전문용어들의 합임을 확인하며 ‘평이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8) 가. 토기 > 간토기 >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나. 석기 > 간석기, 뎨석기

※ (28가)에서 ‘토기’는 제작 방식에 따라 ‘간토기’가 있다. ‘간토기’는 다시 토기의 색깔에 따라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등으로 나뉜다. (28나)는 ‘석기’의 제작 방식에 따라 ‘간석기’와 ‘뎨석기’로 나뉜다.

(28)의 예를 살펴보면, 상위 개념어인 ‘토기(土器)’와 ‘석기(石器)’는 ‘한자어’로 나타나고 하위 개념어인 ‘붉은간토기’와 ‘검은간토기’, ‘간석기’와 ‘뎨석기’는 ‘고유어+한자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개념어 관계에서 하위 개념어는 상위 개념어와의 개념적 차이점과 범주적 차이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붉다’, ‘검다’, ‘갈다’, ‘떼다’ 등의 고유어를 사용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다.

둘째, 동의(同意)의 한자어와 고유어가 존재한다면 모두를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다시 말해 전문용어 어종 선택에 있어 고유어를 목록에서 제거하지 말자는 것이다.

(29) 가. 토기: 토기, 구멍무늬토기,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덧무늬토기/덧무늬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나. 그릇: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새김무늬그릇, 덧무늬토기/덧무늬그릇, 민그릇, 팽이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 (29가)에서 ‘토기’는 5번, (29나)에서 ‘그릇’은 6번 나타난다. ‘토기’와 ‘그릇’의 출현 빈도 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9)에서와 같이 남북 전문용어 목록에서는 동일 지시물에 대해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미 앞선 연구에서 한자어의 간결성과 조어의 편의성에 의해 전문용어 어종에서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자어의 편리성을 좇아 고유어를 목록에서 제거하여 버린다면, 우리는 전문용어 목록에 우리의 고유어를 잃은 민족이 될 것이다.²³⁾ 따라서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지칭하고 있다면 ‘한자어’와 ‘고유어’ 형태 모두를 반영하여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23) 권재일(2018: 20)에서는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향의 원칙으로 ‘첫째,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교과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생의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혼종어의 어종 결합 유형을 살펴, 전문용어 선택 단계에서 규칙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본 연구의 ‘친숙성’, ‘일관성’, ‘체계성’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30) 가. 격전: 관산성싸움/관산성격전

나. 싸움: 로랑바다싸움/명랑바다싸움, 한산도앞바다싸움, 천문령전투/천문령싸움, 왕검성전투/왕검성싸움,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구주성싸움, 살수싸움, 당파싸움, 관산성싸움/관산성격전

※ (30가)에서 ‘격전’은 1번, (30나)에서 ‘싸움’은 10번 나타난다. ‘격전’보다 ‘싸움’ 유형으로 나타나는 출현 빈도가 더 높으므로 ‘싸움’으로 통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30)에서와 같이 보다 빈번하게 결합되는 유형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빈도가 높다는 것은 친숙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때 언어권 내의 반발이 적고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유진·신중진(2016_L)에서는 동일 분야 내에서 선호하는 어종 결합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²⁴⁾ 일반적으로 같은 분야 안에서의 전문용어는 일관된 형식을 갖는다. 즉,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형식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종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선호하는 결합 유형을 제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용어 목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조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밝히고 조어 분석 단위를 설정한 후에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4) 김유진·신중진(2016_L: 68)에서는 수학 분야 심화 전문용어의 단어 구조에서 남북 모두 ‘ch+ch’로 구성된 어종 결합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전문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적 단위를 이루는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들이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문용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의 형태 구조,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우리말과 외래어가 결합한 어휘 체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용어 구성 요소들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상들에 접근하고,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에 대한 조어 분석이 필요하다.

조어 분석이란 전문용어의 형태 분석을 의미한다. 언어학에서 ‘단어’ 단위에 대한 형태 분석은 대체로 형태소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용어에서의 형태 분석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형태소를 기본 단위로 삼아 분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형태를 분석할 때에는 먼저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은경(2001)에서는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전문용어를 조어 분석하면 ‘전문용어는 일반 어휘와 달리 어떤 어휘·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는 어떤 어휘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지’, ‘특정 용어가 쓰이는 분야와 인접 분야의 용어들 간에는 어떠한 어휘·형태적 특성이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은경 2001: 2).

배선미·시정곤(2004)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한국어 핵심 용어의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용어의 조어 단위 유형을 파악하고 각 조어 단위의 조어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문용어 추출, 전문용어 교차 정렬 및 검색, 자동 음차 표기, 전문용어의 기계 번역, 전문용어의 용어 구성 정보를 이용한 전문성 측정, 온톨로지 구축, 전문용어의 정의문 추출 등 여러 전문용어 응용 시스템 및 자동 조어 분석기를 개발하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다(배선미·시정곤 2004: 192). 이처럼 조어 분석은 전문용어 목록을 자동 구축하고 응용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어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이현주 외(2007)에서는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용어 조어의 특성과 번역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복합 용어를 살펴보면 그 구성 요소 중에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 조어에 많이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렇게 용어 형성에 관여하는 어휘 요소들을 전문용어 형성소라 부를 수 있으며, 형성소의 목

록을 구축하는 것은 전문용어 번역과 조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현주 외(2007)에서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을 통해 용어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목록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전문용어 번역과 표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이현주 외 2007: 20).

이처럼 조어 분석은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밝히고, 전문용어를 과학 기술적으로 정보화하며, 번역의 형식화와 조어의 표준화 작업에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목적과 더불어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서 조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용어 연구의 흐름은 용어 표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도 궁극적으로는 용어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용어를 조어 분석하는 일은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구성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통합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엄태경(2015)에서는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에 대한 조어 분석을 실시하여 접사 조어 단위 및 고빈도 조어 단위를 통한 통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신중진 외(2015, 2016, 2017)에서도 남북측 자연과학, 체육, 국어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조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은 용어 형성 방식과 유형을 제공하므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조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조어 분석의 실제

2.2.1. 조어 분석의 단위

전문용어를 형태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조은경(2001: 18)에서는 “하나의 전문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말을 만드는 최소 형식인 형태소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된 어휘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용어 분석에서는, 전문용어의 형성에 이용되는 기초적인 요소이자 서로 다른 용어들 간에 공유되는 생산적인 요소이며, 형태소보다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단위이자 전문용어를 형성하는 단위로서 ‘조어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조은경 2001: 20).

일반 단어의 형태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단위를 형태소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분석하면, ‘미끄러(<미끄럽)’, ‘-르’, ‘틀’과 같이 세 개의 형태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미끄럼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끄러-’에 ‘-르’이 결합하여 ‘미끄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틀’이 결합하여 ‘미끄럼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분석의 단위와 형성의 단위가 항상 같지만은 않다. 하지만 조은경(2001: 20)에서는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단위와 형성하는 단위를 동일시하고 있다. 즉 용어 형성의 관점에서 용어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조은경(2001)이 설정한 ‘조어 단위’의 개념과 설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²⁵⁾

방법	설명	예시
1. 일반 어휘로 형성된 것	· 전문용어의 특수한 조어 양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일반어로 일차적 형성이 된 어휘를 분석하지 않는다.	· 펼친-그림 → 펴/르/치 /ㄴ/그리/르 ⇒ 펼친/그림 · 나란히-각 → 나란/히/각 ⇒ 나란히/각
2. 한자어 조어력으로 형성된 것	· 1음절 한자어에 한자어 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는 것은 국어 어휘로서 2음절 구성이 보다 안정적이므로, 여기는 2음절이 기본이 되도록 분석한다.	· 공적독점 → 공적/독점 · 사적독점 → 사적/독점
3. 한자어 접사	· 한자어 접사는 하나의 용어를 형성함에 있어 그 용어의 개념 형성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립적 단어와 분리성을 갖는 하나의 조어 단위가 된다.	· 가/처분, 가/지급, 원자/력, 원심/력 등
4. 어근적 형태소	· 전문용어의 개념 형성 요소로 기능하는 고유어의 어근을 하나의 조어 단위로 인정하여 분석한다.	· 움직/씨, 동글/수 등

25) 이전의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정비 사업에서 실시한 조어 분석은 조은경(2001)의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검토를 위해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5. 의미적 투명성이 없는 형태소 결합	· 형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라도 용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분석의 의의가 낮다.	· 삼일오/정부통령/선거 · 삼에스/정책(三S政策)
6.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	·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은 또 다른 용어의 어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복원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 정통령부통령>정부통령 → 정부통령/선거
7. 용언의 활용형, 명사 파생접사, 피·사 등 접사	·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어휘의 활용형은 대체로 제한된 쓰임을 보인다.	· 고른/값, 고른/수, 꺾은/금, 꺾은/선, 기울기, 기울기/표, 기울기/자
8. 외래어, 고유어·한자어의 경계	· 외래어와 우리말(한자어 포함)의 결합은 그 경계에서 분석한다. · 외래어끼리 결합된 것은 대응하는 우리말로 대체되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우리말 속에서의 어휘적 가치를 띠고 있을 경우에 분석한다.	· 데이터베이스/화 · 데이터/파일 · 마이크로/파

<표 12> 조은경(2001: 22-28)에서의 조어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은경(2001: 1-28), 신중진 외(2017: 58-60)의 조어 분석 단위와 조어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어 분석 단위를 설정한다.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에 사용된 품사 표지는 다음과 같다. 원어는 ‘고유어: ko(korean), 한자어: ch(chinese), 한자어(고유어)+고유어(한자어): sk(sino-korean), 인도유럽외래어: ie(indo-european), 몽골어: mo(mongol)’ 등으로 설정하였다.

형태·품사		표지	형태·품사	표지	
기호, 숫자		sy	용언	기본형	vb
표지 보류		tt		명사형, 명사파생접미사 결합형	vn
명사류	보통명사	nc		관형형	va
	대명사	np		연결형	vc
	고유명사	npp	조사		
	의존명사	nb	형용사, 부사	af	
	수사	nu	동사	vf	
	아라비아숫자 포함 명사	nu-cc	체언 이외의 외래어	전치사	pf
관형사	an	접속사		cf	
부사	av	접사		xf	
접사	접두사	xp		단일 단위 준말	표지-c
	접미사	xs	복합 단위 준말	표지-cc	
어근적 형태소		mm	약어		acn

<표 1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품사 표지

조어 분석 이후 각각의 조어 단위는 형태·품사 표지와 원어 표지를 달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연천^전곡리^유적’이라는 용어는 분석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얻는다.

조어 단위 1	분석 표지 1	조어 단위 2	분석 표지 2	조어 단위 3	분석 표지 3	조어 단위 4	분석 표지 4
경기	npp/ch	연천	npp/ch	전곡리	npp/ch	유적	nc/ch

<표 14> ‘경기^연천^전곡리^유적’의 분석 예시

분석 표지 중 대시 앞의 것은 형태·품사를 표시하고, 뒤의 것은 원어를 표시한 것이다. 즉, ‘npp/ch’는 ‘한자어인 고유명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2.2. 조어 분석의 결과

1) 형태 유형별 분포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남북 용어의 일치도에 따라 ‘AA형’, ‘Aa형’, ‘AB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일 개념에 대해 양측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AA형, 맞춤법과 관련한 부분만 다르고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a형,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B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Aa형은 AA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남측과 북측이 대응되는 용어는 총 2,049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경학사-경학사, 공노비-공노비, 유교-유교	1,502개 (73.3%)
	Aa	낙랑-락낭, 미쓰야협정-미쯔야협정, 난징조약-남경조약	184개 (9.0%)
AB		무용총-춤무덤, 간접떼기-대고떼기 살수대침-살수싸움	363개 (17.7%)

<표 15> 역사 분야 전문용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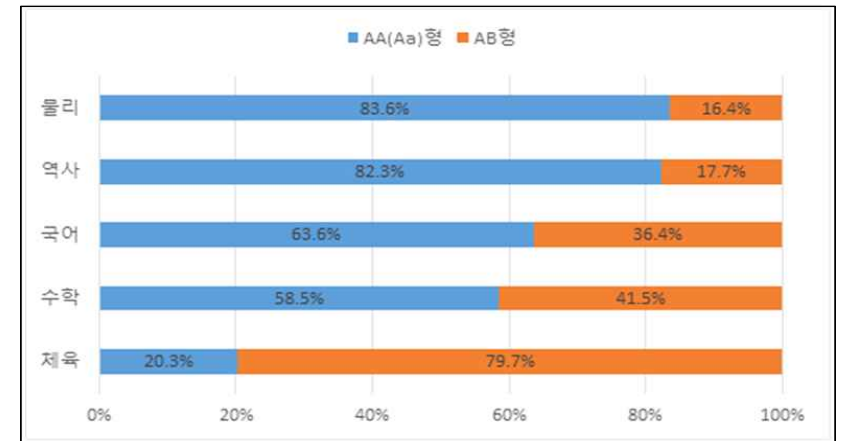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이 1,686개에 달한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363개가 출현하였다. 즉, 남북 역사 용어는 82%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 용어는 남북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를 신중

26) Aa형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외래어 표기, 두음 법칙, 음 표기’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외래어 표기 방식이 달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가쓰라-가쓰라, 다카마쓰무덤-다카마쓰무덤, 러일전쟁-로일전쟁,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 등이 있으며, 두음 법칙으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나당연합군-라당연합군, 노동계급-로동계급, 양반-량반, 여진족-녀진족’ 등이 있다. 그 밖에 음의 표기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로는 ‘난징조약-남경조약, 텐진조약-천진조약, 헤이허사변-흑허사변’ 등이 있다.

진 외(2015)에서 연구한 수학과 물리 용어와 비교해 보았다. 수학 분야에서는 AA(Aa)형이 206개(58.5%), AB형이 146개(41.5%)로 50%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물리 분야에서는 AA(Aa)형이 358개(83.6%), AB형이 70개(16.4%)로 역사 분야보다 더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신중진 외(2016)에서 연구한 체육 용어와도 비교해 보았다.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AA(Aa)형이 238개(20.3%)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AB형이 935개(79.7%)로 분석되었다. 이는 AA(Aa)형이 약 80% 이상인 역사 분야와 상반되는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신중진(2017)에서 연구한 국어 분야에서는 형태가 같은 AA(Aa)형이 1,399개(63.6%), 형태가 완전히 다른 AB형은 801개(36.4%)로 조사되었다.

남북측 역사 용어는 물리 용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80%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남측과 북측의 용어가 동일한 AA(Aa)형은 ‘물리 > 역사 > 국어 > 수학 > 체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이처럼 역사 분야는 남북측 대응 용어들이 상당한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체육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일치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용어의 비경제성과 어휘 정체성에 따른 쉬운 말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체육은 다른 분야보다

‘헤드피스트슬라이딩(남)-머리로부터미끄러져진으로들어가기(북), 스프링보드다이브(남)-탄성관물에뛰어들기경기(북)’ 등의 긴 용어들이 많아 경제성이 낮은 편이어서 남북이 일치도를 보이기 쉽지 않다. 또한 북측은 ‘라이트훅(남)-오른손엮으로치기(북), 스트라이크아웃(남)-타격수실격(북), 슈팅포지션(남)-넣기위치(북), 스타팅플레이어(남)-경기치시작선수(북), 스탠딩드리블(남)-서서물기(북)’처럼 외래어보다 한자어를 선호하고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선호하는 ‘어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용어를 고유어로 쉽게 풀어서 쓰려는 쉬운 현상과도 연관된다.²⁷⁾

남북 전문용어를 분야별로 비교해 본 결과, 물리 분야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육 분야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일치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역사 분야는 물리 분야 다음으로 용어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역사 분야의 용어는 남북이 각각 363개의 다른 형태가 있고, AA(Aa)형과 AB형까지 모두 더하면 총 2,412개가 된다. 이를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라 유형화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아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1,161	48.1%	삼포, 상민, 양안, 덕수궁, 독립협회 등
2개	860	35.7%	삼^별초, 꺼물^거리, 교정^도감 등
3개	285	11.8%	친명^배급^정책, 심육^관등^제도 등
4개	69	2.9%	한미^상호^방위^조약, 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 등
5개	27	1.1%	갑신^정변^십사^개조^정강, 관측사^석조^미륵^보살^입상 등
6개 이상	10	0.4%	개성^경천사^지^십^층^석탑 등
합계	2,412	100%	

<표 16> 역사 분야 조어 단위 길이

27) 역사 용어에서도 ‘몽유도원도(남)-꿈에본동산(북), 송하보월도(남)-달밤에소나무밑을거닐며(북)’처럼 쉬운 말화 현상이 잘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 용어는 체육 용어처럼 긴 용어도 많지 않고, 어휘 정체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이, 역사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적게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가장 많게는 7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1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개로 구성된 용어가 전체 분포의 48.1%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35.7%를 차지했다. 신중진 외(2016: 71-76)에 따르면, 수학 분야에서는 2개로 결합된 용어가 52.0%였고, 물리 분야에서는 53.6%로 나타났다. 또한 신중진 외(2017: 65-78)에서 고찰한 국어 분야에서도 2개의 조어 단위로 결합된 용어가 5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 이와 달리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1개로 구성된 조어 단위가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가. AA(Aa)형

AA(Aa)형은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한 용어를 나타내므로 AA(Aa)형을 통해 공통적인 조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유형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A(Aa)형에서 사용된 형태 및 원어는 다음과 같다.

형태	빈도	형태	빈도
보통명사(nc)	1,429	용언의 연결형(vc)	1
고유명사(npp)	716	용언의 기본형(vb)	1
접미사(xs)	126	복합고유명사-준말(npp-c)	1
어근적 형태소(mm)	88	복합보통명사-준말(nc-cc)	1
관형사(an)	23	부사(av)	1
접두사(xp)	19	약어(acn)	1
한자성어(w4)	14		
조사(pa)	5	원어	빈도
단일고유명사-준말(npp-c)	5	한자어(ch)	2,316
용언의 관형형(va)	2	고유어(ko)	95
표지 보류(tt)	2	외래어(ie)	12
숫자, 기호(sy)	2	일본어(jp)	10
의존명사(nb)	2	혼종어(sk)	4
용언의 명사형(vn)	1	몽골어(mo)	3

<표 17> 역사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통명사의 수치가 1,429개로 월등히 높다는 점과, 고유명사의 빈도가 716개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중진 외(2017)에서는 국어 분야 AA(Aa)형에 해당하는 보통명사가 1,768개, 고유명사가 24개로 조사되었다.²⁸⁾ 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역사 분야는 고유명사의 수치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어 사용에서는 한자어의 빈도가 2,316개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AA(Aa)형 전문용어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아래 표에서는 상위 5위까지의 유형만을 제시한다.

28) 신중진 외(2017: 66)에 따르면, AA(Aa)형에 해당하는 보통명사는 문법 분야 762개, 문학 분야 699개, 기능교육 분야 307개로 조사되었고, 고유명사는 문법 분야 17개, 문학 분야 7개, 기능교육 분야 0개로 조사되었다.

유형		남	북	예
형태 결합 (60개 유형)	npp	576	576	김구, 농사직설, 놀지왕, 독립협회 등
	nc	466	466	샤머니즘, 성골, 소, 왜구, 좌평 등
	nc^nc	261	261	언문^일치, 좌^별초, 갑신^정변 등
	npp^nc	83	83	북관^개시, 살수^대첩, 성호^학파 등
	nc^xs	65	65	고등^학, 군현^제, 대동^미, 봉건^제 등
원어 결합 (27개 유형)	ch	1,021	1,021	가묘, 경관, 민중, 방납, 봉기, 북벌 등
	ch^ch	490	490	갑자^사화, 개항^장, 나전^칠기 등
	ch^ch^ch	74	74	농촌^진흥^운동, 민족^자결^주의 등
	ko^ko	22	22	가락^바퀴, 돌^삼, 조개^더미 등
	ko	14	14	고인돌, 굽개, 덕대, 솟대, 시루 등
형태/ 원어 결합 (85개 유형)	npp/ch	562	562	경희루, 고조선, 명, 비류, 석가탑 등
	nc/ch	452	452	총독, 칠지도, 토호, 팔도, 향촌 등
	nc/ch^nc/ch	232	232	호포^법, 화친^관계, 후^삼국 등
	npp/ch^nc/ch	73	73	사비^천도, 상원사^동종, 해모수^신화 등
	nc/ch^xs/ch	63	63	선대^제, 씨족^장, 위안^부, 유학^생 등

<표 18> 역사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위 표에서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역사 분야에서는 ‘고유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보통명사’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고찰한 수학과 물리 분야의 AA(Aa)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졌고,²⁹⁾ 신중진 외(2017)의 국어 분야에서는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와 달리 역사 분야에서는 ‘고유명사’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보통명사’ 유형, ‘보통명사^보통명사’ 유형, ‘고유명

29) AA(Aa)형에서 수학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87), nc(81), nc^xs(7), xp^nc(4), nc^nc^nc(4)’ 순으로 나타났고, 물리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116), nc(98), nc^xs(35), npp^nc(20), nb(19)’ 순으로 나타났다(신중진 외 2016: 72-77).

사~보통명사' 유형, '보통명사~접미사' 유형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수학, 물리, 국어 분야에서도 한자어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역사 분야에서도 한자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1, 2, 3순위가 '한자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로 한자어로 결합된 유형의 분포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AA(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고유명사'와 '한자어'로 결합된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Aa형은 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두음 법칙과 외래어 표기법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음 법칙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안용복-안룡복, 여진정벌-너진정벌, 요동성전투-료동성전투, 이괄의난-리괄의난' 등이 있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시모노세키조약-시모노세끼조약, 파리강화회의-빠리강화회의, 칭기즈칸-칭기스한' 등이 있다.

나. AB형

남북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서 AB형은 363개로 나타났다. AB형은 남측과 북측이 전문용어를 통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B형은 AA(Aa)형에서 드러나지 않던 남과 북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남북의 전문용어가 다를 때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전문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남북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생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용어를 선택할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498	보통명사(nc)	583	한자어(ch)	770	한자어(ch)	726
고유명사(npp)	224	고유명사(npp)	186	고유어(ko)	75	고유어(ko)	153
접미사(xs)	42	접미사(xs)	38	외래어(ie)	14	외래어(ie)	13
어근적형태소(mm)	25	관형사(an)	24	일본어(jp)	3	혼종어(sk)	7
관형사(an)	20	접두사(xp)	15	혼종어(sk)	1	일본어(jp)	4
조사(pa)	19	조사(pa)	15	몽골어(mo)	1	몽골어(mo)	1
숫자, 기호(sy)	9	어근적형태소(mm)	15				
접두사(xp)	7	용언의관형형(va)	5				
용언의관형형(va)	6	숫자, 기호(sy)	5				
단일고유명사-준말(npp-c)	4	단일고유명사-준말(npp-c)	4				
의존명사(nb)	4	용언의명사형(vn)	3				
한자성어(w4)	2	표지 보류(tt)	3				
용언의명사형(vn)	2	한자성어(w4)	2				
복합보통명사-준말(nc-c)	1	용언의연결형(vc)	2				
부사(av)	1	의존명사(nb)	2				
		수사(nu)	1				
		부사(av)	1				

<표 19> 역사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역사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에서도 AA(Aa)형에서처럼 보통명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AA(Aa)형과 비교했을 때 고유명사의 빈도는 감소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이 사건, 제도, 도구 등의 용어를 명명할 때에는 남북 측의 용어 사용 양상에 따라 용어가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유명사는 원래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어 남북이 어문 규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다음으로 접미사가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균전제, 빙하기, 민주화, 위안부’ 등에서 접미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 어근적 형태소, 관형사, 조사 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북의 원어 사용을 비교해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770개, 고유어가 75개, 외래어가 14개, 일본어가 3개, 혼종어와 몽골어가 각각 1개씩 나타났고, 북측은 한자어 726개, 고유어 153개, 외래어 13개, 혼종어 7개, 일본어 4개, 몽골어 1개로 분석되었다. 남북측은 특히 고유어 사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북측이 남측보다 고유어 비중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 및 원어가 어떠한 결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73개 유형)	nc^nc	55	고분^벽화, 굽다리^접시, 농민^봉기 등
	npp^nc	55	고창^전투, 몽골^침략, 황남^대총 등
	npp	31	대마도, 몽유도원도, 온조왕, 조선 등
	nc	27	공출, 궁방, 도고, 삼국, 수렵, 왕위 등
	nc^nc^nc	21	돌^화살^촉, 무장^독립^투쟁 등
원어 결합 (31개 유형)	ch^ch	154	부부^총, 권문^세족, 동북^구성 등
	ch	54	석총, 승관, 토기, 명, 태봉 등
	ch^ch^ch	52	고구려^부흥^운동, 서울^진공^작전 등
	ch^ch^ch^ch	24	십삼^도^연합^의병, 광주^학생^항일^운동 등

형태/원어 결합 (96개 유형)	ch^ko^ch	13	삼정^의^문란, 청동^화살^촉 등
	nc/ch^nc/ch	51	국제^연합, 동^시진, 민간^무역 등
	npp/ch^nc/ch	48	노랑^해진, 온달^설화, 태왕^릉 등
	npp/ch	31	대한광복회, 송하보월도, 위 등
	nc/ch	22	공출, 과거, 도고, 왕위, 장인 등
npp/ch^npp/ch	18	경주^불국사, 진^시황, 위만^조선 등	

<표 20> 역사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위의 표는 남측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 준다. 남측의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명사^보통명사, 고유명사^보통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 보통명사^보통명사^보통명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AA(Aa)형에서는 ‘고유명사, 보통명사’처럼 하나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AB형에서는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유형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원어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와 원어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고유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고유명사/한자어, 보통명사/한자어, 고유명사/한자어^고유명사/한자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73개 유형)	nc^nc	73	마제^석기, 고인돌^무덤, 벼슬^자리 등
	npp^nc	47	당^나라, 원각사^탑, 쓰시마^원정 등
	npp	36	옥산서원, 유엔, 개태사, 민비, 광복회 등
	nc^nc^nc	34	돌^각담^무덤, 독립^군^운동, 임오^군인^폭동 등
	npp^nc^nc	23	고구려^무덤^떼, 망이^농민^폭동 등
원어 결합 (44개 유형)	ch^ch	101	과거^제도, 도고^상인, 사^무역 등
	ch^ch^ch	72	을사^오^조약, 비색^상감^자기 등
	ch	49	륙성, 점군, 목, 호족, 환정, 불국사 등
	ch^ko	22	당파^싸움, 천마^무덤, 만달^사람 등
	ch^ch^ch^ch	20	사대^종속^관계^강요, 경신^년^대^토벌 등
형태/원어 결합 (113개 유형)	nc/ch^nc/ch	50	구도^환경, 경신^출척, 군현^제도 등
	npp/ch	33	김수로, 동대문, 임존성, 화요파 등
	npp/ch^nc/ch	29	분황사^탑, 고려^실록, 병산^전투 등
	nc/ch^nc/ch^nc/ch	24	기마^무인^상, 애국^문화^운동 등
	npp/ch^nc/ch^nc/ch	18	려수^군인^폭동, 평양성^해방^운동 등

<표 21> 역사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북측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드러난다. 먼저 형태 결합에서는 ‘보통명사^보통명사, 고유명사^보통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보통명사^보통명사, 고유명사^보통명사^보통명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고유명사^보통명사^보통명사’의 빈도가 남측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보통명사가 단독으

로 쓰인 유형이 남측보다 낮은 편이다.

원어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났다. 북측도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와 원어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고유명사/한자어, 고유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고유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서와 달리 고유명사의 빈도가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 분야에서는 문화재명이나 작품명, 역사적 사건이 벌어질 때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나 사건이 벌어진 지역 등에서 고유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보통명사와 더불어 고유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한자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측은 원어 결합의 유형이 남측보다 다양하여 결과적으로 남측보다 더 다양한 형태/원어 결합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3. 핵심 조어 단위

핵심 조어 단위들은 전문용어 형성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생산성을 가진 조어 단위들이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은 이 핵심 조어 단위들의 우선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 분야에서 남북측의 핵심 조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고빈도 조어 단위를 50순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남측 전문용어	빈도	북측 전문용어	빈도
1	운동nc/ch	28	무덤nc/ko	31
2	-제20xs/ch	23	운동nc/ch	22
3	의pa/ko	22	제도nc/ch	21
4	대첩nc/ch	21	주의nc/ch	18
5	주의nc/ch	17	의pa/ko	17

6	범01nc/ch	16	군05nc/ch	17
7	난02nc/ch	16	범01nc/ch	16
8	군05nc/ch	16	돌02nc/ko	16
9	돌02nc/ko	15	농민nc/ch	15
10	전투nc/ch	14	대18-xp/ch	14
11	전04nc/ch	13	-제20xs/ch	14
12	무덤nc/ko	13	조약nc/ch	12
13	성12nc/ch	12	전쟁nc/ch	12
14	-법03xs/ch	12	전04nc/ch	12
15	제도nc/ch	11	-법03xs/ch	12
16	조약nc/ch	10	성12nc/ch	11
17	시대nc/ch	10	부10nc/ch	11
18	부10nc/ch	10	대첩nc/ch	11
19	노비nc/ch	10	-파12xs/ch	11
20	-파12xs/ch	10	투쟁nc/ch	10
21	토기nc/ch	9	탑02nc/ch	10
22	층02nc/ch	9	전투nc/ch	10
23	유적nc/ch	9	석기nc/ch	10
24	석탑nc/ch	9	노비nc/ch	10
25	석기nc/ch	9	폭동nc/ch	9
26	층Xmm/ch	8	유적nc/ch	9
27	전쟁nc/ch	8	싸움nc/ko	9
28	삼국nc/ch	8	나라01nc/ko	9
29	삼06an/ch	8	-론03xs/ch	9
30	사건nc/ch	8	조선npp/ch	8
31	-론03xs/ch	8	시대nc/ch	8
32	학파nc/ch	7	승리nc/ch	8
33	조선npp/ch	7	사회nc/ch	8
34	정치nc/ch	7	사상nc/ch	8

35	정책nc/ch	7	사건nc/ch	8
36	사회nc/ch	7	문화nc/ch	8
37	사상nc/ch	7	그릇nc/ko	8
38	문화nc/ch	7	-회14xs/ch	8
39	무신nc/ch	7	학파nc/ch	7
40	도감nc/ch	7	종05nc/ch	7
41	농민nc/ch	7	정치nc/ch	7
42	경주npp/ch	7	삼06an/ch	7
43	-회14xs/ch	7	도감nc/ch	7
44	청동nc/ch	6	고려npp/ch	7
45	종05nc/ch	6	층02nc/ch	6
46	일08npp/ch	6	청동nc/ch	6
47	씨족nc/ch	6	정책nc/ch	6
48	신15-xp/ch	6	일08npp/ch	6
49	사회nc/ch	6	인민nc/ch	6
50	사17nc/ch	6	오04an/ch	6

<표 22>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고빈도 조어 단위(상위 50위)

남측은 ‘운동nc/ch, -제20xs/ch, 의pa/ko, 대첩nc/ch, 주의nc/ch, 범01nc/ch, 난02nc/ch, 군05nc/ch, 돌02nc/ko, 전투nc/ch’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북측은 ‘무덤nc/ko, 운동nc/ch, 제도nc/ch, 주의nc/ch, 의pa/ko, 군05nc/ch, 범01nc/ch, 돌02nc/ko, 농민nc/ch, 대18-xp/ch’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고빈도 조어 단위 중에서 ‘운동, 전투, 난, 사건, 투쟁’ 등 사건을 명명하는 용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남측은 ‘운동, 대첩, 난, 전투, 전쟁’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북측은 ‘운동, 전쟁, 대첩, 투쟁, 전투, 폭동, 싸움’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명명할 때 남측과 북측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핵심 조어 단위를 활용하여 남북측이 용어의 통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측은 남측과 달리 무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남측은 ‘무덤’ 관련 용어를 ‘고분, 총’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북측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지 않는다. 남측은 북측과 달리 ‘제도’보다는 ‘제’라는 접미사 사용이 더 빈번하게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와 ‘제’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논의는 통합을 위한 제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3 통합을 위한 제언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은 III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합 알고리즘을 통해 정량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만나 합의에 따른 통합안이 구축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외에도 다양한 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엄태경(2015: 26-28)에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설정이라기보다 협상에 의한 결정이라고 본 바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문용어의 표준화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양측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의 내용은 엄태경(2015)에서 제안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공통 원칙이다.

-
1. 전문용어는 특정 전문 영역(분야)의 개념과 지식을 적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2. 전문용어는 자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숙한 용어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전문용어는 형태적·의미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표 23> 엄태경(2015)에서 제안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공통 원칙

위 표의 세 번째 원칙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전문용어가 해당 전문 분야의 지식과 그 지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확인한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은 통합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 여기에서는 역사 전문용어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높은 생산력을 가지는 조어 단위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용어 통합의 방법을 살펴본다.

2.3.1. 전문용어의 특징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고유명사의 쓰임이 활발하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국명’, ‘지명’, ‘인명’을 선행 요소로 삼고 후행 요소에 사건이나 사물, 상태 등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가야-연맹, 신라-방, 고구려-고분, 고려-자기, 낙랑-군, 청일-전쟁 등

(32) 강화-천도, 개성-상인, 노량-해전, 명량-대첩, 살수-대첩, 안시성-전투 등
(33) 동명왕-릉, 인조-반정, 명성황후-시해사건, 김현창의-난, 묘청의-난 등

위의 (31)은 고유명인 ‘국명’이 선행 요소로 사용된 전문용어들을 나열한 것이다. 그리고 (32)의 예는 ‘지명’이 선행 요소로 사용된 전문용어들이고, (33)의 예는 ‘인명’이 선행 요소로 사용된 전문용어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 전문용어에는 고유명을 활용한 전문용어 형성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전문용어의 동의어가 활발히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에서는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지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일 개념-일 지시’를 강조한다. 그러나 역사 전문용어에서는 동의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확인해 보자.

(34) 간석기(남)-마제석기(북); 뎨석기(남)-타제석기(북); 잔석기(남)-세석기(북)
(35) 명량대첩(남)-명량대승리(북); 명량해전(남)-명량바다싸움(북)
(36) 남대문(남, 북), 승례문(남), 서울남대문(북), 서울승례문(남)

위의 (34), (35), (36)은 각각 하나의 개념을 여러 전문용어로 표현한 예들이다. 우선 (34)의 예는 하나의 개념을 고유어와 한자어로서 표현하여 동의어를 만들고 있는 예이다. (35)의 예는 동일한 사건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예들을 보인 것이다.³⁰⁾ (36)은 동일한 대상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예를 보인 것이다. 주지하듯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남대문’이나 ‘승례문’이 많이 사용되며, 전문적인 상황과 맥락에서는 공식 명칭인 ‘서울승례문’이 사용된다.

지금까지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많은 예에서 남측 용어와 북측 용어가 일정한 대립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고유어와 한자어 대립에 의한 차이였다. 또한 핵심 개념을 담은 조어 단위가 다른 조어 단위와 결합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는 다단어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2.3.2. 고빈도 조어 단위를 활용한 전문용어의 통합

역사 전문용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조어 단위

30) 엄밀히 말하면 ‘해전’과 ‘대첩’은 의미가 다르다. 해전은 바다에서의 전투를 의미하고 대첩은 전투에서 거둔 큰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실린 ‘전투’나 ‘해전’은 일반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사건들 위주로 서술된다. 따라서 의미상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들이 있다. 이를 고빈도 조어 단위라고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요소들은 역사 분야의 전문 지식을 드러내는 기본 어휘들이며, 남과 북이 공히 동일한 어휘들을 사용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고빈도 조어 단위를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고빈도 조어 단위는 크게 ‘보통명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보통명사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의 표는 남측의 역사 전문용어 조어 단위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의 조어 단위를 평행하게 제시한 것이다. 역사 전문용어의 경우,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부분의 조어 단위가 대응한다. 그러나 남측의 조어 단위인 ‘삼국’, ‘무신’, ‘경주’에 대응하는 북측의 조어 단위는 상위 50위의 빈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남측 조어 단위 ‘대첩’에 대응하는 북측의 조어 단위는 ‘대첩’, ‘승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보이는 여러 대응쌍들이 있다. 아래는 그러한 대응 양상을 드러낸 표이다.³¹⁾

순위	남측 전문용어	빈도	북측 전문용어	빈도
1	운동nc/ch	28	운동nc/ch	22
2	_제20xs/ch	23	_제20xs/ch	14
			제도nc/ch	21
3	의pa/ko	22	의pa/ko	17
4	대첩nc/ch	21	대첩nc/ch	11
			승리nc/ch	8
5	주의nc/ch	17	주의nc/ch	18
6	법01nc/ch	16	법01nc/ch	16
7	난02nc/ch	16	투쟁nc/ch	10
			폭동nc/ch	9
8	군05nc/ch	16	군05nc/ch	17
9	돌02nc/ko	15	돌02nc/ko	16
10	전투nc/ch	14	전투nc/ch	10
			싸움nc/ko	9
11	전04nc/ch	13	제도nc/ch	21
12	무덤nc/ko	13	무덤nc/ko	31
13	성12nc/ch	12	성12nc/ch	11
14	_법03xs/ch	12	_법03xs/ch	12
15	제도nc/ch	11	_제20xs/ch	14
			제도nc/ch	21

31) 이 표의 빈칸은 상위 50위 안에서 대응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어 단위이다.

16	조약nc/ch	10	조약nc/ch	12
17	시대nc/ch	10	시대nc/ch	8
18	부10nc/ch	10	부10nc/ch	11
19	노비nc/ch	10	노비nc/ch	10
20	_파12xs/ch	10	_파12xs/ch	11
21	토기nc/ch	9	그릇nc/ko	8
22	층02nc/ch	9	층02nc/ch	6
23	유적nc/ch	9	유적nc/ch	9
24	석탑nc/ch	9	탑02nc/ch	10
25	석기nc/ch	9	석기nc/ch	10
26	총Xmm/ch	8		
27	전쟁nc/ch	8	전쟁nc/ch	12
28	삼국nc/ch	8		
29	삼06an/ch	8	삼06an/ch	7
30	사건nc/ch	8	사건nc/ch	8
31	_론03xs/ch	8	_론03xs/ch	9
32	학파nc/ch	7	학파nc/ch	7
33	조선npp/ch	7	조선npp/ch	8
34	정치nc/ch	7	정치nc/ch	7
35	정책nc/ch	7	정책nc/ch	6
36	사회nc/ch	7	사회nc/ch	8
37	사상nc/ch	7	사상nc/ch	8
38	문화nc/ch	7	문화nc/ch	8
39	무신nc/ch	7		
40	도감nc/ch	7	도감nc/ch	7
41	농민nc/ch	7	농민nc/ch	15
42	경주npp/ch	7		
43	_회14xs/ch	7	_회14xs/ch	8
44	청동nc/ch	6	청동nc/ch	6
45	종05nc/ch	6		
46	일08npp/ch	6	일08npp/ch	6
47	씨족nc/ch	6		
48	신15_xp/ch	6		
49	사회nc/ch	6		
50	사17nc/ch	6		

<표 24> 남측 조어 단위에 대응하는 북측 조어 단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어휘들이 역사 분야의 지식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남측과 북측이 대립적인 관점에서 일정하게 대응쌍을 이루고 있는 예들을 살펴보자.

■ 전투, 해전 - 싸움³²⁾

노랑해전-로랑바다싸움,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왕검성전투-왕검성싸움, 천문령전투-천문령싸움

■ 대첩 - 싸움, 대승리

귀주대첩-구주대승리(구주성싸움), 명량대첩-명량대승리(명량바다싸움), 북관대첩-북관대승리, 살수대첩-살수에서의대승리(살수싸움), 진주성대첩-진주대승리, 한산도대첩-한산대승리(한산도앞바다싸움), 행주대첩-행주대승리

■ 난 - 반란

구십육각간의난-각간대공의반란, 김현창의난-김현창의반란, 왕규의난-왕규의반란, 이시애의난-리시애의반란, 이자겸의난-리자겸의반란, 조위충의난-조위충의반란

■ 난 - (농민)폭동, 농민전쟁, 농민투쟁

만적의난-만적의폭동, 망이망소의난-망이농민폭동, 이시애의난-함경도농민전쟁, 홍경래의난-평안도농민전쟁, 황건적의난-황건농민폭동, 황소의난-황소농민폭동, 김사미와효심의난-경상도농민군의투쟁

■ 충, 고분, 룡 - 무덤

각저충-씨름무덤, 강서고분-강서세무덤, 고구려고분-고구려옛무덤, 고구려고분군-고구려무덤떼, 고분벽화-무덤벽화, 금관충-금관무덤, 금령충-금방울무덤, 무용충-춤무덤, 부부충-부부무덤, 삼실충-세칸무덤, 석충-돌무덤, 장군충-장군무덤, 천마충-천마무덤, 태왕룡-태왕무덤, 황남대충-황남리제구십팔호무덤

■ 토기 - 그릇, 단지

구멍무늬토기-구멍줄무늬그릇, 덧무늬토기-덧무늬그릇, 미송리식토기-조롱박형단지, 민무늬토기-민그릇,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빗살무늬토기-새김무늬그릇, 토기-질그릇, 팽이형토기-팽이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표 25>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대응쌍

위의 예들은 고분도 조어 단위들 중 일부의 예를 보인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투, 해전-싸움’, ‘난-반란’, ‘충, 고분, 룡-무덤’, ‘토기-그릇, 단지’ 등

32) ‘A-B’ 구성에서 A는 남측 용어이고 B는 북측 용어이다. 이후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은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인다. 어중 대립에 의한 대립쌍도 확인되며, ‘난-반란’과 같이 한자어에 의한 대립도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용어가 체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데에 있다.

우선 ‘전투, 해전-싸움’의 대립을 보자. 남측은 육상 전투와 해상 전투를 각각 ‘전투’와 ‘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반면, 북측에서는 ‘싸움’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남측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대첩-대승리, 싸움’을 보면 양상이 또 다르다. 남측에서는 크게 이긴 전투를 모두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북측에서는 이를 풀어 써서 ‘대승리’로 표현한다. 그리고 종종 ‘싸움’이라는 용어도 동의어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난-반란’의 대응쌍과 ‘난-(농민)폭동, 농민전쟁, 농민투쟁’의 대응쌍을 보자. 전자에서 난(반란)을 일으킨 주체는 지배 계급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난(폭동)’을 일으킨 주체는 피지배 계급이다. 남측에서는 계급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두 ‘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주체에 따라 ‘반란’과 ‘(농민)폭동, 전쟁, 투쟁’을 나누어 사용한다.

‘충, 고분, 룡 - 무덤’의 대응쌍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남측의 용어들이 좀 더 세분화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룡’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부르는 용어이고, ‘총(塚)’은 무언가 특색이 있는 옛무덤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그리고 ‘고분’은 일반적인 옛무덤을 의미한다. 반면에 북측의 용어들은 일괄적으로 ‘무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음의 표는 접사에 의한 대립을 나타내는 표이다. 역사는 수학이나 과학 분야와는 달리 접사에 의한 대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동일한 형태인 AA형 유형이 절대적으로 많이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아래의 예시는 역사 분야 전문용어에서 확인된다.

■ -제20 - 제도

과거제-과거제도, 군현제-군현제도, 군진제-군진제도, 봉건제-봉건제도, 봉수제-봉수제도, 부병제-부병제도, 정전제-정전제도, 헌병경찰제-헌병경찰제도, 호포제-호포제도

<표 26> 접사에 의한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대응쌍

남측의 전문용어에서 접사 ‘-제(制)20’는 활발한 생산성을 보인다. 그리고 파생의 방법으로 전문용어들을 형성하는데 모두 ‘제도’의 의미를 덧붙인다. 한편 북측 전문용어들은 ‘-제’에 대응하는 용어로 ‘제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위 표와 같이 남측의 용어와 북측의 용어는 일관된 체계를 이룬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서 이

러한 대응쌍들은 합의에 의해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사에 의한 대응쌍들은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남측과 북측은 각각의 역사 지식 체계에 부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개념을 비슷한 용어로 대체하여 나타낼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식 구조의 체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어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

3.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의미 유형

3.1. 의미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의미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 내재되어 있으며, 언어 형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거나 유연적으로 관계 맺어진 언어 형식에 의존한다.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기 전 생각의 단위로 규정되는 것은 ‘개념(概念, concept)’이며, 이것은 동일 속성을 가진 대상들로부터 일반화된 관념으로 정의된다(김봉주 1988: 26). 개념은 언어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언어 형식의 ‘의미(意味, meaning)’로 간주될 수 있다.

남북측의 용어를 의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남북측 용어의 의미가 다른 언어 형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남과 북 각각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체제와 조직 속에서 누적적으로 체화된 경험을 통해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이되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만, 경험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조직이나 체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남북측의 용어가 의미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용어는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일반 용어와 전문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전문용어란 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의된다. 조은경(2000: 11)에서는 전문용어가 특정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역사라는 학문에 적용하면 역사 용어는 역사라는 학문적 영역에 관련되어 역사 서술 텍스트를 구성하는 전문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 전달의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 용어이며,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의 체계적인 분류나 성격을 특정한 역사 용어로 개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용어는 남북측의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서술을 위해 역사 용어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역사 용어는 다른 분야와 달리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첫째, 역사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 역사 용어들을 고찰해 보면 역사적 사건, 지명, 인물, 정책, 제도, 문화·예술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대해 기술할 때에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선조, 일본, 명, 환산도 대첩, 이순신’ 등의 역사 용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며, 이 용어들의 개념 및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그 텍스트의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또한, 역사 용어의 상당수는 일상적인 용어에도 자주 등장하는 상식적 수준의 것들도 많다. 계급, 신분, 제도 등의 용어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둘째, 역사 용어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보다 추상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역사 용어는 구체적 수준의 용어에서부터 높은 추상성을 가진 용어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으며, 역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가변적이다. 역사적 개념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새로운 용례가 첨가되어 그 의미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 개념이 지칭하는 의미와 범위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 용어는 역사가의 해석, 자료의 성질, 사회적 경향, 시간 등 역사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뚜렷한 법칙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어렵게 만들거나 왜곡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남북측 역사 용어를 통합할 때에는 자료나 사건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파악해야 하며,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사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역사적 성격 및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역사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내지 의미도 크게 달라진다.

셋째, 역사 용어는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달리 역사 용어는 넓은 범위에 걸치는 복합적인 의미와 내용을 함축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 임진왜란 등의 단어들은 그 정의에 관해 역사가들 사이에 충분히 합의된 개념들이 아니다(이문기, 2005: 8). 이러한 문제는 역사 용어가 역사가의 가치 판단에 입각한 해석적·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용어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이해하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이문기, 2005: 8).

이러한 역사 용어의 특징들 때문에 역사 용어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역사 용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대상도 넓고 추상적이며 가변적이기 때문에 역사 용어를 규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측 역사 용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측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3.2. 의미 유형의 실제

역사 분야 전문용어는 ‘인명’, ‘문화재명’, ‘유적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에서도 남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절에서는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특징이 두드러진 유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역사적 인물 및 지명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용어는 ‘박영효, 신돌석, 안중근’처럼 남북측이 같거나, ‘양기탁-량기탁, 유관순-류관순, 이성계-리성계’처럼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를 보이거나, 남북측이 서로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남북측이 동일하게 쓰는 인물명은 다음과 같다.

- (37) 강감찬, 강수, 강희안, 견훤, 경대승, 경순왕, 경애왕, 계백, 계월향, 고건무, 고국양왕, 고국원왕, 고국천왕, 고연수, 고종, 고주몽, 공민왕, 공양왕, 광개우, 광해군, 구진천, 궁예, 근초고왕, 기정진, 김개남, 김평필, 김구, 김규식, 김부식, 김사미, 김생, 김시민, 김시습, 김옥균, 김유신, 김윤식, 김윤후, 김응서, 김일성,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조순, 김중서, 김종직, 김좌진, 김춘추, 김통정, 김현창, 김홍도, 김홍집, 남궁억, 남이, 눌지왕, 단군, 단군왕검, 단종, 당정, 당태종, 태도수, 태조영, 덕래, 도선, 도침, 동명왕, 동성왕, 동천왕, 마의태

자, 만적, 명림답부, 묘광, 묘청, 문익점, 미천왕, 민중식, 밀우, 박규수, 박연, 박영효, 박위, 박은식, 박정양, 박제가, 박제상, 박지원, 박혁거세, 방정환, 배중손, 백결선생, 법흥왕, 보장왕, 복신, 비류, 비류수, 사마광, 서거정, 서경덕, 서희, 석가모니, 선덕왕, 선왕, 선종, 설총, 성덕왕, 성삼문, 성왕, 성현, 세종, 소매암, 소서노, 소손녕, 소정방, 술거, 송상현, 수양제, 순종, 시조왕, 신검, 신경준, 신돈, 신돌석, 신립, 신무왕, 신사임당, 신숙주, 신승겸, 신윤복, 신채호, 실성왕, 심정, 안건, 안승, 안중근, 안중식, 안창호, 안향, 양규, 양만춘, 양태사, 어윤중, 연개소문, 영류왕, 영조, 오경석, 온달, 왕건, 왕산악, 왕인, 왕효렴, 우거왕, 우륵, 우왕, 우중문, 원종, 원종과애노, 원측, 원효, 율승, 유구, 유길준, 윤관, 을두지, 을지문덕, 을파소, 의상, 의자왕, 인종, 일연, 장문휴, 장보고, 장수왕, 장영실, 장인환, 장지연, 장헌세자, 전명운, 전봉준, 진호, 정남, 정도전, 정몽주, 정문부, 정사도, 정선, 정약용, 정여립, 정인홍, 정조, 정중부, 정지상, 정철, 조광조, 조병갑, 조준, 조현, 주몽, 주시경, 지식영, 지주, 철종, 최무선, 최시형, 최영, 최우, 최익현, 최자, 최제우, 최충헌, 최치원, 충선왕, 평강공주, 한무제, 한백겸, 해모수, 허균, 허준, 현종, 혜자, 혜초, 흥경래, 흥대용, 흥범도, 흥영식, 흥의장군, 환웅, 흥덕왕, 흥수

다음으로 남측과 북측이 어문 규범의 차이를 보이는 인명은 다음과 같다.

- (38) 가쓰라-가쓰라,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도미히데요시, 도쿠가와이에야스-도꾸가와,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 칭기즈칸-칭기스한, 테프트-타프트
- (39) 권율-권률, 나운규-라운규, 무령왕-무녕왕, 안용복-안룡복, 양기탁-량기탁, 양현수-량현수, 유관순-류관순, 유득공-류득공, 유성룡-류성룡, 유인석-류린석, 유향-류향, 유형원-류형원, 유흥기-류흥기, 이규경-리규경, 이규보-리규보, 이덕무-리덕무, 이동휘-리동휘, 이문진-리문진, 이방원-리방원, 이범윤-리범윤, 이상설-리상설, 이상재-리상재, 이상좌-리상좌, 이상화-리상화, 이색-리색, 이성계-리성계, 이수광-리수광, 이순신-리순신, 이승훈-리승훈, 이시애-리시애, 이완용-리완용, 이원익-리원익, 이의민-리의민, 이의방-리의방, 이이-리이, 이익-리익, 이인로-리인로, 이인영-리린영, 이자겸-리자겸, 이자성-리자성, 이제마-리제마, 이제현-리제현, 이종무-리종무, 이준-리준, 이중

환-리중환, 이항로-리항로, 임격정-림격정, 임병찬-림병찬, 정인지-정린지, 진성여왕-진성녀왕, 허난설현-허란설현, 홍난파-홍란파

(38)은 외래어 표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용어이고, (39)는 두음 법칙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이다. 아래 (40)은 남북측이 다른 형태의 인명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40)	광개토대왕-광개토왕	진시황-진시황제
	김수로왕-김수로	사도세자-장헌세자
	유리왕-유리니사금	명성황후-민비
	온조(왕)-온조	의종-의종왕

(40)에서 보면, 북측은 ‘왕’이라는 표현을 잘 붙이지 않는다. 북측은 전체적으로 남측보다 감정적인 표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궁예를 ‘일목대왕, 외눈깔이대왕’이라고 표현하거나, 이토히로부미(이등박문)에 ‘놈’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명을 살펴보면, ‘고려, 길림성, 안압지, 판문점, 비류수, 간도, 개성, 경성, 독도, 동모산, 몽골, 서라벌, 웅진, 일본, 조선, 한양’ 등은 남북측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귀주성(남)-구주성(북), 독일-도이칠란드, 러시아-로씨야, 인도-인디아, 하얼빈-할빈’ 등은 어문 규범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이다.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당-당나라	삼국-세나라
	명-명나라	삼국시대-세나라시기
	송-송나라	후삼국시대-후삼국시기
	위-위나라	
	청-청나라	
	수-수나라	

(41)에서처럼 북측은 ‘나라’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다. 북측은 한자어 ‘삼국(三國)’을 고유어 ‘세나라’로 순화하여 고유어와 한자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3.2.2. 역사적 사물

남북 역사 용어는 도구, 무덤, 탑, 불상, 유적지 등의 유물 및 유적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차이를 보였다.³³⁾ 역사 분야에는 과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던 도구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중에 ‘막새, 가지창, 갈돌, 격지, 골각기, 돌날, 돌낫, 돌도끼, 돌망치, 돌보습, 돌삽, 돌창, 돌칼, 밀개, 뼈바늘, 빨랭이, 쇠뇌, 외날찌개, 자격루, 주먹도끼, 청동거울, 청동방울, 가락바퀴, 그물추, 굽개, 석기, 청동도끼’ 등은 남북측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남북측이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 용어를 제시한 것이다.

(42)	민무늬토기-민그릇	팽이형토기-팽이그릇
	덧무늬 토기-덧무늬그릇	화분형토기-화분형그릇
	구멍무늬토기-구멍줄무늬그릇	붉은간토기-붉은간그릇
	빗살무늬토기-새김무늬그릇	

남측에서는 그릇 관련 용어들을 ‘토기’로 지칭하고 있다. 대부분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의 토기들로서, 무늬에 따라 ‘민무늬, 덧무늬, 구멍무늬, 빗살무늬’ 등으로 구분하고, 형태에 따라서 ‘팽이(형), 화분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늬나 형태는 민족과 시대의 특색을 보여 준다. 남측의 ‘토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북측에서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남측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토기(土器)’를 쓰고 있는 반면, 북측은 고유어 ‘그릇’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가. 잔석기-세석기	나. 돌화살촉-돌활촉
------	------------	-------------

33) 유적 중에서 남북측이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용어는 ‘경복궁, 경주석빙고, 경회루, 광화문, 남한산성, 대동문, 대성산성, 대화궁, 동명왕릉, 만월대, 문묘, 선죽교, 송례문, 안학궁, 웅진성, 정족산성, 창경원, 창덕궁, 천리장성, 첨성대, 평양성, 흥경각, 개심사, 금산사, 대웅전, 미륵사, 원각사, 월정사, 개모성, 무위영, 백운동서원, 서원, 선조성, 성균관, 안시성, 영은문, 왕검성, 위례성, 옥영공원, 장수산성, 정동행성, 제종원, 종묘, 길림성, 안압지, 판문점, 천문대, 개성성관관, 거꾸집, 공민왕릉, 광범사, 굴포리유적, 궁산유적, 남경유적, 단군릉, 몽촌토성, 반움집, 백암성, 부여성, 순장무덤, 왕건왕릉, 정릉사, 정혜공주묘, 포석정’ 등이다.

펜석기-타제석기
간석기-마제석기

청동화살촉-청동활촉

(44) 세형동검-좁은놋단검
비파형동검-비파형단검

(45) 간접떼기-대고떼기
모루떼기-때려깨기

(43가)는 돌로 만든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나타낸다. 남북측 모두 '석기(石器)'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통 남측보다 북측에서 고유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석기의 유형에 따른 용어들을 살펴보면 '잔석기, 펜석기, 간석기'처럼 남측이 고유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나)의 용어는 화살 끝에 박힌 뾰족한 쇠를 나타내는데, 남측은 '화살촉', 북측은 '활촉'으로 사용하고 있다.

(44)에서, 칼을 나타낼 때에 남측은 재료(동검), 북측은 크기(단검)에 초점을 두고 있다. (45)는 돌을 떼 내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단단한 뿔이나 뼈 따위의 췌기를 이용하여 격지 따위를 떼 내는 방법을 남측은 '간접떼기', 북측은 '대고떼기'로 사용하고 있다. '모루떼기'는 돌을 모룻돌에 부딪쳐서 격지를 떼어 내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를 북측에서는 '때려떼기'로 지칭하고 있다.

남북측 모두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돌칼-돌칼, 돌날-돌날, 돌삽-돌삽, 돌도끼-돌도끼, 갈돌-갈돌, 가락바퀴-가락바퀴' 등처럼 동일 형태인 경우가 많았다. 북측은 남측보다 고유어를 선호하고, 남측은 '토기, 동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측보다 도구의 재료 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이 죽으면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게 되고 그 방식이나 풍습도 시대마다 달라진다.

(46) 고인돌-고인돌무덤
탁자식고인돌-키큰고인돌
바둑판식고인돌-침촌형고인돌
관산리고인돌-관산리제일호고인돌무덤

고인돌은 큰 돌을 몇 개 둘러 세우고 그 위에 넓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이다.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인돌과 관련된 용어는 남북 모두 일관성이 적은 편이다. 북측에서는 '고인돌'과 '고인돌무덤'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가. 석총-돌무덤	나. 돌널무덤-돌관무덤
무용총-총무덤	돌덧널무덤-돌곽무덤
각저총-씨름무덤	돌무지무덤-돌각담무덤
금관총-금관무덤	두방무덤-두칸무덤
삼실총-세칸무덤	외방무덤-외칸무덤
장군총-장군무덤	
천마총-천마무덤	
부부총-부부무덤	
금령총-금방울무덤	

다. 강서고분-강서세무덤
고구려고분-고구려옛무덤
고구려고분군-고구려무덤떼

(47)에서 보면, 남측은 '무덤'을 '총, 무덤, 고분'으로 혼용하고 있고, 북측은 '무덤'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47가)에서 남측은 '무덤'을 '총'으로 표현하고 대부분 한자어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7나)는 남측과 북측 모두 '무덤'으로 사용한 용어들이다. (47다)는 남측은 '고분'으로, 북측은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이처럼 '무덤' 관련 용어는 북측은 '무덤'으로 통일하고 있는 반면, 남측은 '무덤, 총, 고분'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관련 유물 중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탑, 불상이다.

(48) 가. 경주분황사모전석탑-분황사탑
경주불국사다보탑-다보탑
경주황룡사구층목탑-황룡사구층탑

나. 개성경천사지십층석탑-경천사대리석다층탑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정림사사각오층탑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원각사탑

다. 불국사3층석탑-석가탑
현화사7층석탑-개성현화사칠층탑
황룡사9층목탑-황룡사사각구층탑
정릉사8각7층석탑-정릉사팔각칠층탑
월정사8각9층석탑-평창월정사팔각구층탑

(48)은 절에 있는 탑을 나타낸 것이다. (48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측은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처럼 ‘지역+절+모양+재료+탑’의 정보들이 용어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북측은 남측보다 간략하게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48나)에 제시된 용어와 같이, 절터에 남아 있는 탑을 남측에서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처럼 ‘절터’라는 정보를 용어에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북측은 절터라는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측에서도 (48다)처럼 ‘지역’ 정보 없이 ‘불국사 3층 석탑’으로 쓰기도 한다.

이처럼 탑은 일정한 조어적 형식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남측에서는 먼저 ‘지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탑이 존재하고 있는 절의 이름이 붙는다. 이때 절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면 절의 이름이 그대로 붙고, 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래 탑을 소유하고 있었던 절의 이름에 ‘지(地)’를 붙인다. 불국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절이고, 정림사는 존재하지 않는 절인 것이다. 다음으로 모양 관련 정보가 추가되는데, 보통 탑의 층수를 세어 이름을 붙인다. 그다음으로 탑을 만든 재료의 이름을 붙인다.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탑, 돌로 만들었으면 석탑, 벽돌로 만들었으면 전탑,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쌓아 올린 탑은 모전 석탑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어적 형식에서 벗어난 용어도 있다.³⁵⁾ 다보탑이 그 대표적인

34)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불교는 주로 흡수의 탑을 짓는다. 현존하는 탑 중 예외적으로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과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두 탑만 짝수 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은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탑이기 때문이다.

35) 남측의 문화재명은 문화재청의 고시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가장 최근에 변경하여 고시한 명칭이 ‘정식 명칭’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식 명칭 바로 이전의 명칭을 ‘진 이름’이라고 제시한다. 정식 명칭과 진 이름 외에도 동일한 문화재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식 명칭은 ‘경주 태종 무열왕릉비’인데

예인데 다보탑처럼 특별한 전설이나 신화에서 이름을 따오거나, 원래 탑이 조성될 때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³⁶⁾

이처럼 남측은 ‘경주 불국사(남)-불국사(북), 경주 첨성대-첨성대,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경주 옥산서원-옥산서원, 고양 행주산성-행주산성’처럼 지역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⁷⁾

- (49) 경기연천전곡리유적-전곡리유적
황해봉산지탑리유적-지탑리유적
충남공주석장리유적-충청남도공주시장기면석장리유적
부산영도동삼동유적-부산시동삼동유적
평양상원검은모루동굴유적-검은모루유적

(49)는 유적지와 관련된 용어이다. 남측은 행정구역명의 순서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북측은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불상의 경우, 남북측이 동일한 형태인 용어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AB형에서 나타난 불상 용어는 다음과 같다.

- (50) 금동불-금동불상
경주석굴암석굴본존불-석굴암석가여래상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론산관촉사돌부처
서산마애여래삼존상-서산마애삼존불

남측에서 불상 용어는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 절의 이름이 붙는다. 이때 절이 현

전 이름은 ‘신라 태종 무열왕릉비’이며, 그 외에 ‘무열왕릉비’, ‘태종 무열왕릉비’도 사용된다.

36) 다보탑은 법화경(法華經)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이 경을 설교할 때 다보여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셔둔 탑이 땅 밑에서 솟아나오고, 그 탑 속에서 소리를 내어 부처의 설법을 찬탄하고 증명하였다”, 불국사 3층 석탑의 또 다른 이름인 석가탑도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무열탑은 아사달 신화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임영태 2017: 482).

37) ‘경주 옥산서원-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도산사원, 영주 소수서원-소수서원’ 등 서원은 남북측 모두 표기 방식이 일관성이 있다. ‘성’도 ‘공주 공산성-공산성, 고양 행주산성-행주산성, 김포 문수산성-문수산성, 부여 부소산성-부소산성, 서울 풍납동 토성-풍납동토성’ 등처럼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다.

제에도 존재하고 있으면 절의 이름이 그대로 붙고,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처럼 절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불상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며 지역의 이름도 불명확할 때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진 재료의 이름을 붙인다. 금동으로 만들어지면 금동, 돌로 만들어진 입체 불상에는 석조, 나무로 만들어진 입체 불상에는 목조, 바위에 붙어 있는 불상에는 마애의 이름을 붙인다. 다음으로 부처의 이름을 붙인다. 석가모니 부처는 석가 또는 여래의 이름을 붙이고, 아미타 부처, 비로나자 부처, 미륵보살 등의 이름을 붙인다. ‘불(佛)’이라는 단어는 부처를 줄인 말이다. 다음으로 부처의 자세나 모습을 나타낸다. 서 있으면 입상, 앉아 있으면 좌상, 반쯤 가부좌를 틀고 있는 반가 등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정식 명칭이 아닌 ‘전 용어’들도 사전에 다양하게 등재되어 쓰이고 있다.

3.2.3. 역사적 사건

역사 분야에는 역사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남과 북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과 북이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의 시간과 서로 다른 체제 및 이념에서 오는 역사 인식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 (51) 가. 헤이그특사사건-헤그밀사사건
명성황후시해사건-민비살해사건
오페르트도굴사건-남연군무덤도굴사건

- 나. 여수순천1019사건-려수군인폭동
제너럴서면호사건-서면호격멸

(51)에 제시된 용어들은 남측에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헤이그특사사건’에서 ‘특사’를 북측에서는 ‘밀사’로 표현하고 있다. ‘명성황후시해사건’을 북측에서는 ‘민비살해사건’으로 ‘명성황후’를 낮추어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해’와 ‘살해’라는 용어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오페르트도굴사건’을 북측은 ‘남연군무덤도굴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남측은 도굴한 인물을 제시하고 북측

은 무덤의 주인인 대원군의 부(父) 남연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52나)에서 ‘여수순천1019사건’을 북측에서는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너럴서면호사건’을 북측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52) 가. 물산장려운동-물산장려운동
애국계몽운동-애국문화운동
민족운동-부르조아민족운동
자유민권운동-부르조아민권운동

- 나. 31운동-삼일인민봉기
518민주화운동-광주인민봉기

- 다. 의병운동-의병투쟁
반미운동-반미구국투쟁
610만세운동-륙십만세시위투쟁
고구려부흥운동-고구려고국회복투쟁

- 라. 광주학생항일운동-광주학생사건
동학농민운동-갑오농민전쟁
묘청의서경천도운동-묘청의정변

(52)에서는 남측에서 ‘운동’의 개념으로 바라본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운동, 봉기, 투쟁, 전쟁, 정변’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53) 가. 왕규의난-왕규의반란 | 나. 만적의난-만적의폭동 |
| 김현창의난-김현창의반란 | 망이망소이의난-망이농민폭동 |
| 이시애의난-리시애의반란 | 황건적의난-황건농민폭동 |
| 이자겸의난-리자겸의반란 | 황소의난-황소농민폭동 |
| 조위충의난-조위충의반란 | 임오군란-임오군인폭동 |

- 다. 이시애의난-함경도농민전쟁

홍경래의난-평안도농민전쟁
 임진왜란-임진조국전쟁
 김사미와효심의난-경상도농민군의투쟁

귀주대첩-구주성싸움/구주대승리
 진주성대첩-진주대첩/진주대승리
 한산도대첩-한산도앞바다싸움/한산대승리/한산대첩

(53)에서는 남측이 ‘난(난리)’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반란, 폭동,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들을 지배 계층에 반발한 사건, 집단적 폭력을 일으킨 행위, 무력적인 싸움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 | |
|---------------------|-----------------|
| (54) 농민봉기-농민폭동 | 임술농민봉기-진주농민폭동 |
| 진주농민봉기-진주농민폭동 | 고부농민봉기-고부농민폭동 |
| (55) 무장투쟁-무장활동 | 부마민주항쟁-시월민주항쟁 |
| 무장독립투쟁-독립군운동 | 삼별초의항쟁-삼별초군의투쟁 |
| 항일무장투쟁-반일무장항쟁 | 암태도소작쟁의-암태도농민투쟁 |
| (56) 가. 나당전쟁-신라·당전쟁 | 나. 노랑해전-로랑대첩 |
| 6·25전쟁-조국해방전쟁 | 노랑해전-로랑바다싸움 |

(54)는 남측에서 ‘봉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북측에서는 ‘폭동’으로 보고 있으며, (55)는 남측에서 ‘싸움/다툼’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56가)는 남북측 모두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제시한 것이고, (56나)는 남측에서 ‘해전’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에서 ‘대첩,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
| (57) 가. 고창전투-병산전투 | 나.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
| 봉오동전투-봉오골전투 | 왕검성전투-왕검성싸움 |
| 평양성전투-평양성해방전투 | 천문령전투-천문령싸움 |
| 부산포전투-부산대첩 | |

- (58) 살수대첩-살수싸움/살수에서의대승리
 명량대첩-명량바다싸움/명량대승리

(57)에서는 남측이 ‘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건들을 북측이 동일하게 ‘전투’로 표현하거나 ‘싸움’으로 순화하고 있는 경우이다. (58)은 남측에서 크게 이긴 사건임을 나타내는 ‘대첩(大捷)’을 북측에서는 고유어 ‘싸움’으로 표현하거나, 쉬운 말로 바꾸어 ‘대승리(大勝利)’로 표현하고 있다.

- | | |
|-------------------|--------------|
| (59) 가. 기해박해-기해사옥 | 나. 요동정벌-료동원정 |
| 신유박해-신유사옥 | 쓰시마섬토벌-쓰시마원정 |
| 병인박해-병인사옥 | |

(59가)는 남측이 ‘박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로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측은 ‘중대한 범죄를 다스린 사건’인 ‘사옥’으로 규정함으로써 무게를 더하고 있다. (59나)에서는 남측이 ‘정벌, 토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북측은 먼 곳으로 싸우러 나간다는 의미의 ‘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역사적 사건 관련 용어를 살펴본 결과, 역사적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사건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사건의 성격’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일으킨 ‘인물+사건의 성격’이다.³⁸⁾ 남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북측은 투쟁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교과서 내용에서도 북측이 남측보다 역사적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남측에서 ‘난’ 또는 ‘운동’으로 표현되는 사건들을 북측에서는 ‘투쟁, 전쟁, 폭동’ 등으로 부르고 있다.⁴⁰⁾

38) 최근 들어 피지배 계층의 저항운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시도가 많으나 아직도 개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당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용어가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윤경오 1993: 28)

39) 지배층에 대한 반란은 농민들의 투쟁이며 인민들의 전쟁으로서 역사 발전의 필연 과정으로 보인다. 즉, 북측은 역사의 동인을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두고 있는 것이다.

40) ‘폭동’이라는 말은 남측에서는 그 사건의 의의를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되지만 인민 대중의 투쟁을 역사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북측에서는 그 사건을 높이 평가할 때 사용된다(윤세철 1993: 220).

3.2.4. 역사적 제도

역사적 제도 중에 남북측이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는 용어는 ‘전매제도, 신분제도, 관료제도, 보통경찰제도, 징병제, 골품제, 기인제도, 실점수세제, 전세, 관수관급제, 금납제, 군주제, 대한민국제, 일부일처제, 지주전호제, 토지신고제’ 등의 제도, ‘경중법, 모내기법, 지조법, 함영법, 관법, 상감법, 수미법, 영정법, 오가작통법, 과전법, 균역법, 노비안검법, 대동법, 관심법, 도조법, 시비법, 직전법, 진대법, 치안유지법, 타조법, 호포법, 종두법, 노비종모법, 사창법, 사회주의헌법, 호포법’ 등의 법, ‘민족말살정책, 쇄국정책, 개화정책’ 등의 정책이 있다.

남북측이 차이를 보이는 용어 중에 특징적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0) 가. 과거제-과거제도	나. 관등제도-벼슬등급제도
군현제-군현제도	상수리제도-상수제도
정전제-정전제도	관료공복제도-공복제도
균진제-균진제도	16관등제도-십륙벼슬등급제도
봉건제-봉건제도	
봉수제-봉수제도	다. 환곡제도-환정
부병제-부병제도	결부제-결부법
호포제-호포제도	독서삼품과-독서삼품제
헌병경찰제-헌병경찰제도	진관체제-진관제도

(60가)에서 보면, 남측은 ‘제(1음절)’로, 북측은 ‘제도(2음절)’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60나)는 남북측 모두 ‘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명칭이 다른 용어들이며, (60다)는 제도와 관련하여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제시한 것이다.

3.3. 통합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남북 역사 분야 용어를 의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남북의 용어는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데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남과 북이 반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사회 제도 속에 살아오면

서 역사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역사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국가관, 민족사의 방향, 이념 및 체제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남북의 이러한 차이는 학술 및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제 교류나 미래에 도래할 통일 시대의 상호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측의 역사적 공통성 및 동질성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 바로 용어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3.3.1. 역사 용어 통합 시 고려할 점

언어란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반영하기 때문에 남북 분단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또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언어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씩 논의되어야 하며,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구되어 나아가야 한다.

남북측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의미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도록 용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측은 분단 이후 냉전적 구조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심화와 이질화 현상이 나타났다. 남북측 역사 용어는 양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적 특징에 따라 양분 가능할 정도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남측과 달리 북측은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혁명력사와 혁명 활동 등을 배우고, 공산주의 정치 이념에 근거해서 구성된 역사를 익혔다. 이처럼 역사 분야는 현존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 체제를 반영한다. 따라서 역사 분야는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도록 역사 용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와 범위가 가변적이다. 또한 역사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역사가의 해석, 자료의 성질, 사회상, 시간 등 역사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여수순천1019사건’을 북측에서는 ‘려수군인폭동’으로 규정하고, ‘31운동, 518민주화운동’을 북측에서는 ‘삼일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로 규정하고 있다. 남측의 ‘의병운동, 610만세운동’을 북측은 ‘의병투쟁, 육십만세시위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왕규의난-왕규의반란, 만적의난-만적의폭동, 이시애의난-함경도농민전쟁, 농민봉기-농민폭동, 무장투쟁-무장활동,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요동정벌-료동원정’ 등 남측과 북측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역사 용어를 통합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도록 용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내포와 외연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용어로 통합해야 한다. 통합된 용어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속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 또한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측의 ‘여수순천십일구사건’을 북측에서는 ‘려수군인폭동’으로 규정하고, 남측의 ‘오페르트도굴사건’을 북측에서는 ‘남연군무덤도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측의 ‘명성황후시해사건’을 북측은 ‘민비살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측과 북측이 달리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내포된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통합해야 외연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용어를 통합할 때 가급적이면 개념의 인지도가 높은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의 개념을 잘 파악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언중들에게 생소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어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명료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어휘 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용어로 통합해야 한다. 실질적인 생명력을 지닌 어휘는 모두 제 나름대로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다른 용어와 차별성을 지닌다. 어휘가 실질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제 나름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용어로 선정되는 어휘는 어망 내지는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이 정확해서 다른 것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용어는 자신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와 차별적인 개념을 지녀야 한다. 또한 역사 용어는 언어의 형성이나 속어의 형성 등이 가능하여 모든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어야 하고, 반의 관계, 상하의어 관계 등에서도 만족스럽게 대치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기’는 제작 방식에 따라 ‘간토기’, 동물 모양에 따라 ‘짐승토기’, 무늬의 유무에 따라 ‘민무늬토기’ 등이 있다. ‘간토기’의 하위어로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등이 있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그 어휘망 속에서 체계를 이루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의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의미를 고려하여 용어를 선정할 때에도 용어의 조어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남측과 북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뽕죽꺾개기’와 ‘뽕죽꺾기’는 모두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자연스럽게 지 못한 조어법을 보여 준다. 언어가 인간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그 생명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의 문법적인 기능과 다를 경우 아무리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더라도 그 사용이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개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그 단어가 사용되는 화용론적 의미나 문법적인 의미 내지는 기능을 동시에 기억한다.

3.3.2. 역사 용어 통합의 의의

역사 분야가 언어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의 과거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후손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이다. 남북측 역사 용어의 통합은 남북측의 역사 인식에 대한 통합을 지향하며, 이는 남북측의 교육 체계 및 사회 제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합의 개념을 사회·문화적인 통합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통합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평화적 변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과 행동 양식 및 제도의 발전을 일컫는다(김태원 외 1991). 특히 역사 용어 통합은 남북측의 역사 통일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남북측 주민들의 가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 설정에 토대가 된다.

용어를 통합할 때에는 언어 사용자를 고려해야 하며, 더불어 언어 형태에 의미적인 측면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용어가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용어를 통합할 때에도 언어 사용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 방안은 남북 언어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용이성과 간편성, 개념 및 가치의 중립성, 의미와 형식의 정확성 및 호응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법성, 윤리·미학적’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일의성, 친숙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의 위계 기준, 마지막으로 용어의 체계를 위해 ‘체계성’이라는 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남북측의 용어 통합은 수월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친 역사와 교육 체계의 이질성으로부터 오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질적 요소를 단기간에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된 사회에서 남북측이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용어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한민족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측 역사 용어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의 용어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측 역사 용어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남북측의 용어 통합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호간의 화합과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통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도 중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남북 역사 용어의 통합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은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다.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남북의 언어 이질성이다. 영토만 통일시켜 놓은 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토의 통일마저 위협받게 된다. 남북측의 이질화된 언어 문제를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분단 이후 생겨난 차이보다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질성이다. 이러한 남북 언어의 공통점은 언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남북측 용어 통합은 남북이 이질성을 회복하고 동질성을 이루어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V.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문용어 정책의 방향

1. 연구의 성과

본 연구는 남과 북의 역사 분야 전문용어를 추출하고 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한 내용과 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발주처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 대조 및 통합 방안 제시(2,000항목 이상)
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다.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통합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라.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1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 분야의 범위를 한정된 후, 범위에 맞는 역사 용어를 추출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나)의 목표는 남북의 전문용어를 유형별로 나누고, 통합 알고리즘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다)의 자문회의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립을 위해 준비한다.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은 연구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전문용어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한다. (1라)는 본 연구의 결과물을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함으로써 그간의 연구 현황을 알리고,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본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제안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성과	
(1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분야의 범위 설정 ·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 및 목록화 ·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및 통합 제안

(1나')	· 이전 사업들의 지침과 연계성 마련 · 역사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통합 알고리즘 설정 ·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1다')	·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 개최 · 연구진의 연구 내용 발표와 토론을 위한 워크숍 개최
(1라')	· 이전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정리 ·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표 27> 2018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성과

본 연구진에서는 (1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우선 (1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 분야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역사 분야의 다양한 범주를 제한하고자 역사 교과서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사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남과 북의 역사 분야 교과서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2,049쌍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용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 남북의 용어를 대조하고 통합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1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 사업들에 적용되었던 통합 알고리즘을 분석하였고, 역사 분야에 맞는 통합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이전 사업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관성 기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정 단계를 추가하고 여기에 '체계성' 기준을 더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준을 적용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를 의미론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1다)의 목표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는 자문회의와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남북 분야', '역사 분야', '전문용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본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8월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1라)의 내용은 '제15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함으로써 달성되었다. 이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 역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의 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안

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과정은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2. 향후 전문용어 정책의 방향

이 V.2장은 2015년부터 진행된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문용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히고자 마련되었다. 본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전문용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 장에서 살펴본다. 우선 기존 전문용어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전문용어 조화'의 관점에서 전문용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ISO 860>의 방법론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의 상황에 적용하여 본다.

전문용어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개념과 개념 체계, 정의, 표현(형태)이 정비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는 전문용어의 표현(형태)에 집중해 온 국내의 경향에서 벗어나 전문용어 정비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2.1. 기존의 전문용어 정책

본론에 앞서,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조화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용어 정책은 대부분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현주(2017: 68-69)에서는 "국내에서는 전문용어 정비를 곧 표준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용어 정책 역시 표준화나 순화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전문용어 표준화의 방향이나 방법론도 크게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논의가 주는 시사점은 자못 크다. 특히 '전문용어 표준화'라는 용어가 가지는 '획일성, 단편성, 일방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⁴¹⁾

41) 여기서 획일성은 표준화의 결과로 획일화된 용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편성은 전문용어 정책, 그리고 전문용어의 정비라는 큰 틀에서 전문용어 표준화를 이해하기보다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천착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방성은 획일화된 표준화가 전문용어 사용자, 더 나아가 언어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획일성, 단편성, 일방성은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해석에 다양한 범위와 층위와 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전문용어 정비’라는 틀 안에서 ‘전문용어 표준화’를 논의한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조화’는 전문용어 표준화의 여러 단계 중 일부임을 인식한다.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표현인 전문용어 표준화를 언급하는 까닭은 아직까지 그 표현과 방법론이 일정 부분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국내의 상황과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가피한 언어 정책의 이질성, 그리고 교육적·문화적 차이는 전문용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다양한 어종으로 이루어진 우리 국어는 다양한 개념 변이(concept variation)와 함께 용어 변이(term variation)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이를 관리하고 언어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전문용어 표준화로 재정의한다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전문용어의 조화’는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2. 전문용어의 조화

‘조화(調和)’는 ‘서로 잘 어울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둘 이상의 것이 만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전문용어학에서의 ‘조화(harmonization)’ 역시 이것과 상통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그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세부적이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산하의 TC(Technical Committees) 37은 전문용어와 언어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규범 문건들을 발행하고 있다. 그중 전문용어 조화와 관련된 규범이 《ISO 860: 2007》이다. 이 규범의 제목은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로 전문용어에 관한 규범 중 개념과 용어의 조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⁴²⁾ 전문용어 조화와 관련한 이론과 방법론이 전무한 현재의 실정에서 《ISO 860》은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용어의 조화와 그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간행물로 볼 수 있다. 《ISO 860》에서는 전문용어의 개념 조화와 용어 조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³⁾

42) 이 외에도 《ISO 704: 2009》, 《ISO 1087-1》, 《ISO/IEC GUIDE 2》, 《ISO 10241》, 《ISO/TR 22134》 등에서 전문용어의 표준화, 조화, 정비(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다만 뒤의 두 규범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 규범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현주(2017: 71)를 참조할 수 있다.

43) 《ISO 860: 2007》에서는 개념 조화, 용어 조화 외에도 개념 체계 조화(concept system harmonization), 정의 조화(definition harmonization)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개념 조화, 개념 체계 조화, 정의 조화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조화의 프로세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일련의 개념 조화 과정에서 상호 보완

(2) 개념 조화(concept harmonization)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 문화적 또는 다른 차이를 가지는 둘 이상의 개념이나 공통점이 있는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

비고: 개념 조화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향상에 있다.

(3) 용어 조화(term harmonization)

다른 언어 또는 같은 언어 내에서 조화된 개념의 명칭을 선택하는 활동.

비고: 다른 언어 사이에서 조화된 용어는 대역어이고, 같은 언어에서 조화된 용어는 동의어 또는 변이형이다.

전문용어는 대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지칭(designation)하는 것으로 그 사용 환경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사용자가 전문용어 생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 전문가 집단, 기구,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전문용어의 개념이 동일하거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용어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차이를 보이는 환경에서 간극을 줄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전문용어의 조화’라고 말하며 그 세부적인 활동을 (2)와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은 동일한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의 예를 들어 보인 것이다.

(4) 경관02(京觀): “고구려 때에, 전사자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장사지내고, 전공(戰功)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합동 무덤.”

(5) 경관05(京觀): “고구려 때, 전공(戰功)을 기념하기 위하여 상대편 전사자(戰死者)의 유해(遺骸)를 한곳에 모으고 흙을 덮어 만든 큰 무덤.”

(6) 경관03(京觀): “봉건사회에서: 큰 구경거리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발휘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상대편 전사자들의 시체를 쌓아 놓고 그우에 흙을 높이 덮은 큰 무덤을 이르는 말.”

위의 예문 (4)와 (5), 그리고 (6)은 역사 분야의 ‘경관(京觀)’이라는 전문용어를 각각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그리고 《조선말대사전》에서 찾아 그 뜻을 적은 것이다.

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용어 조화의 과정이 뒤따른다.

우선 ‘경관’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자. 시기는 ‘고구려 때, 봉건 사회’이고, 대상은 ‘(상대편) 전사자’이다. 그리고 ‘합동 무덤, 큰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개념은 ‘무덤’이다. 즉 (4), (5), (6)을 고려했을 때, “고구려 때, 상대편 전사자의 무덤”이 ‘경관’의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4)의 내용만으로 개념을 생각하면 “고구려 때, 전사자의 무덤”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전사자’는 ‘아군 전사자와 적군 전사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미묘한 개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이 차이를 없애거나 줄여야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⁴⁴⁾

다음의 예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지만 다른 형태를 가진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예이다.

- (7) 《표준국어대사전》 뎨석기(-石器): “구석기 시대에, 돌을 깨서 만든 돌연장.”
- (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뎨석기(-石器):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돌을 깨뜨려서 형태를 다듬어 만든 도끼, 칼 등의 도구”
- (9) 《조선말대사전》 타제석기(打製石器): “원시시대에 돌을 깨뜨려서 만든 돌도구”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석기 시대(원시시대)에 돌을 깨서 만든 도구”라는 개념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로는 ‘뎨석기’와 ‘타제석기’가 있다. 용어 조화는 이 이형태들을 확인하고 해당 개념에 대응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은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지칭만을 허용하는 일대일 대응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형태를 배제한다. 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형태들을 선택한다면 일대다의 대응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념 조화와 용어 조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개념 조화와 용어 조화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각각의 활동이 별개의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ISO 860》에서는 개념 체계의 조화(concept system harmonization)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 조화 작업이 선결된 후에야 용어 조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용어 조화는 기본적인 개념이 동일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소개한다.

한편, 국내 전문용어 표준화의 흐름은 개념 조화 활동은 건너뛰고 용어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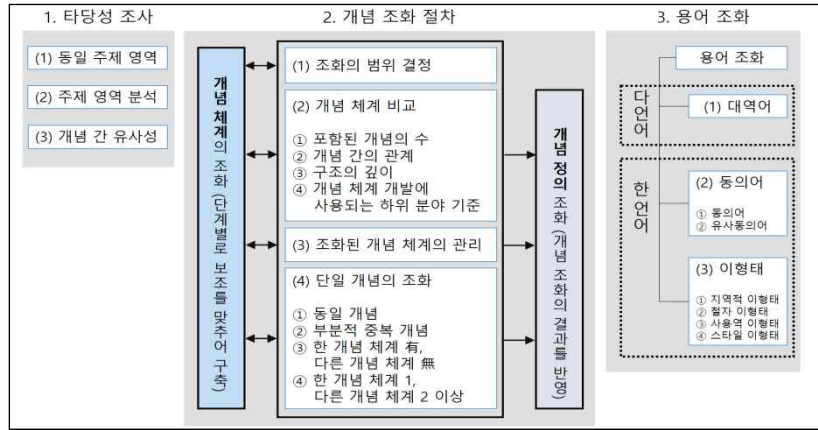
44) 엄밀히 따지자면, ‘경관’의 예는 ‘정의 조화’가 필요한 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가 종차(種差)를 적확하게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정의 조화’는 (5)와 (6) 같은 공인된 정의들을 바탕으로 (4), (5), (6)의 정의를 조정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활동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⁴⁵⁾ 전문용어 정비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일부인 ‘전문용어의 정비’ 사업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한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⁴⁶⁾ 이 두 사업은 전문용어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1998년부터 2006년의 9년 동안 15개 분야의 18만여 개의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8개의 분야에서 대략 77만 개 이상의 용어 목록을 구축하였다. 실로 방대한 분야의 엄청난 양의 용어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사업 모두 전문용어의 형식(form)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중복 용어의 표준화와 통일, 대역어 정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개념 조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방법론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고 용어 조화와 표준화에 대한 연구 성과만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물이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용어 조화를 통한 전문용어 표준화와 전문용어 정비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개념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전문용어 조화와 전문용어 표준화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2.3. 《ISO 860》에서의 조화 절차

《ISO 860》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화의 방법론을 다룬 거의 유일한 문서이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조화의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ISO 860》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용어의 조화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래는 《ISO 860》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만든 것이다.

45) 국내 전문용어 정책에 대한 특징과 흐름은 이현주(2017: 90-94)에 잘 정리되어 있다.
46) 이 두 사업의 성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김한샘(2008: 99-109)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6] 《ISO 860》의 전문용어 조화 절차

‘전문용어의 조화’는 ‘개념 조화’, ‘개념 체계 조화’, ‘정의 조화’ 그리고 ‘용어 조화’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개념 조화’와 ‘개념 체계 조화’는 독립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조화된 개념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큰 틀에서의 개념 조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그림의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화된 개념 체계를 수립한 이후에는 용어 조화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 그림에서는 3단계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만 용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ISO 860》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문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각각 ‘범위’와 ‘참조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범위’는 이 문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한 것이고, ‘참조 규범’은 이 문서에서 다루는 ISO의 다른 규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문서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밝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ISO 1087-1》에서 정한 정의를 사용한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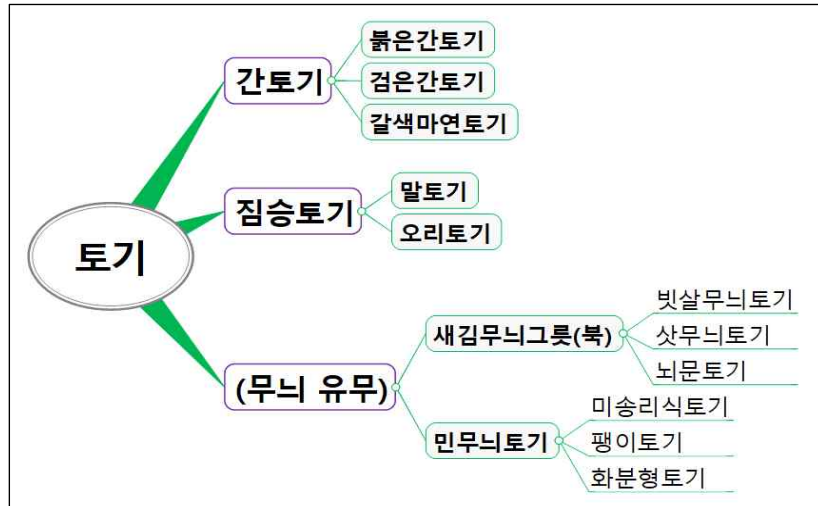
4장부터 6장까지는 각각 ‘개념과 개념 체계의 조화’, ‘개념 정의의 조화’, ‘용어 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밝혔듯이 [그림 16]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절차를 ‘붉은간토기’, ‘붉은간그릇’의 예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7) 《ISO 1087-1》은 ISO의 규범에서 사용하는 여러 어휘들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일종의 ‘용어집’이다.

- (10) 《표준국어대사전》 『고적』 붉은간토기: 그릇의 ㉠겉에 ㉡붉은 칠을 바르고 ㉢문질러 닦아서 붉고 반들반들하게 만든 ㉣토기(土器).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 (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고』 붉은간토기: ㉠표면에 ㉡붉은 칠을 하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구운 ㉤토기.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함경북도 웅기 송평동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다.
- (12) 《조선말대사전》 『고고』 붉은간그릇: ㉠청동기시대에, ㉡겉을 번들번들하게 ㉢갈고 ㉣붉은색을 칠한 ㉤질그릇.

[그림 16]에서와 같이, 전문용어 조화의 첫 시작은 조화하고자 하는 개념이 동일한 주제 영역(subject field)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의 (10), (11), (12)는 사전의 전문어 영역 구분에 따라 ‘고적’과 ‘고고’로 나뉘지만, 넓은 의미에서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 영역으로 보고 조화를 진행한다. 다음의 ‘1-(2) 주제 영역 분석’에서는 주제 영역을 분석하는데, 해당 주제 영역의 ‘첫째, 전문용어의 부분 집합이 이미 조화되어 있거나, 둘째, 주제 영역이 잘 확립되어 있어 안정적이거나, 셋째, 이미 표준화의 예’가 있다면 조화가 좀 더 쉽다고 기술하고 있다. ‘1-(3) 개념 간 유사성’에서는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조사하는데 “① 개념 사이의 공통점, ② 차이점, ③ 핵심 개념의 본질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위의 (10), (11), (12)는 ‘㉠, ㉡, ㉢, ㉤’의 특성이 공통적이고, ‘㉥, ㉦’의 특성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제작 방법에 있어서도 (10)과 (11)은 ‘붉은 칠’을 하고 나서 ‘문지르는’ 반면, (12)는 ‘갈고(문지르고)’, ‘붉은 칠’을 하는 차이를 보인다. 핵심 개념의 본질적인 특성은 ‘붉은 칠’과 ‘문지르다(갈다)’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개념을 비교하고 조화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인 조화의 절차가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의 절차는 ‘조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화를 진행할 개념과 그 개념 체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붉은간토기(그릇)’의 개념만을 다룰지, 다른 연관 개념까지 다룰지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토기’의 개념 체계이다.



[그림 17] '토기'의 개념 체계

'토기'는 제작 방식에 따라 '간토기'가 있고 동물 모양에 따라 '짐승토기'가 있다. 또한 무늬의 유무에 따라 '새김무늬그릇(북)'과 '민무늬토기'가 있다. 그리고 무늬 종류나 지역에 따라 더 하위 분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우선 여기서는 '간토기'의 범위에만 집중한다. '간토기' 안에는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갈색마연토기' 등 세 개의 개념이 병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하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개념 조화 작업은 '개념 조화'와 '개념 체계 조화'를 동반하므로 [그림 16]에서는 쌍방향의 화살표로 표시된다. 개념 체계를 비교한 후에는 조화된 개념 체계를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한다. 즉 조화된 개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보여줄지, 특수한 목적과 맥락에 따라 분해하여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마지막으로 '개념'의 비교를 통해 조화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명칭(designation)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가지는 특성(characteristic)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그 특성은 정의(definition)나 개념 체계에 딸려 있는 주석(explanatory note)에서 찾거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념과 관련된 모든 정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 비교를 통해 '① 동일 개념'인지 '② 부분적으로 중

48) 이러한 사실을 통해 ISO가 가지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ISO는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에서 내세우는 개념 우위설을 바탕으로 규범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복 개념'인지 아니면 '③ 한 개념 체계에는 존재하지만 다른 개념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지, 혹은 '④ 한 개념 체계에서의 단일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 체계에서 두 개 이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인지 파악한다. 동일 개념의 경우에는 조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의 경우에는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조화가 가능하기도 하며, 불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개념 체계 내의 적절한 위치에 넣어 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화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④의 경우는 조화가 불가능하며 개념 체계 내에 따로 주석을 달아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⁴⁹⁾

-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토기의 표면에 단(丹 : 酸化鐵)을 바르고 만들 거리가 문질러서 굽거나 적색안료를 바른 토기.
- '적색마연토기(赤色磨研土器)'·'홍도(紅陶)'라고도 부르며 중국의 홍도와는 다르다.
- 청동기시대의 고인돌과 돌널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나 집터에서의 출토 예가 늘어나고 있다. 남해안지방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단(丹)을 바른 토기가 출토된다.

《두산백과》⁵⁰⁾

- 토기의 표면에 산화철(酸化鐵:丹)을 바르고 만들거리에 문질러서 구운 토기.
- 청동기시대의 고인돌·돌널무덤·집터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남해안지방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고, 기형은 둥근 바닥의 긴목단지이며 목이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붉은간토기는 지역차에 의한 특색이 매우 강하며, 한반도에서는 함북과 낙동강유역 유적에 중점적으로 집중한다.

《고고학사전》⁵¹⁾

- 토기의 성형이 완료된 뒤 토기의 표면에 산화철(酸化鐵)의 액체를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써 문질러 소성한 토기를 말한다. 산화철은 고온에서 붉은색으로 발색되며, 토기의 표면을 갈면 광택을 띠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신석기시대의 산화철만을 도포(塗布)한 것이나 산화철이 녹은 점토를 토기 표면에 바른 것과는 다른 계통으로서, 한반도 동북계통의 청동기시대 문화요소로 알려져 왔다.

《다음백과》⁵²⁾

○ 홍도·적색마연토기·단도마연토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작·사용되었던 것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주로 남해안·동북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탕흙 위에 슬립을 씌우고 그 위에 다시 붉은 칠을 했으며 무늬가 베껴어져 있다. 다른 하나는 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말 무렵까지 쓰이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붉은간토기'라고 하면 이것을 일컫는다.

<표 28> '붉은간토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주석들

<표 28>은 신뢰할 만한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한 '붉은간토기'에 대한 정의와 설명들이다. 이 정의들과 설명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붉은간토기'의 정확한 외연과 내포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0), (11), (12)의 예문과 <표 29>를 통해 확인한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3) '붉은간토기'의 개념적 특성

- ① 토기/질그릇 (유개념)
- ② 겉/표면 (위치)
- ③ 붉은 칠/붉은색을 칠한/단을 바르고/산화철을 바르고/산화철의 액체를 바르고/적색안료 (재료)
- ④ 문질러/갈고/문질러서 (방법)
- ⑤ 구운/굽거나/소성한 (방법)
- ⑥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신석기 시대/청동기시대/신석기의 이른 시대/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말 (시기)

위의 (13)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붉은간토기'에 대한 특성들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굽다'라는 특성이 들어간 정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의도 있다. 또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포괄하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특성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들을 조정하여 개념을 조화할 수 있다.

49) <http://encykorea.aks.ac.kr/>

50) <http://www.doopedia.co.kr/>

51)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52) <http://100.daum.net/>

조화된 개념의 정의

- 명칭: '붉은간토기'
- 정의: 그릇의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거나 갈아 소성한 토기
(위치) (재료) (제작 방법) (유개념)
- 비고: 청동기 시대에서의 고인돌, 돌널무덤 등에서 주로 출토되며,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표 29> 조화된 '붉은간토기'의 개념

위의 표와 같이 개념 비교를 통해 조화된 개념은 '개념 정의의 조화'로까지 이어진다. 즉, [그림 16]에서 설정된 '→(단방향 화살표)'는 조화된 개념이 개념 정의의 조화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절차까지가 '개념 조화'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어 조화'의 단계는 '대역어(equivalence)'와 '동의어(synonymy), 이형태(term variation)'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⁵³⁾ 대역어는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여러 언어들에 나열한 것으로 다른 언어 간 동의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의어와 이형태는 한 언어 안에서의 용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언어라고는 하지만 다루고 있는 예가 '영국/미국', '스페인/멕시코' 언어라서 국가적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따로 용어 조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4. 새로운 전문용어 정책 제안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화의 방법론을 국내의 상황,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그 방향과 방법론적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O 860》은 개념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비교하여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정하여 조화에 이르도록 한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모든 전문용어들이 개념 체계를 엄밀하고 정밀하게 이루는 것은 아니며, 분야에 따라 개념 체계 수립의 정도성을 달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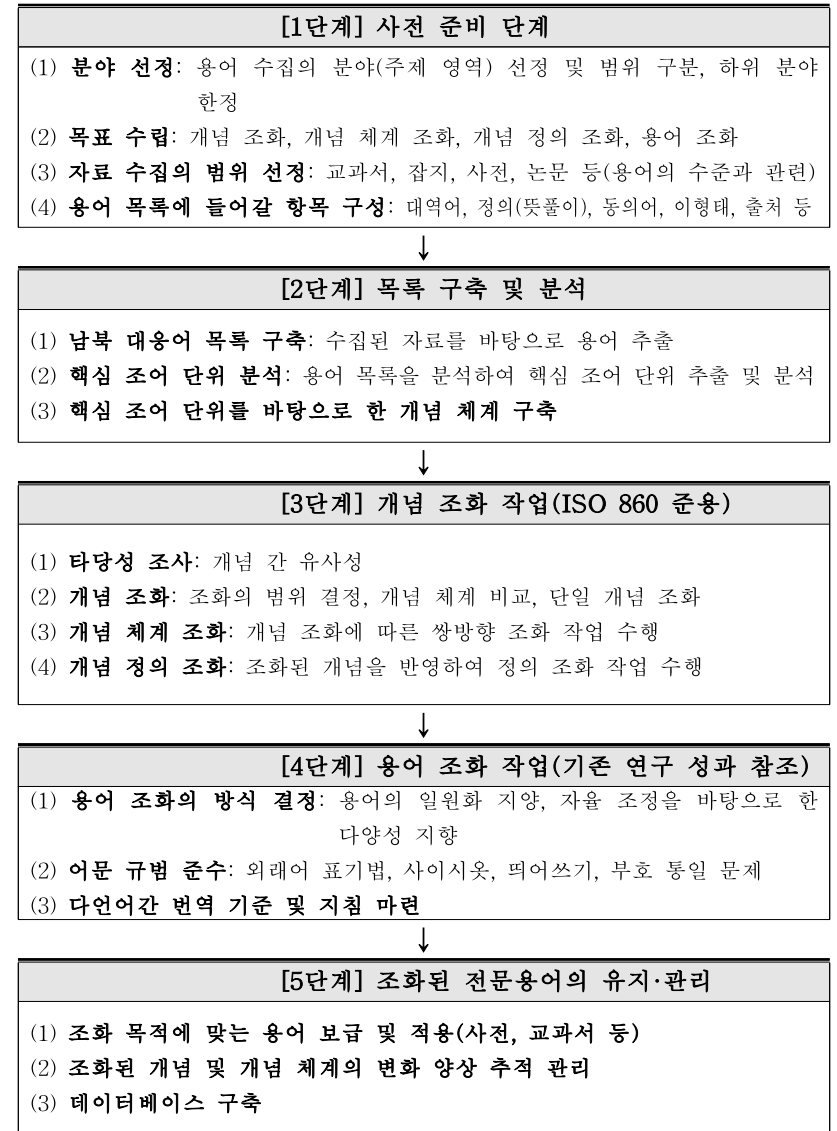
53) '용어 선택'에 관련된 내용도 《ISO 860》에 수록되어 있지만 다 언어 간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생략하였다.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역사’ 분야의 ‘유물명’은 용어를 만드는 규칙이나 법규가 존재한다.⁵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념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문학’ 분야의 용어들은 일반어와 전문용어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개념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ISO 860》의 개념 조화 방법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우선 전문용어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념 변이(concept variation)’의 예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⁵⁵⁾ 하지만 실제로 개념 변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일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시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념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언어를 공유하지만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의 개념 변이 수집은 더더욱 어렵다. 결국 개념 변이의 수집은 개념 수집이 아닌 용어의 수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수집된 용어들을 바탕으로 개념 변이를 찾고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문용어 조화’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실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54) 국내의 [문화재청예규 제163호]는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이며, 그 목적에 대해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55) 《ISO 860》에서는 “professional(직업적), technical(기술적), scientific(과학적), social(사회적), economic(경제적), linguistic(언어적), cultural(문화적), or other environments(여타의 환경)”에 의해 개념 변이가 나타난다고 본다.



<표 30> 국내의 ‘전문용어 조화’ 절차 모델

위의 표에서 각 단계는 방법론적 절차에 해당하며, 3장에서 살펴본 《ISO 860》의 방법론을 3·4단계에 둔 특징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단계의 개념 조화를 위한 용어 수집 절차를 1단계와 2단계에 설정하였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조화를 마친 전문용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절차로 채웠다. 언어가 역사성을 가지듯 전문용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개념 및 그 형식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을 추적 관찰하는 일도 전문용어 정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각 단계의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로 용어를 수집할 분야(주제 영역)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주제 영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다. ‘역사 분야’는 다양한 주제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 영역 구분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일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즉 자료를 한정하고 그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어들을 선별한다면 범위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용어 수집에 들어갈 항목들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용어 정의에 대한 항목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 대응어 목록을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선 1단계에서 확정했던 항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어휘·형태적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 형성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조어 단위를 추출한다. 주지하듯이 해당 분야의 모든 개념 체계에 대한 개념 조화는 단번에 진행되기도 어렵거니와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개념부터 접근해야 할지 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핵심 조어 단위를 시작으로 개념 체계 구축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엄태경(2015: 29-33)에서는 수학 전문용어의 특징으로 “기존의 용어에 새로운 개념을 담은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수학 분야만의 특징은 아니다. 다른 분야 역시 핵심이 되는 용어(조어 단위)에 새로운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전문용어가 형성된다. 앞서 살펴본 [그림 17]의 ‘토기’ 개념 체계도 ‘토기’라는 핵심 조어 단위에 ‘간, 짐승, 무늬’ 등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또 여기에 다른 조어 단위가 결합하는 다단어 용어(multi-word term)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핵심 조어 단위를 추출하여 개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개념 조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⁵⁶⁾

56)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전문용어가 체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핵심 조어 단위에만 한정되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개념 및 개념 체계 구축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2단계에서 구축한 개념과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조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앞 장에서 설명한 《ISO 860》의 내용을 준용한다.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사회·문화적인 개념 변이와 개념 체계 변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표준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용어 조화의 단계이다. 지금껏, 용어 조화는 ‘전문용어 표준화’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연구 업적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 성과가 그러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전문용어 정비’ 사업이 그러하다. 이 사업들은 용어의 통합을 지향하는 동시에 용어의 순화·표준화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문용어 정책’, ‘전문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들도 시도되고 있다. 이현주·신중진(2017)에서는 전문용어 조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현주(2017)에서는 국내 전문용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던져두고 있다. 또한 임현경(2013, 2015)에서는 해외의 전문용어학 연구 현황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소통적, 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문용어학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 조화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성과를 조정하여 용어 조화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조화를 끝낸 전문용어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용어의 조화의 성패는 그 성과의 보급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전문용어 조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핵심 대상이 달라지겠지만, 대상이 국민 전체임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보급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조화의 작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생성과 소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용어의 생성과 소멸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화된 전문용어의 개념 체계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일도 전문용어 정비의 영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존 전문용어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전문용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았다. 전문용어 형태를 위주로 하여 전문용어 표준화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통합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우리가 가진 여러 자료들과 전문용어 목록은 무척이나 값진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방향에서 의미와 형태를 모두 고려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전문용어 조화의 방법론은 전문용어 정책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문용어 정책과 이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고대해 본다.

* 연구 자료 및 참고 문헌

<연구 대상 자료>

1. 남측

* 연구 자료

교육부(2017), 『편수 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 교육부.
천재교육(2018), 『역사 1』, 천재교육.
천재교육(2018), 『역사 2』, 천재교육.
천재교육(2018), 『한국사』, 천재교육.

*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사편찬위원회(2002),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조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말샘(2016),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립국어원.
최용기(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인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이상수(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 북측

* 연구 자료

김광수·최영희(2014), 초급중학교 2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리인형(2002), 고등중학교 1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리인형(2002), 고등중학교 6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리인형(2008), 고등중학교 1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리태영(2002), 고등중학교 2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오영철(2002), 고등중학교 3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오영철·정성철(2013), 고급중학교 1 력사, 교육도서출판사.

오영철·정성철(2014), 고급중학교 1 력사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제갈명(2002), 고등중학교 5,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차영남·강국모(2013), 초급중학교 1 조선력사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차영남·박영철(2013), 초급중학교 1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한영찬(2002), 고등중학교 4,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한영찬(2008), 중학교 4,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한영찬·리금옥(2014), 고급중학교 2 력사, 교육도서출판사.
저자불명(2015), 고급중학교 3, 력사, 교육도서출판사.
저자불명(2008), 중학교 6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 참고 자료

백과사전출판사(2010),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참고문헌>

강현화(2000ㄱ), 「외래어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 『어문연구』 2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55.
강현화(2000ㄴ),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유형 분석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1-28.
고석주 외(2007), 『전문용어연구 - 정리현황과 과제』, 태학사.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1),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07),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 논문

- 집』,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편(2018),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 논문집』, 국립국어원.
- 국립문화재단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단연구소.
- 권은주(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건 전문용어의 역사용어 구축」, 『한국사전학』 20, 한국사전학회, 31-5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
- 권재일(2016), 「북한의 국어 문법사 연구에 대하여」, 『한글』 311, 한글학회, 55-87.
- 권재일(2018),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제 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11-25.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광해(1989), 「현대국어의 유의현상에 대한 연구: 고유어 대 한자어의 일대다대응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봉(1932), 「科學術語와 우리말」, 『한글(영인본)』 1-4, 한글학회, 369-376.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1』, 국립국어원.
- 김봉주(1988), 『개념학: 의미론의 기초』, 한신문화사.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유진(2016), 「남북 수학 심화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188-210.
- 김유진·신중진(2016), 「남북 수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 『한국사전학』 28, 한국사전학회, 34-74.
- 김유진·신중진(2016), 「남북 수학, 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문용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6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31-159.
- 김유진·신중진(2017), 「남북 자연과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물리·생물 분야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97-136.
- 김창숙(2005), 「남북한 생물학 용어 통일을 위한 비교 연구: 북한교과서 고등생물 5에 나타난 상이한 생물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완 외(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한샘(2008),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93-120.
- 김한샘(2015), 「국어사전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제42회 한말연구학회 발표요지』, 한말연구학회, 224-232.
- 김한샘(2016),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불교' 영역의 전문용어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5-218.
- 김현권(2013), 「전문용어 사전의 정의와 지식 표상」,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32-71.
- 리수락(2005), 「전문용어 표준화의 원칙과 평가 기준」, 『한국어정보학』 7-2, 한국어정보학회, 1-11.
- 문화관광부(1998),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관광부[편].
- 문화관광부(1999), 『전문용어센터 사업보고서』, 문화관광부[편].
- 문화관광부(2000), 『전문용어센터 운영』, 문화관광부[편].
- 방경원(2002), 「전문어연구 -개념 설명, 연구방법 및 연구현황 소개-」, 『독일언어문학』 18, 한국독일언어학회, 95-108.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191-219.
- 배선미(2007), 「영-한 전문용어 조어력에 대한 통계적 연구 -물리, 화학, 의학, 기계, 공학, 화학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언어』 32-1, 한국어학회, 85-104.
- 소강춘(2015), 「남북 언어 자료 구축과 정비 방안」,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그 실제-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165-190.
- 신중진·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311-336.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알랭 레이 지음, 최석두 외 3인 옮김(2003), 『전문용어학』, 한국문화사.
-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7-39.
- 엄태경(2017), 「전문용어 형태 분석의 방법론」, 『2017년도 한국언어문화학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학회, 92-103.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181-212.

오세진·신중진(2016),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25-47.

윤경오(1993), 「1980년대 남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세철(1993), 「북한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국사 인식」, 『사대논총』 4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11-243.

이경미(2002),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국역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대성(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문기(2005), 「국사교과서의 역사용어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 『역사 교육논집』 35, 역사교육학회, 1-40.

이성우·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어문 규범 몇 문제」,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41-71.

이은정(1993), 『남북한 어문 규범비교』, 대제각.

이현주(2013),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1-370.

이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이현주(2017), 「전문용어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5-98.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61-293.

이현주·조동성(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45-283.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08),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41-61.

임영태(2017), 「역사용어의 구조적 학습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71-489.

임현경(2013), 「유럽의 전문용어학 연구 현황과 한국의 향후 연구과제」,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I』, 한국문화사, 93-122.

임현경(2015),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 한국통역번역학회, 27-49.

정연진(2013), 「용어학을 위한 ISO 전문용어 표준」, 『통번역학연구』 17-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39-155.

정태현(2012),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 『역사비평』 99, 역사문제연구소, 314-340.

정태현(2011), 「남북 역사인식의 상호 변화와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를 통해 본 역사인식 연합의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4,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7-33.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정희창(2010), 「규범, 사전, 문법의 관계와 내용 구성」,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235-260.

조남호(2005), 「학술용어집 발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어정책에서 본 전문용어 정비」,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자료집』, 대한수의학회, 17-23.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201-230.

최형용(2010), 「전문용어의 형태론: 지침으로서의 전문용어 형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1』, 한중인문학회, 293-323.

최형용(2011), 「전문용어로서의 문장부호의 명칭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230.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7),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한용운(2015ㄱ),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99-210.

한용운(2015ㄴ),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권 2호, 국립국어원, 25-44.

ISO 704(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860(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1087-1(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 Part 1 : Theory and

- applic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 ISO 10241(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 ISO 29383(2010) Terminology policies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 ISO/IEC(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Guide 2, ISO/IEC.
- UNESCO (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Paris.
- Wright, S.E. & Budin, S.(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1. Basic Aspect of Terminology Manage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197-208.